

The New Birth  
By David Bernard

# 성경적인 거듭남

# THE NEW BIRTH

데이비드 K. 버나드 著 • 김종균 · 홍영기 共譯

진리탐구사

■ 영문판 인쇄 ■

초판 : 1984년  
재판 : 1986년  
제3판 : 1987년  
제4판 : 1989년  
제5판 : 1990년  
제6판 : 1991년

## **성경적인 거듭남 (THE NEW BIRTH)**

---

- 초판 인쇄  
1999년 4월 2일
- 초판 발행  
1999년 4월 5일
- 펴낸이  
진동석
- 지은이  
데이비드 버나드 (David K. Bernard)
- 옮긴이  
김종균, 홍영기
- 감수  
김삼식
- 펴낸곳  
진리탐구사  
423-017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306-36  
전화 (02)611-3958 팩스:(02)611-3958  
출판등록:1981. 7. 23. 제1호
- 전산편집 / Cover Design  
J&G Mission
- 전산출력  
맥토피아(Mactopia)

---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Series in Pentecostal Theology, Volume II

# THE NEW BIRTH

BY DAVID K. BERNARD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가장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과 책의 힘에 대한 이해를 심어 주셨고, 영적으로 빈곤한 세상에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산 표본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어머니와 아버  
지께 이 책을 드립니다.

# 성경적인 거듭남

# 목 차

저자 서언 ..... 11

제1장 정직한 질문 ..... 13

구원의 보편적 필요성 •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 • 구원이란 무엇인가? •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 사이의 연관성 •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 • 하나님의 나라 • 오순절날 베드로의 대답 • 빌립보 간수에게 한 바울의 대답 • 세 답변의 비교 •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제2장 은혜와 믿음 ..... 30

은혜란 무엇인가? •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 은혜와 행위 • 은혜와 믿음 • 믿음에 의한 칭의 • 믿음의 근원 • 믿음이란 무엇인가?(정의) • 구원하는 믿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 • 불충분한 믿음의 예들 • 믿음과 순종 • 믿음과 행함 • 지속적인 믿음 • 믿음의 대상 • 믿음과 회개 • 믿음과 물침례 • 믿음과 성령 • 회개와 물침례와 행위 • 시인, 믿음, 그리고 구원 • 주의 이름을 부름 • 구원을 위한 한가지 계획 • 구원하는 믿음 • 은혜와 믿음의 비유 • 은혜, 믿음, 그리고 거듭남.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 64

복음이란 무엇인가? • 죽음 • 장사 • 부활 • 침례 요한의 메시지 • 그리스도의 메시지 • 베드로의 메시지 • 전도자 빌립의 메시지 • 아나니아의 메시지 • 바울의 메시지 • 히브리서의 메시지 • 사도 요한의 메시지 • 신약 성경의 전도자들의 복음 • 모형론 안에서의 복음 • 구원하는 믿음과 복음.

제4장 물과 성령으로 남 ..... 83

거듭남의 교리 • 물로 남 • 자연적 출생? • 물로 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과 동일인가? • 말씀으로 깨끗케 함? • 물침례 • 성령으로 남 • 완전한 거듭남 • 첫번째 출생과 두번째 출생의 비교 •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제 적용되는가? • 거듭남 신자의 특징 •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거듭나지 않았다 • 결론.

제5장 회개 ..... 100

회개란 무엇인가?(정의)· 죄를 인식함· 죄를 자백함· 죄를 동회함· 죄를 버리기로 결정함· 회개와 배상· 회개와 감정· 회개의 예· 회개의 근원· 회개의 명령·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과 성령의 침례와 회개와의 관계· 제단 사역을 위한 지침· 회개와 그리스도인· 회개를 강조해야 할 필요성· 결론.

제6장 물침례 ..... 120

물침례란 무엇인가?(정의)· 요한의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 제자들이 행한 초기의 침례· 그리스도의 명령· 초기 기독교의 침례· 침례 방식:침수세례· 침례 방식이 중요한가?·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얻는다· 침례는 반복해서 줄 수 있는가?· 침례 - 거듭남의 일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죄 씻음· 구원의 일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 영적 할례· 모험론 안에서의 침례· 물침례는 공중 앞에서의 시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침례 안에 있는 인간의 요소· 용서와 사함· 믿음은 침례시 필수적이다· 회개와 침례는 모두 필수적이다· 먼저 회개하지 않고 받은 침례· 유아세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침례 후에 지은 죄· 하나님은 왜 침례를 선택하셨는가?· 물침례와 성령침례 사이의 구별· 침례는 필수적인가?· 물침례의 중요성.

제7장 침례 식문: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153

성경의 기록·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姓)을 취함· 그 이름으로 얻는 죄사함·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그 이름으로 하라· 예수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구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영접함· 마술적인 식문이 아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한 유일한 침례· 이름을 구두적으로 불러야 한다· 마태복음 28:19· 지상 명령의 비교· 유일한 이름·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 마태복음 28:19의 문맥· 예수는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침례 식문에 대한 결론· 삼위일체 교리· 마 28:19은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를 가르친다· 교회사 속에서 증거· 침례 식문은 정말로 중요한가?· 결론.

제8장 성령침례 ..... 182

성령· 성령침례· 성경적 용어· 성령의 충만함· 구원의 일부· 신약 교회의 기초· 새로운 교회를 위한 새로운 체험· 구약의 예언· 신약의 약속과 명령· 사

도 교회의 실행 • 사도행전의 중요성 • 오순절날 • 사마리아 • 바울의 회심 • 가이사라의 이방인들 • 에베소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 • 성령침례에 대한 결론 • 복음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 단지 사도 시대의 교회만을 위한 것인가? • 성령이 없는 사도행전의 구원? • 어떻게 성령을 받나? • 성령의 사역 • 결론.

제9장 방언을 말함 ..... 213

방언 말함은 무엇을 뜻하는가?(정의) • 이사야 28:11-12 • 마가복음 16:17 • 오순절날 • 고넬료가 방언을 말함 • 에베소인들이 방언을 말함 • 사마리아인들이 방언을 말함 • 바울이 방언을 말함 •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의 비교 • 참고 가능한 다른 구절들 • 방언은 필수적인가? • 방언을 하는 이유 • 방언이 성령의 영속적인 임재의 증거는 아니다 • 성령침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언을 하는가? • 방언의 은사 • 고린도전서 12장 • 고린도전서 13장 • 고린도전서 14장 • 고린도전서 12-14장에 대한 결론 • 방언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반대 이론들 • 기적은 오늘날도 존재한다 • 방언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 방언없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 결론.

제10장 교회사 속에서의 증거: 침례 ..... 248

교회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 • 회개와 물침례 • 침수에 의한 물침례 • 구원의 필수 부분으로서의 물침례 • 최초의 식문 • 1세기와 2세기 • 3세기 • 4세기 • 중세 시대 • 종교 개혁 이후 • 역사를 통하여 본 유일신 신자들 • 20세기 • 결론.

제11장 교회사 속에서의 증거: 방언 ..... 272

1세기와 2세기 • 3세기 • 4세기와 5세기 • 중세 시대 • 종교개혁 이후 • 20세기 • 오늘날의 오순절 교회들의 통계 • 결론.

제12장 예외는 있는가? ..... 293

기본 원칙들 •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는가? • 도덕적이고 진실한 사람들 •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 • 교회사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 • 성경외적인 추측들 • 죽음 후에도 기회가 있는가? • 불완전한 중생이 있는가? • 유아들의 운명 • 형벌의 정도들 • 결론.

제13장 구원의 네 가지 요소들 ..... 314



칭의 • 중생 • 양자됨 • 성화 •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 요약.

제14장 정직한 답변 ..... 325

    참고문헌 ..... 328

### 목록과 도표

신약 성경의 전도자들의 복음 ..... 76

물과 성령 침례를 가르치고 있는 구절들 ..... 77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의 비교 ..... 85

거듭난 신자의 특징 ..... 97

신약 성경에서의 *Aphesis*(용서/사함) ..... 141

지상 명령 ..... 169

성령침례에 대한 성경적 용어 ..... 184

성령침례와 방언 ..... 226

미국에 있는 유일신 오순절 교단들 ..... 283

국제 연합 오순절 교회의 주요 선교 지역들 ..... 284

예수 이름의 오순절 교단들, 비미국, 비국제 연합오순절교단 ..... 285

러시아의 오순절 교단들 ..... 287

## 저자 서언

오늘날 사도적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 영역을 다룬 종합적인 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자의 바램은 이 '성경적인 거듭남(the New Birth)'이 구원의 교리에 관하여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개념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한 방향, 즉 '개종의 경험 또는 중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오순절 신학 총서의 제 2권에 속한다. 제1권은 '하나님의 유일성'으로 1983년 출간되었고 제3권은 '성결을 찾아서'로서 1981년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교파적 교리의 관점에서가 아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관점으로부터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학구적인 방법으로 성경의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 많은 성경 참고 구절들이 있는데 독자들은 이것들을 찾아 나름대로 자신의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자가 편견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진리를 찾는 학구적인 자세로 이 주제에 다가선다면 하나님은 구원에 관계된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조명해 주실 것이다.

달리 나타내고 있지 않는 한, 모든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the King James Version)'에서 인용하였다. 사용된 약어로서 King James Version(킹 제임스역)은 KJV로, New International

Version(신국제역)은 NIV로, The Amplified Bible(상술성경)은 TAB로 나타내었다. 달리 상세한 기록이 없으면 헬라이어 정의는 '스트롱의 헬라이어 사전(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에서 발췌한 것이다.

나의 어머니 로레타 A. 버나드(Loretta A. Bernard)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그분은 많은 제안을 제공해 주셨는데 특히 3, 5, 6장을 위하여 많은 제안을 해 주셨다. 또한 나의 아버지 엘톤 D. 버나드(Elton D. Bernard)에 감사드리는 것은 내게 이 작업을 맡도록 영감과 의욕을 주셨다. 나를 무척이나 격려하고 지원해 준 내 아내 코니(Connie)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이 목적하는 바는 기록된 내용들을 동의하지 않거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받은 모든 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시피, 잭슨에서  
데이비드 K. 버나드



## 제 1 장 정직한 질문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행 2:37)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행 16:30)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다.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질문을 던져 왔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성경이 이 간단하고도 중대한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음을 믿는다. 이 책의 목적은 방금 기술했던 질문에 대하여 성경적 해답을 찾아 내고 이 주제에서 기인하는 많은 논쟁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교리나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교파를 떠나서 성경 자신이 무엇을 가르치는 지를 알아 보고자 할 것이다.

## 구원의 보편적 필요성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강력히 선언한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잠 20:9),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사 64:6).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왕상 8:46; 대하 6:36)

로마서의 처음 세 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에 의해 심판을 받고,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롬 2:12-16). 간단히 말해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롬 3:9).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시 14:1-3을 보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롬 3:19).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이 때문에 모든 인류는 사망의 심판 아래 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

각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선행을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에베소서 2:8-9은 선언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한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

고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와 그의 온전한 희생을 믿는 것이다. 물론, 구원을 얻는 믿음은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은혜와 믿음에 대해 좀 더 깊이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2장을 보라)

우리는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올 수 있으며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단언하셨다. 또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서 분명히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이 스스로를 죄인에게서 구별되시기를 요구했고 사람에게 대하여 죄값으로 사망을 요구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를 위한 죽음의 원칙에 자기 스스로를 구속(拘束)하시기로 선택하셨다. 피흘림(생명을 드림)이 없이는 죄사함이나 형벌을 면할 수 없고(히 9:22)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엡 2:13-17; 골 1:19-22을 보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지적, 도덕적인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짐승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짐승의 죽음으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가 충분하지 못하다(히 10:4).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적 희생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합당한 대속물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며, 죄가 없으므로 죽을 필요가 없으신, 완전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이 화해, 혹은 속죄

를 이루셨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의를 거스르지 않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롬 3:23-26).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대속물은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므로 (1)인간의 죄악과 (2)하나님의 거룩함 (3)죄의 형벌로써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인 것이다.

## 구원이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확정짓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구출, 보호, 혹은 해방'과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 신학적인 뜻으로는 '죄의 능력과 영향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성경에서 볼 때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시점에서 죄를 용서받고 또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되(구원하셨다:과거시제 -역사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not by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we have done, but according to his mercy he **saved** us)"라고 말했다(딤후 3:5).

우리는 또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에 죄의 용서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과 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얻는:현재시제-역사주-) 것이라(by



grace ye are saved)”(엡 2:5)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은 현재의 구원을 이룬다. 그의 죽음이 죄로부터 과거적 구원을 획득하게 하신 것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한 현재적 승리를 공급해 준다(롬 5:10; 요일 1:4).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구원이 여전히 미래적이다. 우리는 아직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최종적으로 완전히 건짐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죄악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을 입음으로 죽지 아니할 몸을 얻을 때 완성될 것이다(롬 8:23; 빌 3:20-21). 그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죄의 유혹, 혹은 죽음의 가능성에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고전 15:51-57).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이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되는 것(롬 8:30)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다(살전 4:14-17; 요일 3:2). 그러므로 성경은 자주 구원을 미래적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받음: 미래시제 -역자주-) 줄을 믿노라(But we believe that through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we **shall be saved**)”(행 15:11).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롬 13:11).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28).

##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 사이의 연관성

분명히 구원의 세 시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래의 구원은 오직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구원을 경험해 온 사

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미래에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의 보증을 갖는다. 그러나 단지 거듭났다는 과거의 경험이 자동적으로 미래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킬 책임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적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오직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면 미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죄와 불신앙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미래적인 구원의 약속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의 구원 사이의 연결선은 현재의 구원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셨다(요 15:1-14). 그분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10:22)고 말씀하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이 구절에서 ‘믿는다’란 단어는 현재 시제이고 지속적인 현재의 믿음이 필수적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고 말했다. 구원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올 것이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고 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거나 우리 자신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 안에 거하고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구원을 보아야 하며 우리가 구원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그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다른 많은 구절들이 유사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딤후 4:16).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롬 11:2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전 15:1-2). 다른 많은 성경 본문들이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잃을 수도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갈 5:4; 딤후 5:12; 히 12:14-15; 약 5:19-20; 벧후 1:10; 2:1; 2:20-21; 계 3:5).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아직 구원의 모든 영원한 은혜들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래의 구원은 아직 희망 사항이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롬 8:24; 살전 5:8). 그러나 미래의 구원의 소망은 단순한 바램 이상의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행할 때 구원의 약속과 보증을 갖기 때문이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현재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현재의 구원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주제와 관련된 세 개의 결정적인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자. 우리가 숙고할 첫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나오며 다른 두 내용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해 질문을 던졌던 신약 교회 안에 나타난 두 장소에 관한 내용이다.

##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니고데모는 어느날 저녁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이신 것을 인정했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대답하셨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어떻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나게 될 새 시대라는 것과,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리라는 것을, 즉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다.

##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단어 자체가 우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나타낸다. 이 개념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현재의 시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고 증거하셨다(막 1:14-15).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눅 17:20-21).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고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인 면은 성령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임한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요함으로 이루어져 있다(엡 1:13-14; 히 6:4-5).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의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시고 만유 안에서 그의 왕권을 나타내실 그 한 날(that one day)에 대한 미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안에서 물질적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계 20:4-6). 모든 죄인의 심판과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계 20:4-6).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제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왕국의 미래적인 면을 묘사하고 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계 11:15). 그날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선포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계 19:6).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히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계 19:16: 22:1-3).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적용해 보면 사람이 일시적이며 현재 나타난 나라(manifestation) 혹은 영원히 나타날 나라(manifestation)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질 수 없다. 오늘날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에 들어갈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현재의 구원은 죄의 지배와 형벌로부터의 자유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그의 통치에 복종하

고 그의 의를 얻는 것).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과 동일하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 오순절날 베드로의 대답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짧은 명령을 주신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였다.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침례가 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곧 그 도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최초의 성령 부어주심과 함께 수반된 초자연적인 소리(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 뿐만 아니라, 방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초자연적으로 말하여진 방언에 의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베드로는 군중에게 설교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예수에 대해 증거하여 나아갔다. 베드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메시아)라고 군중에게 선포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찢려 죄를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두달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행 2:37)라고 물었다. 성경 문맥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

고 십자가에 못박은 우리의 잘못된 일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기에 그들의 질문은 간단히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모든 사도들의 지지와 함께 베드로가 해 준 대답은 이렇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은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단순 명료하고도 모호하지 않은 답이다. 그것은 모든 사도들의 완전한 보증을 갖고 있던 답이다. 그것은 신약 교회 최초의 설교 -성령 부어주심 후에 했던 최초의 설교- 의 절정이다. 풀핏(Pulpit) 주석은 “이 구절 안에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요약되어 있다.” 라고 명기(明記)하고 있다.<sup>2</sup>

## 빌립보 간수에게 한 바울의 대답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이 있는 단 하나의 다른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행전 16장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도시에서 빌립보의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들을 옥에 가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깨달았을 때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했다.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자결하기로 결심했다. 간수가 칼을 빼어 들었을 때 바울은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소리쳤다(행 16:28). 이 말을 들었을 때 간수는 등불을 달라 하여 직접 확인하러 갔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기적적인 지진을 일으키게 했던 장본인들임을 깨닫고서 들어와 떨어져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0-31)고 대답했다. 성경은 좀 더 자세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행 16:31-34).

이 구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그가 앞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다. 아마 그 간수는 이방인이었을 터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을 것이다. 오순절날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는 아마도 회개, 침례, 성령 등과 같은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우기 그 때는 긴 설교나 상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에게는 신속히 올바른 방향을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울과 실라는 그가 어떻게 미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능한 가장 간단한 방법, 즉 이방 신들이나 우상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방법을 말해 주었다.

이에 간수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온 가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은 평이한 진술로 끝맺지 않고 상세히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결과로 간수는 바로 그 밤 그 시에 침례를 받고 참으로 기쁜 체험을 얻게 되었다. 다른 번역본에는 “그는 필쩍 필쩍 뛰면서 몹시 기뻐했다”(행 16:34, TAB)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발생했다.

이 구절에서 **‘믿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단지 정신적인 이해와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주장하고 있다. (2장을 보라) 믿음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TAB(상술성경)은 발행인 서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는 구절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절대적인 인격적 신뢰를 갖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TAB(상술성경)은 사도행전 16:31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라. 즉, 너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라. 네 자신의 보호로부터 너를 끌어내고 네 자신을 그분의 보호하심에 맡기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와 네 가족에게도 해당된다.”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구절에 덧붙인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때 그는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행 11:15-17).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연관지어서 말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회락’이라고 가르쳤다(롬 14:17). 비록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성령을 받았다고 특별히 진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기뻐했음이 언급된 것은 그가 성령침례를 받았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행 8:39를 보라)

## 세 답변의 비교

우리는 구원이란 주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본문들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

적인 답을 논의했다. 성경은 각 본문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확 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모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발견하기 원하시므로 성경은 그 주제에 대하여 명확해야 하며 결코 모호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석한 세 본문들은 비록 말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모순되거나 혼돈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우리는 각각의 본문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각 구절은 다른 용어로,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답을 제시하는데, 이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답은 같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간단히 증명해 보자.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지는 않았다. 대신에 그는 곧 존재하게 될 미래의 신약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 때에는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까지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요 7:39; 사도행전 1:4).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은 즉시로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주어 그의 인격과 사명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했던 것이다.

오순절날의 상황은 베드로가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준 것에서 다른 점이 있다. 성령 부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청중들의 질문에 명확한 가르침을 제시하여 즉각적인 신생(新生)이 일어나게끔 인도하였다. 그의 청중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의 개종자들이었고 그들 중 대부분(모두는 아니겠지만)은 나사렛의 예수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종교적 개념들과 용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단 한 번의 설명으로 정확하고도 완전한 답을 줄 수 있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에 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금방이라도 자살할 위험에 놓여

있었다. 그는 갑작스런 지진의 공포에서 정신을 차려 그 초자연적 현상 앞에 두려워 떨었다. 바울과 실라는 이해하기 쉽고 그를 안심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평이한 방법으로 그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따라서 그들은 우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임을 그 간수에게 알게 했다. 그 후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서로 다른 상황들로부터 발생하지만 각 내용은 다른 것들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앞의 두 내용은 물침례를 말하고 있고, 세번째 내용은 물로 거듭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앞의 두 내용은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을 말하며, 세번째는 기뻐하게 하는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기쁨은 성령을 받을 때 경험하게 된다. 오직 셋 중 하나만 명확하게 회개를 언급하고 단 하나만 명확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지만 다른 구절들은 믿음과 회개 두 가지가 구원에 앞서 필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들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구원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물침례(물로 거듭남)와 성령침례(성령으로 거듭남)로 이끌어 줄 것이다.

구원을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이 이 결론을 뒷받침해 준다. 예를 들자면, 구원은 (1)예수의 이름(행 4:12)과, (2)예수를 주로서 고백하는 것과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3)믿음을 통한 은혜(엡 2:8-9), (4)회개(고후 7:10), (5)성령의 거룩하게 하심(sanctification)과 진리의 믿음(살후 2:13), 그리고 (6)그리스도께 복종함(히브리서 5:9)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진술되어 있다.

우리는 구원에는 (1)최소한의 요구, 즉 새로운 탄생(the new birth)이 있다는 것과 (2)구원은 믿음과 거룩함의 지속적인 삶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모순된 것이 아닌 보충적인 관점들로부터 구원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상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된 두 가지 면들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있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죄를 회개하고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현재적 구원을, 그리고 영원한 죄의 결과로부터 미래적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다음의 몇 장에서는 위의 모든 요소들을 좀 더 상세히 알아 볼 것이다. 만약 누군가 이 책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들이 받은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배워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고 성령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열린 지성과 열린 마음, 열린 성경을 가지고 읽기를 부탁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신 것을 경시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중요성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은 성경적이며,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거듭남은 이상한 어떤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할 특권이다.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고 더욱 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진리 안으로 좀더 깊게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고자 해야 한다.

“이것을 꼭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고집하지 말고 “나도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지 아니한 어떤 것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순종치 않은 어떤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필수적인 것인지 선택적인 것인지 논쟁함으로 혼란에 빠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을 받기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순종하고자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지는 바른 자세이다.

## 각 주

<sup>1</sup>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 Philip Gove et al, eds. (Springfield, Mass.: G. & C. Merriam Co., 1976), p. 2006.

<sup>2</sup>H. D. M. Spence and Joseph Exell, eds., *The Pulpit Commentary*(Rpt. Grand Rapids: Eerdmans, 1977), XVIII (Acts), 54.

## 제 2 장

# 은혜와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9).

이 장(章)은 이후의 구원에 관한 모든 논의들을 뒷바침해 줄 기초를 놓고 있다. 구원의 다양한 면들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好意)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인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도 없고 값을 주고 살 수도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스스로 행하신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도울 수도 없으며 자신의 구원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기꺼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에베소서 2:8-9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들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유효(有效)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3:24-25).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 8:32)라고 했던 것이다.

빌립보서 2:13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빌립보서 2:12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함과 주의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한다.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없으며, 다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純服)하든지 아니면 거절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소원(desire,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힘(능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택까지도 무시하고 우리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복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외에 자신의 구원을 얻는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

## 은혜와 행위

우리는 선행(善行)으로 구원을 얻거나 구원받을 만 하다든지 혹은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행실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에베소서 2:8-9에서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가르친 후, 이어서 다음 구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알려 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



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딤후 2:11-12).

은혜는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롬 6:15).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롬 6:15). 반대로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해 준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모세의 율법이 요구는 하지만 줄 수는 없는 모든 의를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다(롬 8:3-4).

요컨대,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가져다 준다. 비록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행위의 대가로 얻을 수는 없지만 일단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자세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

## 은혜와 믿음

은혜에 관한 교리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고 가르친다면 모든 인간은 저절로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계 20:11-15). 은혜에 관한 교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태도나 반응과는 상관없이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므로 그것도 옳지 못하다(행 10:34). 만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몇몇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그는 공평하시므로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믿음에 관한 교리는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단이다(롬 3:21-31; 엡 2:8).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도울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데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의 구원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반응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둘 다 구원에 필수적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히 11:6). 한 개신교의 저자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고자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이 은혜 교리를 곡해(曲解)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어원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카리스(charis, 은혜)에는 ‘아무 공로없이 주신다는 것’ 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sup>1</sup>

## 믿음에 의한 칭의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거나 혹은 선언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에 의한 칭의(稱義)를 가르치고 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 2:4; 롬 1:17; 갈 3:11; 히 10:38).

바울은 이 교리를 전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행 13:38-39).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롬 3:20-25).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이 주제에 관하여 더욱 추가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은, 아무도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거나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것이다. 대신에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확증하고 난 후에 우리는 다음으로 무엇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출발을 위해, 우리는 벤자민 워필드(Benjamin Warfield)의 말을 주의해 보고 싶다. “믿음에 의한 칭의는 올바른 행하는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공로 대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믿음의 근원

믿음을 상세히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믿음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는 길보기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필경 은혜에 관한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리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믿음을 소유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번째 문제가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잠재된 믿음을 주신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겠는가? 반대로, 만일 하나님이 잠재된 믿음을 오직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다면 그분은 임의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정죄하여 그들에게 선택할 어떤 능력도 주지 않고 지옥에 넣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잠재된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그들 개인에게 맡겨 두신다는 것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마귀든지, 거짓 신들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무엇인가 믿고 있으며, 또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두셨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롬 1:19-20).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으므로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원이시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 12:3).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히 12:2).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은 위기의 순간에 초자연적인 은사로서, 그리고 매일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요소로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신다(고전 12:9; 갈 5:22).

죄성(罪性)때문에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요 3:27; 6:44; 롬 3:10-12).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게 되었다(요 3:16). 비록 인간 자

신이 완전히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구원에 선행(先行)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신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선행(先行)하는 은혜'(universal prevenient grace)라고 부른다.

성경은 보편적인 은혜(universal grace)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고 격려하므로 구원에 선행(先行)하여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딤후 2:11).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시며(행 17:30)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빌 2:13; 요일 5:3).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롬 2:4).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마 11:28; 계 22:17), 그러나 오직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마 20:16; 22:14).

우리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롬 10:17).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기록한 많은 예들이 들어 있다. 사마리아인들,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행 8:12; 10:44; 18:8).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최초의 믿음의 분량을 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우리 믿음을 배가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개발(改發)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믿음'이 인간이 하나님께 보이는 적극적인 반응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도록 허용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믿음의 기능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믿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정의해 보고자 한다. 웹스터 사전(Webster's Dictionary)은 신념(belief)을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신뢰와 확신을 갖는 마음의 상태나 습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믿음(faith)을 '의무에 대한 성실함 내지 한 개인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성실함... 신념과 신뢰감과 충성심... 특별히 믿는 어떤 것임. 강한 확신을 가짐'으로 정의하고 있다.

헬라어를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알게 된다. TAB(The Amplified Bible: 상술성경)의 저자 서언에는 believe(믿다)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심장한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어 단어의 일반적 의미로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 그러나 TAB에 따르면, 영어에서는 어떤 단어도 헬라어 *pisteuo*(피스투오)가 의도하는 의미를 적절하게 전할 수 없는 데,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believe(믿다)로 표현하고 있다. TAB의 *pisteuo*(피스투오)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이 말은 '고수하다, 신뢰하다, 믿다, 의존하다'의 뜻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W. E. 바인은 그의 신약 단어 해설 사전(An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에서 *pisteuo*(피스투오)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믿는다. 또한 설득되다. 그러므로 확신을 두고 신뢰하다. 단지 신임(信任)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것을 나타낸다.”<sup>5</sup>

킹 제임스 성경은 때때로 *pisteuo*(피스튜오)를 ‘위임하다’ 또는 ‘신용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pisteuo*(피스튜오)의 명사형은 *pistis*(피스티스)인데, 보통 ‘믿음’으로 번역된다.

바인은 *pistis*(피스티스)를 주로 ‘확신, 듣는 것에 근거한 확고한 신념’으로 정의한다.<sup>6</sup> 그는 *pisteuo*(피스튜오)와 *pistis*(피스티스)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완전한 시인과,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굴복과, 그럼으로 인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생활양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사람에게서 갖는 믿음과는 달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갖는 믿음 안에 있는 주요한 요소들은 특히 이 명사와 이에 상응하는 동사 *pisteuo*의 쓰임에서 나타난다; 그것들은 (1)굳은 확신이며,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후서 2:11, 12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 혹은 진리에 대한 완전한 시인을 나타내고 있고, (2)요 1:12에서 그분께 대한 개인적인 굴복이며, (3)고후 5:7에서 그러한 굴복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는 행동이며... 이 모든 것들은 증명하고자 언급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믿는 의견으로 이루어진, 순전히 자연적 사고의 작용으로 갖는 신뢰(belief)와는 대조적이다.”<sup>7</sup>

저명한 주석학자인 찰스 에르드만(Charles Erdman)은, 성경적인 믿음은 한 개인의 신뢰와 순종과 거룩한 행실 속에 비추어진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믿음이 단지 교리(敎理)나 신조(信條)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만을 의미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옳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어리석고 부당하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

스도와 의 개인적인 관계를 묘사한다. 신자(信者)에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순종과 사랑을 의미하며 그러한 신뢰와 순종과 사랑은 필연적으로 정결함과 거룩함과 이기적이지 않은 봉사의 생활의 결과이다.”<sup>8</sup>

개신교 신학자인 도날드 블로에쉬(Donald Bloesch)는 성경적 믿음에 관하여 설명하는 많은 글들을 쓰고 있다. 그는 “구원이 단순히 침례나 공개적인 믿음의 확인을 통하여, 혹은 계약 공동체(역자주: 교회) 안에서의 출생에 의해 구원을 확신하는 천국행 패스포트가 되어 버린 이단적인 싸구려 은혜”를 말하고 있다.<sup>9</sup> 그는 싸구려 은혜의 개념에 반대하여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단순히 외적인 지적 동이나 자발적으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의 완전한 의탁과 일생의 제자도를 요구한다”고 진술한다. 더우기 그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 전인(全人)의 철저한 의탁, 즉 인식(지식)과 신뢰와 순종이 수반되는 의탁”으로 나타내고 있다.<sup>11</sup>

## 구원하는 믿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구원하는 믿음은 정신적 인식이나 동의(同意) 이상을 의미한다. 실로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들 -인식, 동의, 전유(專有-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무엇인가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어느 정도의 인식과 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엇을 믿고 고백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구원하는 믿음이 하나님, 혹은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아는 것을 요구한다.



둘째, 믿음을 가지려면 동의 내지 정신적 수용이 있어야 한다.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어떤 제안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아직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하는 것에 덧붙여 그 신앙 고백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믿는 것을 전유(專有)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진리의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그를 구주로서 인정하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유(專有)하고 우리 삶의 지도 원리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며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위탁하므로, 그리고 그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관계를 세우고 충성하고 의지함으로서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

헬라이어 *pistis*(피스티스)와 *pisteuo*(피스투오)의 연구는 이 세번째 요소를 강조하였다. 그것이 없이는 구원하는 믿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주와 구주되심을 인정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인식하고 동의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복음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진리로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았고 그와 연합하지 않았다. 요컨대,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의존(依存)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依支), 순종, 위탁과 분리할 수 없다.

### 불충분한 믿음의 예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많은 실례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지적으로 믿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에게 순종하거나 의지하지도 않으며 구원에 관하여 자신을 그에게 맡기지도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예로써,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 고서 그를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 신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들 삶의 주로서 예수 께 그들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않았다(요 2:23-25).

이와 비슷한 예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믿었으나 회 당에서 출회(出會)당할까 두려워하여 예수를 시인하지 않았다. 그들 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요 12:42-43). 그 들이 자신들의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받 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마 7:21-27). 그들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은 충분하겠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한 믿음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있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없을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베 드로와 요한이 오기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행 8:12-17). 마술사 시몬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후에 영적 능 력과 축복들을 돈으로 살려고 했었다(행 8:18-19). 베드로는 그를 꾸 짓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 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그의 사악함을 회 개하라고 말했다(행 8:21-23). 그가 비록 어느 정도까지는 믿었으나 이점에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

심지어 마귀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있어서(약 2:19) 어떤 사 람들의 믿음, 그 이상이다. 그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 의 아들로 시인한다(마 8:29). 그러나 그들은 믿고 시인함에도 불구

하고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들 속에 지적인 이해와 동의는 있으나 역시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은 소유하고 있었으나 구원을 이루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믿음은 순종과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

## 믿음과 순종

바울은 다른 어느 저자보다도 믿음에 의한 칭의(稱義)를 강조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구원하는 믿음이 불가분하게 순종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교회의 비밀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다고 가르쳤다(롬 16:26). NIV(The New International Version)는 이 마지막 구절을 “모든 민족이 그를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알려진 바 되었다” 라고 번역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로마서 1:5).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다(롬 15:18). 유사하게, 누가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믿음에 복종하였다”고 기록했다(행 6:7). 믿음과 순종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롬 10:16).

다른 많은 구절들도 순종과 구원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이 있음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다(마 7:21).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마 7:24-27).

예수님은 또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요 14:23)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주실 것이다(살후 1:7-10). 그리스도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히 5:9). 베드로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라고 말했다(벧전 4:17).

요한은 다음과 같은 표준을 주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일 2:3-5).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게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요일 5:1-3).

하나님께서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애굽의 모든 집들로 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그들의 정신적 자세에 근거하여 저절로 보호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발라 그 피를 적용해야 했다(출 12장).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을 때만이 안전하였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히 11:28).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구원하는 믿음은 적극적인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회개와 예수 이름의 물침례와 성령을 받는 그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어린양의 피를 적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침례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바라고 구하여 받게 될 것이다. 한 개신교 저자는 “기독교인들은 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이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왔다”라고 진술했다.<sup>13</sup>

다른 한 개신교 신학자는 글을 쓰기를 “믿음에 담겨 있는 의미는 사실 한 구절에 집중되어 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고전 12:3)…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자신을 순종함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사실을 믿는 것은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직 순종 속에서 인정된다… 바울에게는 바로 불순종이 믿음의 결여(缺如)이듯이, 순종은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sup>14</sup>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Dietrich Bonhoeff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직 믿는 자가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sup>15</sup>

## 믿음과 행함

성경이 또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 선행(善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딤후 3:8).

믿음이 행함과 별개이거나, 혹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고 쓰고 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14, 17-24, 26).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과 행함에 관한 야고보의 가르침이 서로 상반된다고 여긴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야고보서를 싫어하였고, 야고보서가 믿음에 의한 칭의(稱義)에 모순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심지어 야고보서가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조차 의문시하였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들과 야고보의 서신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바울과 야고보의 글들은 서로 보완하고 함께 조화되어 하나의 온전한 전체를 이룬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救贖)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즉,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특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의식을 준수하는 것이 자체로서 죄를 깨끗케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구원을 포함하여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약 1:17). 그는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을 낳으리라는 것을 지적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행함과 분리시켜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나 혹은 그 외의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이다. 믿음은 단지 하나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생을 바꾸는 힘이다.

바울은 믿음에 의한 칭의(稱義)의 한 예로써 아브라함을 인용하였다(창 15:6; 롬 4:1-3). 야고보는 같은 인물을 예로 들며 믿음은 오직 행함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었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삭을 바치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야고보의 가르침대로라면 그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6-18).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한 글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생각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으며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적으로 확신하였다(롬 4:18-21). 이 말씀은 행함은 제쳐 놓은 정신적 동의를 묘사한다기 보다는 수많은 세월동안 그의 행동 속에서 그를 지지하는 믿음, 즉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했던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

바울과 야고보가 다소 다른 방법들과 문맥들 속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면 남아 있는 어떤 혼돈도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의미한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동의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진실되지 못하며 전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로마서에서 **행위(행함)**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행해지는 죽은 행위를 의미한다. 야고보서에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행하여질 수 있고, 믿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산 **행위(행함)**를 의미한다. 로마서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고 선언된 것'을 의미하며 야고보서에서는 '의로움이 밝혀진다'는 뜻이다. 바인(Vine)은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화됨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행함에 의한 칭의에 관하여, 이른바 야고보와 사도 바울 간의 모순은 단지 외형적일 뿐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란 열매도 없고 죽은 그릇된 믿음, 즉 전혀 믿음도 아닌 그런 믿음과는 반대된다는 생각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다.”<sup>16</sup>

바울과 야고보 모두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이 변화되며 행함으로서 입증되어질 것이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야고보는 구원하는 믿음은 행함을 낳고 오직 행함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 행함이 개인의 믿음과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과 행함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장의 주된 목적은 믿음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을 낳게 될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많은 위인(偉人)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행했던 그들의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믿음은 항상 행함을 낳게 될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저자가 어떤 이의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매번 믿음에서 연유된 그들의 행동들을 열거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행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행동하는 산 믿음이다.

### 지속적인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일시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의 지속적인 관계이다. 우리는 단지 한 순간에 가지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롬 1:17; 갈 3:11; 함 2:4) 라고 주장한다. 골로새서 2: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접한 것 같이 지속적으로 그를 믿어야 한다.

성경은 지속적인 믿음을 지적하면서 자주 현재 시제 속에서 믿음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16절의 ‘믿는다’ 라는 말은 지속적인 믿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단지 과거의 경험만이 아니다. 그것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현재 시제의 관계이다. 우리가 결국에 가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믿음과 행함과의 밀접한 관계를 더욱 알기 쉽다. 믿음은 점진적인 것이다. 믿음은 우리를 더욱 더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

### 믿음의 대상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무용지물인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없는 믿

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인간의 믿음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면 믿음에 의한 칭의(稱義)는 단순히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는 인간의 또다른 형태일 것이다.

믿음의 가치는 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조건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한 칭의의 한 예로 들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지적했다(롬 4:16-17). 이방 종교인들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의 말씀도 믿어야 함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확인하는 어떤 종교 조직들에 대하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이 만든 조직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의 진실함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영으로 뿐만 아니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요 4:24).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7:38).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여 믿어야 한다. 예수와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제외한 사람의 정신적인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 믿음과 회개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 믿음과 회개는 구원 안에서 함께 작용한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다(막 1:15).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죄는 잘못된 것이며, 회

개는 가능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며,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회개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눅 13:3; 행 17:30).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회개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회개가 믿음에 선행하는지 혹은 따라가는지를 숙고한다. 루터파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회개가 믿음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아 온 반면에 칼빈은 회개를 믿음의 산물로서 설명했다. 이것은 모두 믿음이라는 단어의 사용 여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자면 구원의 순간을 의미하고자 믿음을 사용한다면 회개가 구원에 선행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선행해야 한다. 한편으로 믿음을 어떤 한 시점 일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믿음은 회개에 선행하며 또한 믿음 후에 따라 온다. 여기서 후자의 대한 관점을 성경이 지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비록 그 순간에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이 구원에 앞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들을 살펴 보았다. 사람이 믿기 시작하는 처음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구원은 믿음이 성숙해지므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복음에 적극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여 회개와 물침례와 성령의 선물을 구하고 받음으로 성경 말씀을 순종하도록 한다.

그래서 믿는 첫 순간부터 회개가 따르게 되지만 회개는 구원하는 믿음이 완전히 표현되기(거듭남의 체험) 전에 나타나게 된다. 아마 회개를 복음에 대하여 갖는 첫번째 '믿음의 반응'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다. 왜냐하면 회개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때부터 나타나며 회개 자체가 믿음의 내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 믿음과 물침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한 물침례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분명히 믿음이 침례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을 가르쳤고 초대 교회의 역사가 이 진리를 확인해 주고 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행 2:41).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행 8:12). 빌립보 간수는 바울이 그에게 믿으라고 권고한 바로 그 시간에 믿고 세례를 받았다(행 16:31-34).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행 18:8).

다른 여러 경우들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행 8:36-38; 9:18; 10:47-48; 16:14-15; 19:5)는 언제나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물침례가 믿음의 행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 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물침례에 순종하도록 할 것이다.

한 침례교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입회(入會)논제가 거론될 때마다, 신약에서 믿음과 침례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보는 주장이 참으로 많으며 다양한 학파의 신학자들에게 옹호 받고 있다… 침례는…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결집(結集)이다. 그것은… 믿음을 행하는데 절대 필요한 외적 표현이며 최고의 순간이다.”<sup>17</sup>

## 믿음과 성령

믿음은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이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

러나라라”고 하셨다(요 7:38). 요한은 예수께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 하셨음을 설명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9).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 혹은 성령침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고넬료 가족의 경험이 오순절날 성령침례와 동일함을 인정했고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행 11:15-17). 따라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과 동일시했다.

바울 또한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는 것을 기대했다. 그가 에베소에 있는 침례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했다(행 19:2).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한층 강하게 질문하고 있다. “너희가 믿은 그 시(時)로 성령을 받았는가?”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다고 좀 더 깊이있게 가르쳤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갈 3:14).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여기서 우리가 내리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은 믿음이 결국 성령을 받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즉, 참으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진실하며 완전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 회개와 물침례와 행위

회개와 물침례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가?

그것들은 사람이 그의 구원을 얻는데 일조(一助)하고자 행하는 일들의 의미로서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자체가 회개와 물침례와 성령을 받는 것을 통하여 표현된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로부터 돌이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를 회개자로 이끄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과 방향이 바뀌도록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역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없다면 침례는 무의미한 종교 의식에 불과하다. 결국, 성령을 받는 것은 분명히 인간 편에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다. 성령은 개인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사람의 역할은 단순히 복음을 믿고 회개를 하고 물침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우시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구원하는 믿음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반응, 위임, 의지, 순종 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 '믿음의 반응'은 구원을 얻거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반응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초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시도록 허용하든지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절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며, 사람의 마음과 방향을 바꾸시며(회개), 그의 죄들을 씻으시고(물침례시), 성령으로 그에게 침례를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 자신의 은혜 안에 두시고,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능력을 부여하신다. 하나님 편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현 세대 속에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구성하고 있다.

## 시인, 믿음, 그리고 구원

구원하는 믿음에 관한 이러한 결론이 로마서 10:8-10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가?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사람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그를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 해석은 구원하는 믿음에는 전유(專有, 적용)와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진리와 모순된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심지어 마귀조차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알며 입술로 그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다(마 8:29; 약 2:19). 따라서 로마서 10:8-10에 대해 그러한 표면적 이해는 부적당하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13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말로서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가? 분명히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은 단지 마술적 주문이 되어버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16절은 순종이 결여된 것은 곧 믿음이 결여된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가야 가로

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 7:21-23). 믿음의 구두적 시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다면 그에게 구원의 믿음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서 10:8-10절의 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의 목적은 그들에게 정말로 얼마나 구원받기가 쉬운 것인지 상기시키는 것이었다(8절). 그의 독자들은 이미 중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거듭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단순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은, 구원의 기초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믿음에 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이 믿음을 시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로마서에 관해 한 주석가는 이 구절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오며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써 고백하도록 하는 믿음을 언급했다고 주석(註釋)했다.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을 전한다면, 우리는 아마 가장 좋은 구원을 소유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義)를 얻으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인하여 그 의가 ‘안전’함을 깨닫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반면에, 믿음의 시인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키며 마지막 구원까지 계속해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준다.”<sup>18</sup>

둘째로, 우리는 신명기 30:14절을 읽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바울이 로마서 10:8절에 인용했기 때문이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결국 이 구절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 것에는 필



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셋째로,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그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구두(口頭)로 고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고백이 진실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신 예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에게 순종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언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물침례시 그의 이름을 부를 때(행 22:16)와 성령침례시 방언을 말할 때(행 2:4)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결국,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전 12:3).

이 구절의 완전한 의미로 본다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까지는 아무도 진정으로 예수를 그의 생명의 주로서 시인할 수 없다. 흥미롭게도, 부르스(F. F. Bruce) 또한 틴데일 신약 주석집(Th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에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12:3절과 연결시켰다. 그도 역시 시인(confession)을 물침례와 연관시켰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두드러진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인의 침례에서 행해지는... 최초 고백을 더욱 생각하게 될 것이다."<sup>19</sup>

넷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 믿음은 의지(reliance)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고 구원을 위한 이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유효하게 하며(롬 4:25)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롬 5:10; 6:4-5; 8:9-11) 부활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의 구속을 적용하며 그의 성령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 주의 이름을 부름

로마서 10:13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 이름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마 7:21을 보라) 분명히 로마서 10:13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나타내고 있다. 구두적 시인은 그러한 과정 중의 한 단계이지만 산 믿음과 순종이 이 고백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요구된다.

로마서 10:13에서의 주요 논점은 구원을 위한 식문(武文)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이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롬 10:12)라는 그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이 인용 구절은 원래 요엘서 2:32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구절은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의 부어주심(욥 2:28-29)과 말세의 심판(30-31절)에 관한 요엘의 예언에 이어져 있다. 요엘서 2:32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베드로는 이 예언을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성령의 부어주심에 적용했다(행 2:21). 더우기 아나니아는 바울(로마서의 저자)에게 물침례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명령했다(행 22:16).

요약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에 관해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그것은 ‘간단한 믿음론(easy believism)’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찾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과 둘째로, 진실로 주를 부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며 침례시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점이다.

## 구원을 위한 한 가지 계획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의 계획을 따라, 즉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기초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 시대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다루어 오셨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이 다루신 모든 방법은 이 하나의 계획에 기초를 두고 있다. 비록 우리가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지만(요 1:17),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구원은 인간 행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와 같이 믿음의 원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도 명확해짐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갈 3:23-25),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믿음을 요구해 오셨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갈 3:6). 설령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마 23:23; 롬 2:29; 4:11-16; 9:30-33). 물론 믿음은 항상 순종을 포함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일부로서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를 떠나라는 명령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며 하나님께 받은 그의 아들 이삭을 다시 바쳤다(롬 4:16-22; 히 11:8-10, 17-18; 약 2:20-24).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부로서 유대인들은 피의 희생 제도(히 11:28-29)를 포함하여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법을 준수했다. 믿음의 일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다. 이 모든 순종은 과거에도 필수적이었고 오늘날도 필수적이지만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기초

해 왔다. 그가 일찌기 죄를 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희생제물이셨다 (히 9:22; 10:1-18).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시대의 죄를 구속했다. (NIV 영어 성경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속죄의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셨는데, 왜냐하면 그의 참으시는 중에 전에 범한 죄들을 형벌 받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롬 3:25)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미래의 구속 계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생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과거의 구속 계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을 표현한다. 할례와 피의 희생과 같은 그러한 구약의 순종의 요구들은 믿음에 의한 칭의(稱義)의 원리와 양립했으며, 회개와 물침례와 같은 그러한 신약의 순종의 요구들도 또한 믿음에 의한 칭의(稱義)와 양립한다.

## 구원하는 믿음

이 장에서 우리들이 논의한 것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 구원하는 믿음의 정의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며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을 전유(專有, 적용)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말씀의 교훈들에 근거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 믿음 자체를 나타낸다. 그것은 역사하는 산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다(고전 15:1-4). 우리는 회개와 예수 이름의 물침례와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는 역사와 연합한다.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을 적용한다(롬 6:3-5).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분석할지라도 구원하는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하여 표현되고 이에 인도되고 산출하며 포함한다.

## 은혜와 믿음의 비유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하나의 비유가 된다. 데이비드가 존에게 “내일 아침 열 시에 은행에서 나를 만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천 불을 주겠다”고 말한다고 가정하자.(이것은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존이 정말로 데이비드를 믿는다면 그는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나타날 것이다.(믿음은 필연적으로 신뢰와 응답과 의존을 낳는다) 존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돈을 버는가?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대가없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등장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데이비드 편에서는 은혜, 존의 편에서는 믿음) 만약 존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여 회개를 하고 물침례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침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우리는 돈을 주고 산 권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값없이 얻은 선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반면 만약 우리가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 은혜, 믿음, 그리고 거듭남

은혜와 믿음의 교리들은 거듭남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은혜의 교리는 거듭남이 우리가 돈으로 값을 주고 사지도 못하며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가르친다. 믿음의 교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만 의지함으로 중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에게 굴복하며, 그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도록 허용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함한다.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그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물침례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침례를 받을 때 몸에 물만 적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이르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믿음은, 거듭난 신자가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줄 것이다. 요약컨대, 거듭남의 경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 각 주

<sup>1</sup> David Hesselgrave,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 Zondervan, 1987), p. 106.
- <sup>2</sup> Donald Bloesch,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San Francisco: Harper & Row, 1978). II, 250, quoting Benjamin Warfield, "Justification by Faith—Out of Date?," *Present Truth*, Vol. 4, no. 4(August 1975), p. 9.
- <sup>3</sup> *Webster's*, p. 9.
- <sup>4</sup> *The Amplified Bible*(Grand Rapids: Zondervan, 1965), publisher's foreword.
- <sup>5</sup> W. E. Vine, *An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1940), p. 118.
- <sup>6</sup> *Ibid.*, p. 411.
- <sup>7</sup> *Ibid.*
- <sup>8</sup> Charles Erdman,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p. 77.
- <sup>9</sup> Bloesch, I, 207.
- <sup>10</sup> *Ibid.*
- <sup>11</sup> *Ibid.*, p. 224.
- <sup>12</sup> William Evans, *The Great Doctrines of the Bible*(Chicago: Moody Press, 1974), p. 145.
- <sup>13</sup> Bruce Demarest, "How to Know the Living God," *Christianity Today*, March 18, 1983, p. 40.
- <sup>14</sup> Lewis Smedes, *Union with Christ*(Grand Rapids: Eerdmans, 1983), p. 147.
- <sup>15</sup>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ship*, 2nd ed., R. H. Fuller, trans.(New York: Macmillan, 1959). p. 69. Emphasis in original.
- <sup>16</sup> Vine, pp. 625-26.
- <sup>17</sup> G. R. Beasley-Murray, *Baptism in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Eerdmans, 1974), p. 272-74.
- <sup>18</sup> W. H. Griffith Thomas, *St. Paul's Epistle to the Romans*(Grand Rapids: Eerdmans, 1974), p. 279.
- <sup>19</sup> F. F. Bruce,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Vol. VI of *Th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Grand Rapids: Eerdmans, 1963), p. 205.

### 제 3 장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1, 3-4)

### 복음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gospel(복음)이란 ‘기쁜 소식(good news)’ 또는 ‘기쁜 메시지(good message)’를 의미하며, 그와 같은 뜻으로서 원래의 헬라어 *euangelion*(유앙겔리온)을 바르게 번역한 것이다.<sup>1</sup> 고린도전서 15:1-4 절은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의 기본적인 성경상의 정의를 제시해 주고 있다.

물론 오늘날 의미하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교리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서 단지 역사적 사실들만을 전하는 것으로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하



여 무엇이 좋은 소식인지 전하지 못한다. 그 중요성은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행하여 구원을 획득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지낸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사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되셨다. 바인(W. E. Vine)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속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에 기초한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타나 있다.”<sup>2</sup>

그러므로 기쁜 소식이란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다. 이것을 정의하면 믿음은 전유(專有) 혹은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명확한 해답을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유(專有)하거나 적용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응하고 순종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직접 복음에 연합하는가?”

바울은 로마서 6:3-5에서 이 질문에 답해 주었는데, 이 구절에서 그는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하는지 설명했다.

## 죽 음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야 한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 여기서 ‘옛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가능성은 거듭난 신자에게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의 경험이 육신의 성품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의 성품과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갈 5:16-17). 그러므로 옛 사람

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성품이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죄의 성품의 지배력과 통제력을 말한다(롬 6:12-14).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와 사단의 통제력은 우리에게서 소멸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게 될 때 우리에게 대한 죄의 지배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죄 자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죄는 더이상 우리를 주장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의 능력을 무시해 버릴 수 있다. 비록 자신이 원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굴복해서는 안되며 마치 죄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롬 6:1-2, 6-7, 11-12, 14).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칭의(稱義)를 언급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벰전 2:24).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 둘 다 죄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는 분명한 경험과 명확한 시간을 언급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로마서 6:2절에 기록된 헬라어는 그러한 특성을 지시해 준다. 이러한 상기(詳記)내용은 KJV(King James Version:킹 제임스역)에서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구절에서 명확히 보여 지는데,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신국제역)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로, TAB(The Amplified Bible:상술성경)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번역되어 있다.

죄에 대한 죽음은 언제 일어났는가? 개인적인 죄에 대한 죽음, 또는 옛 사람의 죽음은 죄로부터 회개할 때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그 회개라는 단어의 정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제5장을 보라) 회개할 때 사람은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버리기로 결정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죄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옛 사람에 속한 육체의 소욕과 욕망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다. 그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의 삶에 유효하게 되어 그로 하여금 죄의 굴레를 깨뜨리게 할 수 있다.

물론 회개하기로 결정했어도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같은 결정은 단지 죄로부터 돌아서는데 한정적이고도 일시적인 능력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원의 과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물침례를 받아 과거에 행한 죄들을 장사하고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罪性)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 하며(롬 8:13) 매일 자아(自我)가 죽어야 한다(고전 15:31). 그렇지만 삶의转机(轉機) - 옛 사람의 죽음 - 는 분명히 회개할 때 있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죄를 회개하는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게 된다.

## 장 사(葬事)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한다. 바울은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사와 연합하는지 설명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롬 6:3-4).

바울은 골로새서 2:12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이 진리를 반복했다. 물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몸이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사실은 제6장과 7장에서 물침례를 연구할 때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물침례가 오직 회개 이후에 유효하며, 침수세례가 성경적 방식이며, 예수 이름이 성경적 식문(式文)임을 알게 될 것이다. 침례는 회개한 후에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태와 동일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침례는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것이기에 참으로 장사(葬事)이다.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은 죄에서 죽고 그 죄를 장사지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에서 나올 때 옛 생활과 과거의 죄는 영원히 장사되고 기억에서 지워진다. 그래서 물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다.

## 부 활

바울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4-5).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미래의 육체의 부활과 그 이후의 영생으로 국한시키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은 현세(現世)에서의 새로운 생명에 맞춰져 있다. 우리는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라고 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롬 8:9)이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 오셔서 사시게 된다. 성령은 우리의 생명 안에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던 그와 같은 능력을 가져다 준다(롬 8:11).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롬 8:2).

로마서 6:4절에 있는 ‘새 생명(the newness of life)’은 로마서 7:6절에 있는 ‘성령의 새로운 것(the newness of life)’과 같은 것이다. 이 ‘영의 새로운 것’은 단지 인간 영혼의 갱신(更新)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의 내주(內住)함을 말한다. 그것은 ‘성령의 새로운 길(the new way of the Spirit)’(NIV)이며, 또는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성령(the Spirit in newness of life)’(TAB)이다. 성령은 신생(新生, 요 3:5)을 일으키고 새 생명을 부여한다(고전 3:6).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데 유효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유력한 신약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과연 그들이 제출한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6장과 일치하는지 알아 볼 것이다.

### 침례 요한의 메시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사역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와 죄사함을 위한 물침례였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막 1:4).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눅 3:8).

그는 또한 성령침례를 말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메시지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1)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 (2)회개 후 너희 회개를 입증하기 위해 물로 침례를 받으라, (3)성령과 불로써 침례를 베풀 자를 기다리라.

## 그리스도의 메시지

네 권의 복음서에는 우리가 여기서 모두 다룰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에 관계된 그의 기본적인 가르침들과 명령들을 확인해 보자. 세 개의 구절들은 예수님 자신이 강력히 강조했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절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나는 그의 신성(神性)에 관계된 것이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두번째 구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5).

세번째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하신 복음서의 기록들도 주의해 볼 만하다. 마태복음 28:19-20절은 다음과 같은 그의 명령과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 (1)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2)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3)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그의 임하실 성령을 언급한 것이다(요 14:16-18).

막 16:15-18절은 이들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다. (1)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3)많은 표적이 방언을 포함하여 믿는 자들에게 따르리라. 이 마지막 약속은 성령침례에 동반되는 능력을 언급한 것이다(행 1:8; 2:4).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에 관한 누가의 기록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담고 있다. (1)너희는 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다, (2)모든 민족 중에서 회개와 죄사함을 전파하라[물론 죄사함은 물침례를 포함하고 있다(행 2:38)], (3)너희는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침례를 받아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눅 24:46-49; 행 1:4-5).

우리는 복음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원의 체험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명령을 요약할 수 있다. (1)그의 신성을 믿으라, (2)회개하라, (3)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마지막 명령은 침례를 받고 성령침례를 기다리라는 그의 명령과 일치한다.

## 베드로의 메시지

베드로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제자들과 초대 교회의 대변인이었다. 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매고 풀 수 있는 권세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셨다(마 16:19). 예수님은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달고 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마 18:18) 그것은 기도의 응

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이며(마 18:19; 요 14:12-14),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모든 복음 전파가 수반된다.

천국의 열쇠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상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말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베드로가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셨다. 이 메시지에 의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베드로가 받은 특별한 위임은 분명하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그가 담당하게 될 중요한 역할을 나타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신약 교회에서 최초의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문을 열었다(행 2:14-40). 그 후에 그는 사마리아인들(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혼혈 민족)이 최초로 성령을 받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행 8:14-17). 결국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행 10:34-48).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나타낸다.

베드로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 신약 교회의 문을 열어 주기 위해 어떠한 메시지를 사용했는가? 그는 오순절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선포했다(행 2:38). 오늘날 설교자가 어떤 단체의 사람들에게 최초의 설교를 할 기회를 얻었다고 할 때 그는 과연 이와 같이 설교할 것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이 그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묻는다면 그는 이와 같은 식으로 대답하지 않겠는가? 베드로는 이같이 대답했던 것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파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를 없앤다는 것은 물침례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행 2:38; 22:16), 유쾌하게 되는



낯은 방언을 말하는 성령을 받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사 28:11-12).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는 동안에 성령을 받았다. 그 일 후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명했다(행 10:44-48). 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할례자) 이 일을 보고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기뻐했다(행 11:16-18).

### 전도자 빌립의 메시지

빌립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단순히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전도했다고 말한다(행 8:5, 12). 빌립의 메시지는 물침례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빌립이 전도한 내용을 믿었을 때 모두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메시지에는 성령침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특별히 이 선물을 구했고 결국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 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고 기록되어 있다(행 8:15-17).

### 아나니아의 메시지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들어 다소 출신의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사울은 후에 사도 바울로 알려지게 되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행 9:17). "이제는 왜 주저하

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행 22:16).

## 바울의 메시지

바울은 그가 아나니아에게 받았던 메시지를 고수했다. 그가 침례 요한의 열 두 제자들을 만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을 알고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다.

- (1)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2).
- (2)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행 19:3).

오늘날 어떤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는 신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이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할 것인가?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단지 회개의 침례만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재침례(再浸禮)를 주었다(행 19:5). 그런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행 19:6).

로마서 6:3-4절로 기록했듯이, 바울의 여러 서신서 속에서 독자들에게 그들이 회개와 예수 이름의 물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11)고 했다. 바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 히브리서의 메시지

전통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로는 바울이 지명되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히브리서 6:1-2절은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를 열거하고 있다. 저자는 그의 독자들이 영적으로 유아기적 수준을 벗어나 이같은 기본적인 교리 이상의 것을 더욱 깨닫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들은 놓아두고, ...기초들을 다시 닦지 말고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자”(히브리서 6:1-2, NIV). 달리 말하자면 여기에 열거된 교리들은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조차도 이해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도 기초적인 진리들이다. 이 범주 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과 ‘세례들’(복수)이 들어 있다.

히브리서는 또한 성령이 새 언약의 증거라고 가르친다(히 10:15-16). 몇 구절 지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회개했고 물로 침례를 받았던 것을 언급하는 말, 즉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히 10:22)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충고를 받는다.

## 사도 요한의 메시지

먼저 요한은 구원의 메시지에 관해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입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입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요일 5:5-6, 8, 10).

요한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 일치하는(함께 역사한다) 세 가지의 구별된 요소들 -성령, 물, 피- 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들 안에 이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참된 신자는 물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생명에 적용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게 될 것이다.

### 신약 성경 전도자들의 복음

신약의 모든 저자들과 전도자들은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쳤다. 믿음을 포함하여 구원을 얻는 요소들은 아래 표에서 의해 볼 수 있다.

전도자	회 개	물침례	성령침례
침례 요한	마 3:2, 8; 눅 3:8	마 3:6; 막 1:8; 눅 3:3	마 3:11; 막 1:8; 눅 3:16
예수 그리스도	마 4:17; 막 1:15; 눅 13:3-5	마 28:19; 막 16:16; 요 3:5; 4:1	눅 11:13; 요 3:5; 7:38-39; 20:22; 행 1:4-8
베드로	행 2:38; 3:19	행 2:38; 10:48	행 2:38; 11:15-17
빌립		행 8:12, 16	행 8:15-16
아나니아		행 22:16	행 9:17
바울	행 17:30	행 19:3-5	행 19:2, 6
히브리서의 저자	히 6:1	히 6:2; 10:22	히 6:2; 10:15
사도 요한		요1 5:8-10	요1 5:8-10

## 물과 성령침례를 가르치고 있는 구절

구 절	주 석
마 3:11	침례 요한의 말.
막 1:8	침례 요한의 말.
막 16:15-17	예수님의 말씀. 행 1:8; 2:4에 내포된 성령침례.
눅 3:16	침례 요한의 말.
눅 24:46-49	예수님의 말씀. 행 2:38에 내포된 물침례
요 3:5	예수님의 말씀.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제4장을 보라.
행 1:4-8	예수님의 말씀.
행 2:38	베드로의 말.
행 3:19	베드로의 말. 사28:11-12과 행2:38에 내포된 침례들.
행 8:15-17	사마리아인들의 개종.
행 8:36-39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 롬 14:17에 내포된 성령침례.
행 9:17-18	바울의 개종. 행 22:16을 또한 보라.
행 10:44-48	고넬료와 다른 이방인들의 개종.
행 11:15-18	고넬료의 개종에 대한 베드로의 보고.
행 16:31-34	빌립보 간수의 개종. 행 11:17과 롬 14:17에 내포된 성령침례.
행 19:1-6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개종.
롬 6:3-4	롬 7:6과 8:9-11에 내포된 성령침례.
고전 6:11	행 22:16에 내포된 물침례.
고전 10:1-2	광야에서의 경고된 사건들로부터 보게 되는 모형론.
딤후 3:5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제4장을 보라.
히 6:1-2	기본 교리.
히 10:15-23	성령, 마음에 뿌림(피), 물.
요일 5:8-10	피와 물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다.

## 모형론(typology) 안에서의 복음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구절들로부터 복음에 관계된 구절들을 입증했다. 그러나 구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갈 3:24).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관

한 많은 모형과 그림자와 모습들을 담고 있다(골 2:17; 히 10:1). 복음에 관한 몇 가지 구약의 예시들을 간단히 언급해 보자.

(1)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해방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 홍해의 물, 그들을 인도했던 주님의 임재의 구름(출 12-14)등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듯이 하나님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도록 만든 재앙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능력을 떨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침례를 사용하시듯이 바로의 군대를 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임재와 인도를 나타내시고자 구름을 사용하셨는데 성령침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주고 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모형론을 가르쳤다(고전 10:1-2).

(2)하나님께서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자신들을 성결케 하며(그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 시킴) 그들의 옷을 물로 빨도록 요구하셨으며, 그리고서 그들에게 강림하여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다(출 19:10-11).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 즉시 모세는 백성들에게 물과 피를 뿌림으로 그 언약을 승인 하였다(히 9:18-20). 옛 언약은 구별함과, 피와,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顯現)으로써 개시(開始)되었다.

(3)광야의 성막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히 9:8-9). 성막의 뜰에 있는 최초의 기구는 놋으로 만들어진 제단으로 짐승의 희생제 물을 드리는데 사용되었다(출 27:1-8; 40:6). 제단은 피흘림과 죽음의 장소였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최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준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며,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

성막의 뜰에 놓여진 그 다음의 기구는 솥으로 만든 물두멍, 혹은 솥대야였는데 거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다(출 30:17-21; 40:7). 이곳은 자신을 살피고 씻는 곳이었다.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린 후 자신의 몸에 묻은 피와 재와 다른 부정한 것들을 씻는다. 이것은 물침례를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죽은 다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물침례를 받기 때문이다. 디도서 3:5절에서는 '중생의 씻음' 또는 '중생의 물두멍' (Conybeare)이라고 말한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성막의 물두멍에 관한 모형론적 관계로 보는데<sup>3</sup> 그들은 디도서 3:5절이 물침례를 묘사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제4장), 우리는 의심없이 모형으로써의 물두멍과 원형으로써의 침례가 연결되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성막 자체는 휘장에 의해 나뉘어진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출 26:33-35) 어느 제사장도 그가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첫번째 방은 성소(聖所)라고 하는데 금등대와 거룩한 떡(임재의 떡 NIV)상과 분향단이 있었다(출 25:23-40; 30:1-10). 등대는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빛이 비춰진다(요 8:12; 마 5:14). 거룩한 떡(진설병)은 영적인 양식을 나타내며,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한다(요 6:51; 눅 4:4). 분향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나타낸다(계 5:8; 8:3). 그러므로 방 전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교통(交通)을 강조하고 있다.

휘장 뒤에 있는 방은 지성소(至聖所)로써,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 향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었다(출 25:10-22; 히 9:1-5). 그 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서로 간의 계약이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의무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임된

권위 등을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 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방에 들어가 민족의 죄에 대한 속죄로서 시은좌(언약계의 뚜껑)위에 피를 뿌렸다(히 9:7). 그래서 이 방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교제이자 교통을 나타내었다(출 25:22).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제사장들은 피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물로 몸을 씻었다. 그 후에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출 40:17-35).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의 영원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알게 하셨다(출 40:36-38).

성막, 특히 지성소는 성령침례를 가리킨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나 그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대화와 영적 교제 등은 성령을 통하여 온다(롬 8장). 성령은 새 언약의 인(印)이요, 보증이며 증거자이시다(엡 1:13-14; 히 10:15-16).

(4)제사장이 자신을 성별케 하기 위해서는 피의 희생제물과 물로 씻음과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출29:1-7). 기름 부음은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요일 2:20, 27과 요 14:16-17, 26을 비교하라)

(5)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써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물로 씻고, 불로 태운다(레 1:1-13).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열 두 통이나 되는 물을 부어 피의 희생제물을 물에 흠뻑 적게 하였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셨다(왕상 18:33-39).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이며(히 12:29), 특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타나낸다(마 3:11; 행 2:3-4).

(6)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은 피와 물과 기름을 동반하는 의식을 통하여 정결함을 받은 후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레 14). 제사장은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물에 섞인 새의 피를 일곱번 뿌린 후, 문둥병이 나은 환자는 물로 몸을 씻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피와 기름을 당사자에게 적용하고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같은 일을 마



치기 전까지 그 문둥병자는 육체적으로 자신의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모든 접촉으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는 살아있는 송장과의 같은 존재였다. 이와 같이 죄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그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회와의 영적 교통을 이루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7)모세의 율법 아래서 의식(儀式)적으로 부정함을 입은 사람(상징적인 죄)은 피와 물과 불을 포함하고 있는 정결 의식을 거쳤다.(민 19).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회막 앞에 뿌리고 제물을 불살랐다. 그리고서 어떤 사람은 그 재를 물과 섞어 부정한 사람에게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했다.

(8)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했기 때문이었다(민 31:1-18). 그 후 하나님께서는 싸움에서 얻은 노략물과 군인들의 옷을 깨끗케 하는 정결의식(purification ceremony)을 제정하셨다. 모든 물건을 물로써 씻어야 했고 불에 견딜만한 것 역시 모두 불로 정결케 해야 했다(민 31:21-24).

(9)노아가 살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사용하여 땅 위에 있는 죄를 멸하시고 동시에 그의 백성은 구원하셨다. 베드로는 이것이 침례의 한 모형이라고 가르쳤다(벧전 3:20-21). 하나님은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두번째로 이 땅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로써 행하실 것이다(벧후 3:5-7).

이와 같이 우리는 물침례와 성령의 불로써 정결함을 입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 구원하는 믿음과 복음

제2장에서 구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전용(專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본 장에서 우리는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임을 배웠다. 우리는 회개와(죄에 대하여 죽음) 물침례와(장사) 성령침례(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에 의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전용, 내지 적용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이들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므로 복음에 순종한다. 구약은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예시해 주었고 신약의 모든 전도자들은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선포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메시지의 각 요소들을 연구함으로써 복음이 인간의 죄에 따른 모든 결과를 구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구체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 각 주

<sup>1</sup> Vine, p. 507.

<sup>2</sup> *Ibid.*

<sup>3</sup> Robert Laurin,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Bernard Ramm et al, *Hermeneutics*(Grand Rapids: Baker, 1967).

## 제 4 장 물과 성령으로 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 거듭남의 교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5에서 거듭남의 교리를 처음으로 가르치셨다. 이어지는 여러 단원들은 중생(regeneration),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언급할 때 그 내용들은 이 가르침 위에 세워진다. 제 1장에서 논의했듯이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신생(新生)은 구원의 과거시제적 경험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 신약 교회 시대에서 거듭남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물론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사용하셨던 말씀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새로이 나는

것'을 말한다.<sup>1</sup> 바인(W. E. Vine)이 지적한 것처럼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가 당황해 했던 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다.”<sup>2</sup>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두번째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 즉, 두번째 육체적으로 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경험을 설명해 주셨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 역시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요 3:9)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종교학자요 지도자인 그가 거듭남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신생의 교리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낯선 교리가 아니었어야 했다. 그는 에스겔 36:25-26의 언약을 의지하고 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생이 두 가지 부분들로 이루어졌지만 하나의 경험인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부분이 없는 한 면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이것은 두번이 아닌 오직 한번 경험하는 출생이다.

## 물로 남

많은 신학자들은 물에 대한 이 구절의 의미에 관하여 여러 이론들을 전개해 왔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해석들로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진다. (1)물은 자연적 출생을 의미하는데, 이 출생

은 물로 된 양수가 유출됨으로 동반된다. (2)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3)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정결함을 언급한다. (4)물은 물침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한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역사로서 물침례를 받을 때 죄를 사하신다. 이제 이러한 각각의 견해들을 분석해 보자.

### 자연적 출생?

이 해석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

(1)이것은 자연적 출생을 기술하는데 너무도 이상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 방법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말할 때에도 이런 방법은 쓰지 않는다.

(2)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신생은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명확히 알려 주셨다. 3절과 5절을 대조해 볼 때 '거듭난다' 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와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다.

(3)물로 난다는 말이 자연적 출생을 뜻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그가 이미 해 본 적이 있었던 어떤 일(물로서의 자연적 출생)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일(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하므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된다. 만약 그같은 경우라면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었으며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4)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출생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처럼 보인다.

(5)물로 나는 것이 실제로 자연적 출생을 의미한다면 왜 예수님은 신생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셨는가? 자연적 출생에서 말하는 물과 신생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한복

음 3장 본문 말씀에서 물로 나는 것 자체는 자연적 출생이 아님을 확증하고 있다.

### 물로 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과 동일한가?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것이 “너는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물론 몇몇 성경 구절들은 성령을 물에 비유하기도 한다(요 4:14; 7:38). 그러나 이같이 물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3:5에 적용하려고 하기에는 몇 가지 곤란한 점들이 있다.

(1)이 구절을 자연스럽고 평이하게 읽어 볼 때 물과 성령과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주요한 역본들에도 이 차이점이 나타나 있다.

(2)다른 많은 구절들에서 볼 때 ‘물’과 ‘성령’은 복음 메시지 안에 두 가지 구별되는 면들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3장을 보라)

(3)요한복음 저자가 후기에 쓴 글들을 보면 요한은 물과 성령이 구원과 관계된 것으로 그 사이에 구별되는 점이 있음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요일 5:8). 요한복음 3:5에서 실제로 물과 성령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요한은 요한일서 5:8에서 이 둘을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짓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두 구절은 같은 제목(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말씀으로 깨끗케 함?

이 견해는 주로 에베소서 5:26에 의존하는데, 이 말씀은 교회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 3:5이 침례를 말하고 있다면 에베소서 5:26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푸는 물침례를 언급한 것일 것이다. 어쨌든 두 구절 사이에 반드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쪽 구절이 다른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을 반드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브루스(F. F. Bruce)는 에베소서 5:26이 “물과 말씀에 의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좀 더 의미를 확대하여 “구두적인 말에 의해 동반되는 수세(水洗)로써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sup>3</sup> 그는 계속해서, “동반된 ‘말’ (헬라어: *thema*, 레마)은 아마 여기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으라’(행 22:16)고 한 아나니아의 말처럼 회심자가 말로서 나타내는 기도나 고백의 말일 것이다”<sup>4</sup> 라고 설명했다.

요한복음 3:5의 ‘물’이 실제로 ‘말씀’이라고 보는 견해에는 몇 가지 심각한 난점들이 있다.

(1) 이것은 물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무시해 버리고 본문의 전후 문맥에서 볼 때 전혀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상징적 의미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차례로 한층 심화된 쟁점을 부각시킨다. 예수님은 그토록 중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왜 그와 같은 모호한 상징을 선택하셨는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성령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지 않았는가? 그는 왜 거듭남의 한 면은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한 면은 상징적으로 설명하셨는가?

(2) 이 상징적인 표현은 구약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기대하실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살던 시대나 그 이전에도 물로써 상징화된 적이 없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이

해가 부족하다고 책망하셨는가? 드와이트 펜테코스트(Dwight Pentecost)가 진술했듯이, “물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주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대단히 난해한 것이 될 것이다”<sup>5</sup> 라는 말은 사실이다.

(3)전후 문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여기서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난 문맥이나 문법이나 이후의 용법 등으로 볼 때 확실히 문자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다음 내용을 보라)

(4)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남 그 자체의 일부라고 보기보다는 수태(受胎)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보는 것이 한층 타당하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너희는 죽을 혈통(씨, 精子)으로부터 거듭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 있고 계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죽지 아니할 혈통으로부터 거듭난 것이니라”(The Amplified Bible).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한 농부가 네 종류의 땅에다 씨를 뿌렸는데 오직 한 가지 땅에서만 열매가 맺혔다(눅 8:4-15).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 말씀하실 때 이르시기를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다(눅 8:11). 네 종류의 땅은 네 종류의 사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비록 네 종류의 땅에 종자를 심으려고 하셨지만 세 종류의 땅은 처음 그대로의 결과를 낳았고 오직 한 곳에서만 지속적인 결과를 낳았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근원이다. 수태(受胎)를 일으키는 씨이다. 그러나 거듭남 그 자체는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 물 침례



우리는 이 마지막 견해가 옳다고 믿는데 물침례를 받으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때 물로 거듭나게 된다. 전 교회사를 걸쳐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지지했는데 특히 초대 교회 교부들과 초기의 루터파 사람들이 그러했다.<sup>6</sup> 우리가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는 타당한 많은 이유들이 있다.

(1) 성경을 솔직하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읽게 될 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낳게 된다. 즉 침례는 신약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물을 사용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그래서 물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물침례를 가리키게 된다. 초대 교회는 일반적으로 물을 침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 관해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라고 했다(행 10:47). 요한도 후에 물을 문자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그는 성령과 물과 피는 구원을 위한 한 가지 목적에 일치한다고 말했다(요일 5:8). 만약 성령과 피가 문자적으로 쓰였다면 물도 문자적으로 쓰인 것이다. 풀핏 주석(The Pulpit Commentary)에서도 요한일서 5:6-8이 물침례를 가리킨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sup>7</sup> 침례교 신학자인 비슬리 머레이(Beasley Murray)는 요한복음 3:5이 물침례를 언급한다고 말했다. “최후의 심판과 관련하여 죄사함을 위해 물을 사용하되 침례라는 명확한 형식을 취했었던 시대에 물이 침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중대하게 언급한다고 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sup>8</sup>

(2) 요한복음 3:5의 문맥은 강력히 물침례를 시사하고 있다. 요 1:25-34과 3:23은 침례를 베풀어야 할 요한의 사역을 말한다. 요한복음 3:22과 요한복음 4:1-2은 예수님의 권위 위에서 그의 제자들이 베풀게 된 침례를 설명한다.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물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물침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틴데일 신약주석(Th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22절에 예수님에 의해 실행된 물침례가 언급된 것을 비추어 볼 때,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들을 연결지어

기독교의 침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기독교의 침례에는 죄를 깨끗케 하는 것과 성령을 부여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필수적인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sup>9</sup>

(3)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가 물침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셨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받는 침례 뿐만 아니라 구약의 종교적 정결 의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더우기 중요한 것은 그는 침례 요한이 행한 일들을 지켜본 목격자였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눅 20:1-7).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침례와 요한의 침례는 개종과 회개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일부로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당황하지 않았어야 했다. 사실 성경에는 그 이후로 몇 구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을 시기일 것이다(요 3:22; 4:1-2).

(4)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침례를 의미한다(다음 단원을 보라).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말해서 물로 나는 것은 물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다.

(5)성경에는 오직 하나의 침례만이 있는데(엡 4:5) 성경은 분명하게 물침례와 성령침례, 두 가지를 가르친다. 우리는 물침례와 성령침례가 전체적인 하나를 이루는 두 부분인 것과 다른 한 쪽이 없이 한 부분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외형적 모순은 사라진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한 쪽이 신생의 일부라면 다른 쪽도 신생의 일부임이 분명하다.

(6)하나님께서서는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죄를 사하신다.(제6장을 보라) 그러므로 침례는 분명 신생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옛 생명이 제거되지 않고서 어찌 새롭고도 영적인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을 씻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7)디도서 3:5은 요한복음 3:5과 짝을 이루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분명 물침례를 가리킨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은 단순히 신생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신생과 함께 물과 성령과 관계된 두번째 구절이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물침례를 강력히 가리키고 있으며 씻음의 특유한 행위를 성령의 사역과 구별하여 설명한다.

많은 번역본들은 특유한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뜻을 강조한다. ‘중생의 물두멍’ (Conybeare:코니베어), ‘신생의 목욕’ (Rotherham:로더햄), ‘중생의 목욕’ (Weymouth:웨이마우스), ‘중생의 물’ (New English Bible:신 영어성경). 이 씻음의 행위는 죄를 씻는 것인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지시한 말을 상기시켜 준다. “이제는 왜 주저하는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행 22:16).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그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디도서 3장에서 그 말들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마 물과 침례가 같은 뜻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중생의 씻음’은 ‘물로 새롭게 나는 신생’을 의미하며 물침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는 것이다. 참으로 블로에쉬 (Bloesch)가 말한 대로, “성경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중생의 씻음이 침례 의식을 가리킨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sup>10</sup>

(8)다른 여러 구절들이 구원의 메시지에 있어서 물과 성령침례를 결합시키고 있으며(3장을 보라) 구원을 얻는데 침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6장을 보라)

물이 침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물침례가 구원과 관계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얻는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고 항변한다.

물론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않고서는 물

침례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물침례를 받을 때 물 자체나 인간의 행위에는 아무런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물로 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다. 물침례 자체 안에서나 물침례만으로 구원의 행위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물로 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 디도서 3:5은 침례가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충분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여전히 신생에 있어서 물침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원의 모든 역사에 걸쳐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 물침례가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2장을 보라) 물침례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물로 나는 탄생이라고 본다고 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주님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그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이의(異意)는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리처럼 성령을 받지 못했다(요 7:38-39).(8장을 보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위해 말씀하셨고 제정하셨던 그런 의미로 거듭나지는 않았다.(다음 단원을 보라)

## 성령으로 남

성령으로 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이러한 뜻은 요한복음 3:5-8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해되는데 아무도 심하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생명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성령침례와 동일하다는 데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비록 일반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표적은

거부하지만 성령침례로써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블로에쉬(Bloesch)는 “우리는 성령침례를 신생과 구별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sup>11</sup> 이와 같이 아담 클라크(Adam Clarke)도 성령침례와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sup>12</sup>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신약의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남,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는 것, 성령침례 등이 모두 하나임을 가리키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1)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를 니고데모가 이해하기를 바라셨는데, 분명 성령 부어주심에 관한 구약의 예언에 근거를 둔 말씀이었다.(8장을 보라) 특히 니고데모는 요엘의 예언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요엘의 예언을 성령침례에 적용하였다(행 2:16-18).

(2)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성령침례의 약속에 대해 말했다(막 1:8). 의심할 여지없이 니고데모는 요한의 사명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3)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는 그 약속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행 1:4-8). 오순절날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행 2:4). 베드로는 그 날 회개하는 구경꾼들에게 이와 똑같은 체험의 약속에 대해 말했는데, 그는 그 체험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불렀다(행 2:38-39).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바로 그와 같은 체험을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몇 가지로 나타낸다. ‘그들에게 내려진 성령’은 ‘성령의 선물로 부여됐’으며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행 10:44-48). 베드로는 그것을 성령의 선물이며, 성령침례라고 확증했다(행 11:15-17).

요약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모든 내용을 성령침례로 나타내고 있다.(관련 구절 찾아보기 요약표를 위해 8장을

보라)

(4)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침례가 아니고 성령의 내주(內住)하심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고린도전서 12:13은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성령침례라고 증거한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6)다른 많은 구절들이 성령침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침례를 구원의 메시지의 일부로서 물침례와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다.(3장을 보라)

## 완전한 거듭남

우리는 거듭남이 하나의 완성된 체험임을 강조해야 한다. 사람이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반쪽만 태어나는 일은 없다. 예수님은 두 가지 요소 -물과 성령- 를 증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생을 말씀하셨다. 성령과 물과 피는 모두 합하여 하나이다(요일 5:8). 오직 하나의 침례만 있으며(엡 4:5) 물과 성령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 침례를 받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내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갈 3:27), 침례를 받음으로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 것(골 2:11-13)을 성경이 가르칠 때, 성경은 물침례와 성령침례 둘 다 포함하고 있다(롬6:3-4). 회개와 물침례와 성령침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는 이 셋이 합쳐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한 가지에 너무 중요성을 두면 다른 것들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우려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성령의 본(本)은 세 가지 모두 -회개, 물침례, 성령의 선물- 를 경험하는 것이다(행 2:38).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행 8:15-17). 비록 고넬료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했다(행 10:44-48).

이상적으로는 세 가지 모두가 실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든지 혹은 지체함이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행 2:38은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이 세 가지 부분들 사이에 지체함 없이 성령을 받으리라고 약속했다.

특히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한다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자마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이었다(행 19:1-6).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기쁨이 충만한 체험을 했었는데, 이는 외적으로 나타난 성령침례였다(행 8:36-39; 16:31-34). 하나님은 완전한 신생의 과정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

### 첫번째 출생과 두번째 출생의 비교

여기서 우리는 자연적 출생과 신생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각각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각각은 또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다. 어떤 한 저자는 두 가지 것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놓았다.<sup>13</sup>

#### 자연적 출생

1. 잉태
2. 아기가 모태에서 나옴
3. 아기가 첫 숨을 내쉬

#### 신 생

1. 복음을 들음; 믿음의 시작
2. 물침례
3. 성령침례

##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제 적용되는가?

거듭남은 하나이면서도 각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생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된다고 믿는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에 덧칠해진 마법의 물질이 아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보혈을 말할 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만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구원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온전히 회개할 수도 없으며 침례를 받음으로서 죄사함을 얻지도 못하며 성령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물침례와 성령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데 유효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리는 용어를 사용할 때, 피는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어 하나님을 찾도록 하며, 회개할 때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며, 물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성령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는 신생 후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어느 시간의 한 정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두루 거쳐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을 처음 들을 때부터 시작하여 적용된다.

## 거듭난 신자의 특징

요한일서는 이미 신생을 체험한 사람의 시각에서 신생을 논하고 있다. 요한은 그의 서신서를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침례 받고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어떻게 그



들의 거듭난 현재의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썼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요한 서신 어디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철회(撤回)한 곳은 없다. 요한일서는 거듭난 사람이 그의 거듭난 성품에 이끌려 순종할 때 보여 주게 될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우리에게 전해 준다.

### 거듭난 신자는...

### 구 절

- |                         |            |
|-------------------------|------------|
| 1.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다.   | 4:2        |
| 2. 사랑을 가지고 있다.          | 4:7        |
| 3.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한다. | 4:15       |
| 4.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 5:1        |
| 5. 세상을 이긴다.             | 5:4        |
| 6.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 3:9; 5:18  |
| 7.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 3:24       |
| 8. 성령을 모시고 있다.          | 3:24; 4:13 |
| 9.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가진다.   | 5:8-10     |

그러므로 신자(信者)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된다. 신자(信者)가 시인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세상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거듭나지 않았다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같이 거듭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중생은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새 언약의 일부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그의 백성의 심중

에 기록하며(렘 31:31-34), 그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고 언약하셨다(겔 11:19). 옛 언약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보여 주었지만 죄성을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주지는 못했다(롬 7:7-25; 8:3).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대신하며 항상 죄를 이길 능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령- 을 받는다(롬 8:2-4; 갈 5:16-18).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의문(儀文)의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롬 7:6).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는 영원한 죄사함이란 없었으며 단지 미래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까지 죄를 미루어 두었을 뿐이었다(롬 3:25). 피의 희생은 죄의 대가를 앞으로 미루어 보내기 위해 계속해서 드려져야만 했으나 그리스도의 희생은 새 언약 속에서 죄사함을 영원한 실재(實在)로 만들었다(히 10:1-18). 오직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다(렘 31:31-34; 히10:14-18).

요약하건대,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적 관념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1)영원한 죄사함도 (2)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얻게 되는 새로운 성품도 그들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1)죄사함을 위한 예수 이름의 침례도 (2)성령의 침례도 구약에는 존재치 않았다는 사실과 상응한다.

## 결 론

이번 장에서 우리가 토론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결론짓는다. 이것은 분명히 이 책 앞의 3장까지 결론에 필적하고 있다. 제1장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였다. 제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며, 그것을 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였다. 제4장의 질문은 "신생이란 무엇인가?"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모두 같았다.

기독교의 4가지의 중요한 개념 - 구원, 믿음, 복음, 신생- 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완전한 복음은 회개와, 예수 이름의 물침례와, 성령침례를 받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 각 주

<sup>1</sup> Vine, p. 43.

<sup>2</sup> *Ibid.*

<sup>3</sup> F. F. Bruce, *Answers to Questions*(Exeter, U. K.: Panernoster Press, 1972), p. 108.

<sup>4</sup> *Ibid.* Emphasis in original.

<sup>5</sup> J. Dwight Pentecost, *The Words and Works of Jesus Christ*(Grand Rapids: Zondervan, 1981), p. 125.

<sup>6</sup> John Peter Lange,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Grand Rapids: Zondervan, 1960), IX, 126-27: *The Interpreter's Bible*(Nashville: Abingdon, 1956), VIII, 505.

<sup>7</sup> *The Pulpit Commentary*, XXII(I John), 140.

<sup>8</sup> Beasley-Murray, p. 228.

<sup>9</sup> R. V. G. Taske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IV of *Th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Grand Rapids: Eerdmans, 1960), p. 71.

<sup>10</sup> Bloesch, II, 12.

<sup>11</sup> *Ibid.*, p. 22.

<sup>12</sup> Adam Clarke, *Commentary on the Bible*, abr. by Ralph Earle(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7), p. 904.

<sup>13</sup> Ralph Reynolds, *Truth Shall Triumph*(Hazelwood, Mo.: Word Aflame Press, 1965), p. 40.

## 제 5 장 회 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행 2:38)

3장에서 우리는 회개를 죄와 옛 성품에 대한 죽음으로 설명했다. 4장에서는 회개가 신생에 필수적이며 물침례와 성령의 선물과 함께 동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행 2:38).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신생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죽음과 연합하는 회개와 물과 성령에 연합하는 신생, 이 두 가지를 확증해 준다.

### 회개란 무엇인가

웹스터 사전을 보면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데 스스로 헌신하는 것; 후회(後悔)하거나 통회(痛悔)함을 느끼는

것; 마음에 변화를 일으킴”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sup> 회개란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metanoeo*)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이후로 깨닫다’, ‘그러므로 마음과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을 나타낸다’.<sup>2</sup>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항상 보다 나은 것을 위한 변화를 가리켰다.

많은 신학자들은 회개에 담겨 있는 세 가지 필연적인 면들을 열거한다: 지적인 변화(관점의 변화), 감정적 변화(감정의 변화), 의지적인 변화(자발적인 목적의 변화).<sup>3</sup>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계명과 일치한다(막 12:30). 기본적으로 회개는 마음과 뜻과 방향의 변화이다.

많은 성경의 관련 구절들이 이것을 확증해 준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다(행 26:18).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파하여 이 사명을 다하였다(행 26:20). 교회의 기본 교리 중 하나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히 6:1). 성경이 전하는 바는,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회개는 물침례와 성령의 선물을 포함하여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함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회개가 그 모든 거듭남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한 예이다(행 11:18).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에서는 이 단어를 물침례와 성령침례에 선행(先行)하여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번째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좀 더 제한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행 2:38). 이것이 우리가 이번 장(章)에서 다룰 내용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회개는 마음과 태도, 신념과 방향의 근본적

인 변화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발적인 행위이며, 단지 후회나 사죄(謝罪)의 감정만이 아닌 적극적인 삶의 전환(轉換)이다. 또한 회개는 도덕적 결심(決心)이나 개혁(改革)이상의 것으로서 영적 결단과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회개는 첫번째 믿음의 행위이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의 인식과 죄의 고백, 죄에 대한 통회(痛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려는 결단이다.

물론 회개(Repent=후회하다, 회개하다, 뜻을 돌이키다: 역자 주-영어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말이 구원과 는 상관이 없는 뜻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Repent(후회)하셨다(창 6:6). 여기에 쓰인 말은 슬픔과 통한(痛恨)과 후회를 의미하고 있다.(NIV와 TAB를 보라)

(2)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하여 작정하셨던 심판을 Repent(뜻을 돌이키다)하셨다(욘 3:10). 니느웨성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섰기에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변경하셨다.

(3)하나님은 인자(人子)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제사장으로서 삼으신 자신의 결정을 결코 Repent(변하다) 아니하시겠다고 맹세하셨고(시 110:4) 또 약속하셨다.

(4)에서는 조심스럽게 회개의 자리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히 12:16-17). 그는 장자권과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 보려고 했지만 허사였다(창 27:34-38). 여기서 말한 구절들은 어떤 것도 구원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상황에도 회개(repentance)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

## 죄를 인식(認識)함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막 2:17; 눅 5:32)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예수님은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 하나님 없이는 우리 모두 영적으로 극빈자이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천국의 부요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개 도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이나 경건함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령을 받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가장 큰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위급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될 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죄를 자백(自白)함

일단 자신이 참으로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는 하나님께 죄인임을 자백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솔직한 자백을하기를 원하신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自服)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회개의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自服)하고 물에 들어갔다(막 1:4-5). 회심 이후에 죄를 짓는다면 자백하여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요일 1:9).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죄를 자백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사 43:25; 막 2:7).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딤후 2:5; 히 4:15-16).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고백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행 19:18). 무엇

보다도 우리는 서로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간구할 때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여 그의 용서를 구할 때와 같은 경우이다(눅 17:3-4; 약 5:16).

자백도 죄만큼이나 공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자백이라는 것이 반드시 생애 전체를 통틀어 범했던 모든 죄를 낱낱이 열거하라는 뜻은 아니다. 자백(自白)의 본 뜻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 죄를 통회(痛悔)함

자백할 때 통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범한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죄인은 잘못 행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감정을 느껴야 하고 죄에 대하여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죄인은 단지 인간적인 슬픔이나 후회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노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10).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죄의 결과를 후회하지만 죄로부터 떠나 죄에서 돌이키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죄로 인하여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 그 안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죄 안에서 살아 간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후회감을 느끼고 자신의 상태에 혼란을 느낄 때 제단에서 울부짖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 근심의 한 예이며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경건한 슬픔에서 나오는데, 경건한 슬픔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후회하도록 만들며, 그의 최악된 생활 형태를 바꾸기로 작정하게 한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 죄를 버리기로 결정함

잠언 28:13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원한다면 죄를 자복(自服)하고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 회개는 죄에 대해 슬픔을 갖는 것 이상의 일이다. 그것은 또한 죄에 대하여 무엇인가 하겠다는 결단을 내포하고 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를 버린다는 뜻이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이러한 특징을 강조했다. 군중들이 침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아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눅 3:7-8)고 말했다. 침례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회개의 증거를 보여 주기 전에는 침례 주기를 거절했다. 그에게 있어서 회개는 정신적인 결단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결단이었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행 26:20)고 전파하였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의 행동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은 회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를 버리고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依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신다. 그래서 회개와 성령을 받는 것은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이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이같이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성령을 받던 그 순간에는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자 결단했었던 것이다.

### 회개와 배상(賠償)

죄를 버리는 것의 일부(一部)로써,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저질렀던 죄로 인한 결과를 가능한 범위까지는 바로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배상(賠償)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돈을 훔쳤다면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이며(눅 19:8),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험담(險談)을 해서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해결해 주고 진상을 바로 잡고자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용서는 인간이 배상하지 않고서 이 땅에서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그가 자신이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회개와 감정

회개는 인간의 감정적인 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회개는

경건한 슬픔과 죄책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회개할 때 보통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러한 감정이 외적으로 다른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단지 감정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이 경건한 슬픔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臨在)에 반응을 하지만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만다. 하나님은 종종 회개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지만 우리는 회개를 위한 이러한 느낌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떤 이는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므로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는 결단을 하고 더이상 혼자서 죄에 직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도감(安堵感)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 기쁨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물침례를 통하여 영원히 그의 죄를 처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기쁨을 맛볼 때 그 곳에서 멈춰 버린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른 기쁨의 체험인 물침례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 회개의 예(例)

탕자(蕩子)의 비유는 회개에 있는 모든 특징들을 설명해 준다(눅 15:11-32). 그 이야기 속에서 잘못된 아들은 죄를 짓게 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그는 스스로 돌이켜'(눅 15:17) 집으로 돌아가 용서를 구할 결심을 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눅 15:18-19). 결국 그는 자신이 있던 장소를 떠나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를 자복했다(눅 15:20-21).

또 다른 비유에서는 회개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준다(눅 18:9-14).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자신의 훌륭한 행위를 자랑했다. 어떤 세리 하나도 기도하러 왔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슴을 치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통회의 마음을 나타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 한 바리새인은 비난하시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세리는 칭찬하셨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후에 했던 회개의 기도는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훌륭한 예(例)가 된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자세는 회개의 진정한 특징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솔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4, 7, 9-12).

## 회개의 근원

회개는 구원의 일부이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롬 2:4). 생명을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행 11:18; 딤후 2:25). 하나님만이 회개를 일으키는 슬픔을 주실 수 있다(고후 7:10). 누군가 회개할 때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지 회개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는 구원얻을 자격을 갖게 해 주며 회개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회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회개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회개하도록 인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성령)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 심리적인 트릭이나 속임수가 진실한 회개에 이르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회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 좋은 말로 설득하는 기술이나 두려움을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영적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나 경고하는 것은 다 적절한 때가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그 분 자신에게로 이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령이 완전히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한다(요 6:44).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심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회개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는다. 선포된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는 죄책감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행 2:37). 요나의 외침은

니느웨성의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건대,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사역자들은 죄에 대하여 설교하고 그것을 정의(定意)하여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상세하게 지적했고 침례 요한도 헤롯의 죄를 지적하였다. 요한은 세리들에게 “정한 세(稅) 외에는 능징(勒徵)치 말라”고 했고 군병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포(強暴)하지 말며 무소(誣訴)하지 말고 받는 요(料)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했다(눅 3:12-14).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버렸다. 말씀이 죄를 드러내는 곳에서는 우리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심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며(롬 10:17), 믿음은 사람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해 준다.

회개는 우리를 이끌어 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대한 반응으로써 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반응으로 온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날 때 오는 충격에 대한 반응(反應)으로써 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회개는 하나님을 믿고서 나타내는 최초의 자발적 행위이다.

## 회개의 명령

회개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 하라고 명하고 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행한 불순종의 일에 대해 질문하시고 자백을 기대하셨다(창 3:9-13). 노아 시대에 인류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8명의

목숨만을 남겨 놓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다.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 도시를 보존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성의 주민들이 요나가 전한 말씀에 응하여 회개했기 때문이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촉구하셨다.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 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겔 18:30-32).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 33:11).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동정, 회개의 필요성,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회개의 정의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침례 요한은 강력히 회개를 전파했고(마 3:1-11; 막 1:4-5; 눅 3:3-9) 예수님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고 선포하셨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5).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는 그의 제자들을 회개를 전파하라고 파송하셨으며(막 6:12)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금 그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행 눅 24:47). 베드로도 회개를 전파했고(행 2:38; 3:19)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다(행 26:20).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라고 말했다.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

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심과 자연법의 기준에 의해 그들을 심판하셨고 심지어 그 근거 위에서 그들의 죄를 찾으셨다(롬 2:12-16).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근거 위에 있다.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똑같은 부르심을 듣는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벧후 3:9).

###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의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기 시작한다. 인간은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도록 허락한다. 인간이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된 습관과 욕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실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신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때부터 시작하여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는데, 이는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기 시작한다. 회개는 죄가 만든 담을 헐어 버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도록 허락한다. 그리하여 회개는 물침례를 받고 성령의 내적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 준다.

### 물과 성령의 침례와 회개와의 관계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로서 적극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제한되고 일시적으로 죄를 끊는 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회개 자체만으로 구원의 완전한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물침례와 성령침례 두 가지가 회개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다.

회개와 물침례는 함께 죄를 용서하는 작업을 완전하게 마치도록 한다.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록된 죄와 그 형벌을 제거하심으로써 죄를 씻어 주신다. (6장을 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물침례를 받을 때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한다. 이 말은 흠정역 성경(KJV)에 있는 영어식 표현에 근거한 아주 훌륭한 설명이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서는 분명한 구분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용서(forgive)와 죄사함(remit)이란 두 단어가 하나의 헬라어 아페시스(aphesis)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6장을 보라)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용서와 죄사함은 같은 용어이며 용서(또는 죄사함)는 회개와 물침례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경험을 분리해서는 안된다.

단지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회개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 속에 현재 역사하는 죄의 통치를 파괴하시며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신다. 물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적법한 기록을 제거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 즉 사망을 없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현재의 죄의 결과를 처리하시고 물침례를 받을 때 미래의 죄의 결과를 처리하신다. 둘 다 용서함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행 2:38)고 했다.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신국제역)에서는 더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다: "여러분 각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회개는 또한 성령침례 없이는 불충분하다. 회개에는 죄를 이기는 일시적이고 제한된 능력만이 나타난다. 영구적이고 제한없는 능력은 오직 성령침례를 받은 후에 오게 된다(행 1:8). 구약의 성도들은 회개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히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거듭난 성품은 주지 못했다.(8장을 보라) 모세의 율법도 인간의 정신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줄 수는 없다(롬 7:15-25). 오직 성령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부여해 주며 율법이 가르치긴 했으나 줄 수는 없었던 의(義)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부여해 준다(롬 8:2-4). 회개시 하나님은 죄의 지배를 떨쳐 버릴 수 있는 초기적인 능력을 주시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매일 삶의 실체로 만들어 주신다(롬 8:10, 13).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떠났을 때 설만한 곳을 찾아간다고 가르쳐 주셨다(눅 11:24-26). 그가 갈만한 다른 곳을 찾지 못했을 때 그는 전에 살던 집(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는 집이 비어 있고 소제되고 수리되어(정돈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다른 일곱 귀신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토론과 연관된 원리를 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단지 죄악을 쫓아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악 대신 선한 것으로 대치해야 한다. 단지 어느 한 시점에서 자신의 생활을 깨끗케 하고 정돈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회개는 했지만 더이상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끝없는 회개와 실패와 좌절의 순환에 희생자로 전락한다. 그리고 결국 그의 상황은 이전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커다란 문제점이다. 많은 종교 단체는 회개와 도덕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성령침례는 전하지 않는다. 성령침례가 기독교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한다. 성령은 공허한 삶을 채워 주고 깨끗하게 유지시키며, 돌아오는 마귀를 물리친다.

## 제단 사역을 위한 지침

제단에서 간구(懇求)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들은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는 우리의 토론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침이 열거되어 있다.

(1)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강조해야지, 교묘한 방법이나 기술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특이한 말투나 몸짓으로는 회개를 대신할 수 없다.

(2)우리는 간구하는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너무 서둘러 그로 하여금 회개는 충분하다고 하고서 성령 받을 것을 기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일단 그가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격려할 수 있다.

(3)우리는 우리 자신을 간구하는 사람의 위치에 놓고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세는 그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보여줄 것이며 우리도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만들 것이다.

(4)간구하는 사람이 더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같이 보이면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마다 다른 접근 방법을 요한다. 그들의 문제점은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기를 거부한다거나, 열망하는 마음이 결여되었거나(영적인 굶주림, 갈망함, 자신의 영적 위급함을 느낌), 경건한 슬픔이 부족하거나, 믿음의 부족 등일 수 있다.

(5)우리는 어떻게 방언을 말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 표적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게 된다. 단지가 그의 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모든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간

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그분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믿음을 가질 때 그는 그의 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6)간구하는 사람을 마구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때린다든지,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모순된 충고를 하거나, 또는 그를 화나게 하는 등, 정신을 혼란케 하는 행동은 피하자. 제단에서 도와 주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못했을지라도 사람들은 때때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이 제단 사역자들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가 회개나 혹은 그의 믿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제단 사역자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관련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간구하는 사람이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 회개와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요일 1:9; 2:1). 침례는 오직 하나밖에 없으며 침례 받기 전에 지은 죄이든 받은 후에 지은 죄이든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하여 죄사함은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회심자를 용서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그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용서를 베푸실 것이다(마 18:21-22; 눅 17:3-4).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자 결단하는 것이다.

물론 중생한 신자의 첫번째 원칙은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다(요 일 2:1).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얻고, 그러므로 정죄(定罪)함이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롬 8:1). 그러나 성령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해서 회개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회개는 기초가 되는 교리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 기초적인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행실에서 돌이켜 회개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그리스도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떠나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히 6:1-2, NIV). 회개는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더이상 죄를 짓지 않음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

## 회개를 강조해야 할 필요성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회개의 교리와 그 실천을 소홀히 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대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개를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전도자들은 죄를 말하고 회개를 설명하는데 분명해야 한다. 교역자들은 실제로 회개하였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다면 침례는 헛된 상징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강단 사역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결단코 성령침례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성경적인 방법으로는 성령침례를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회개하는 것이 케케묵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 속히 성령을 받고 싶겠지만 분명히 먼저 회개해야 한다. 성령은 영적으로 부정함 성전에는 들어가지거나 거하시지 않을 것이다(고후 6:17-7:1). 먼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

기독교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공공연히 믿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

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축복과 기적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체험을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널리 알려진 많은 사람들과 명사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자신들은 계속해서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과 고백은 헛된 것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회개와 성결(聖潔)이 없는 모든 영적 체험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마치 가인이 피의 희생 제사를 무시하고 곡식을 드린 것과 같이 회개를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의 계획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일시적인 축복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이 왕이 오실 때 밖으로 내어 쫓김을 받을 것이다(마 22:11-14).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불경건하고 성별되지 못하며 세속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신속히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모면했다고 생각하여(전 8:11) 하나님께서 인자를 배부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롬 2:4; 벰후 3:9). 회개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 결 론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믿음의 첫번째 반응이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통회(痛悔)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결심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회개만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작업이 되지 못한다. 물침례는 옛 사람을 장사함으로써 영구히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성령

침례는 매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여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든다. 회개 없이는 물침례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침례를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

## 각 주

<sup>1</sup> Webster's, p. 1924.

<sup>2</sup> Vine, pp. 961-62.

<sup>3</sup> Henry Thiessen,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9), p. 265.

## 제 6 장

# 물 침 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 물침례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물침례는 죄를 회개한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 한 의식(儀式)이다. 이번 장(章)에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침례들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위에 주어진 정의를 상세히 분석 연구할 것이다.

### 요한의 침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전파하고 베풀었다(막 1:2-4; 눅 3:3-4). 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침례를 베풀었다(요 1:31). 그가 베푼 침례는 그리스도의 전하실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받을 침례에 관해 유대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마련된 일시적인 것이었다. 요한은 유대인의 율법을 폐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보충해 주었다. 그리고 그를 칭송한 회심자들이 율법에서 이르는 바와 같이 도덕적으로 바른 회개의 생활을 하며 성령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실 분을 기다리기를 바랐다. 요한의 침례는 기독교 이전의 것인데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본서 8장을 보라) 사실 요한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이후 예수의 이름으로 재침례(再浸禮)를 받았다(행 19:1-5).

요한의 침례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침례였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침례의 식문(式文)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라고 말했다(마 3:11). 그의 침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회개했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회심자들은 침례를 받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다(마 3:6; 막 1:5).

요한의 침례가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기에 과연 죄사함을 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절대적인 죄사함도 줄 수 없었고 미래의 죄도 처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죄사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죽음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의 침례가 조건적인 죄사함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조건적인 죄사함은 희생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이미 사용되었으며 요한은 침례로 이 제사 제도를 대치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의 침례는 단순히 그리스도와 기독교적 침례를 통하여 언젠가 될 장래의 죄사함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것은 ‘회개케 하기 위한(unto)’ 것이었는데 unto는 헬라어 eis(에이스)를 적절하게 번역한 표현으로 eis는 보통 ‘위하여(for)’를 나타

낸다. 해스팅스 성경 사전(Hastings' Dictionary of Bible)도 같은 견해를 보여 준다.<sup>1</sup>

## 그리스도의 침례

예수님 자신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히 4:15), 우리는 그가 회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든가 죄사함 받기를 기대하고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님을 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요 1:31-34). 그리고 그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순순히 침례를 받으셨다(마 3:15). 우리는 이러한 목적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1)그리스도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그의 공생애(公生涯)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다. 의미심장하게도 물(침례)과 성령(비둘기 형상의) 두 가지가 이 사건에 등장하면서 그가 요한 복음 3:5절에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메시지를 미리 보여 주셨다.

(2)이러한 활동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요한의 침례와 회개, 물침례, 성령침례의 메시지를 재가(裁可)하셨다.

(3)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를 본을 제시해 주셨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침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면(롬 8:29) 침례 가운데 남기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4)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침례를 단순한 의식이나 종교 의식으로만 여기시지 않았다. 그의 전 공생애를 통하여 그는 종교 의식의 순수성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순수성을 강조하셨으며, 바리새인들의 많은 정결 의식을 불필

요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마 15:1-20; 막 7:1-23). 반면에 그는 침례가 도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셨다.

### 제자들이 행한 초기의 침례

그리스도의 초기 공생애 동안에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하에서 많은 회심자들에게 침례를 주었다(요 3:22; 4:1-3). 성경은 이에 관하여 거의 말하고 있지 않으며 침례를 베푸는 목적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어떤 저자들은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였다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요한의 침례의 연속이었다고 믿는다.<sup>2</sup> 첫번째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에 죄를 사하는 효력을 갖게 된 기독교 침례의 잠재적인 형태였다고 종종 말한다. 그러나 해스팅스 성경 사전(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에 언급된 것과 같이 후자의 견해가 맞는 것 같다.<sup>3</sup>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근거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1) 이 침례는 요한의 침례와 함께 언급되어진다.

(2) 제자들은 아직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3)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와 장차 도래할 천국 및 앞으로 주어질 성령침례를 전파하셨다.

(4) 기독교의 침례는 예수님의 장사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기독교 전(前)의 침례라고 해석하며 요한의 침례나 제자들의 침례 둘 다 기독교의 침례를 예비한 것이었으며 절대적인 죄사함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마 28:19). 그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침례 받기를 원하셨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막 16:16).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 (눅 7:30) 우리가 주님의 침례를 거절하면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 초기 기독교의 침례

사도행전의 교회는 침례에 관하여 주님의 기대와 명령을 잘 이행하였다. 교회의 첫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였다(행 2:38).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행 2:41).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한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도 역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행 8:12, 16). 에디오피아 내시, 다소의 사울, 고넬료, 두아디라의 루디아, 빌립보의 간수, 고린도 사람들, 에베소에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 이들 모두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침례를 받았다(행 8:35-38; 9:18; 10:47-48; 16:15; 16:33; 18:8; 19:5). 심지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였다(행 10:47-48).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명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였다(행 22:16).

## 침례 방식: 침수세례

침례는 문자적인 의미대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다(요 3:23; 행

8:36; 10:47-48). baptism(침례)이란 말은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bapto*(밥토)라는 헬라어에서 온 말이다.<sup>4</sup> 바인(W. E. Vine)은 침례를 ‘물에 잠기었다가 나오는 과정’으로 정의한다.<sup>5</sup> 물을 뿌린다는 뜻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수세례(浸水洗禮)를 가리키는 단어를 선택하셨다.

침수세례(immersion)는 성경이 기록하는 유일한 침례 방식이다. 요한이 요단강과(막 1:5, 9)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준 이유는 거기 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요 3:23). 그는 침수세례를 주기에 충분히 큰 샘이나 강이 필요했지 단지 몇 방울 뿌릴 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수세례를 주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마 3:16).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막 1:10).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수세례를 베풀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행 8:38-39).

바울은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롬 6:4; 골 2:12). 이 구절들은 침례가 침수세례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읽는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도록 해 주고 있다. 어느 누구도 몸 위에 흙을 조금 뿌리거나 부어서는 매장되지 않고 완전히 땅 속에 묻혀야 장사 되는 것이다. 롬 6:4과 관련하여, 풀뿔 주석에서는 “그 구절을 언급한 것은 침례의 형식, 즉 침수세례에 관해서인데, 그것은 장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러므로 바로 죽음을 뜻했다.”고 설명한다.<sup>6</sup>

성경이 쓰여진 시대 이후 물침례의 다른 방식이 생겨났는데 바로 물을 뿌리는 것(살수, 撒水)과 붓는 것(관수, 灌水)이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이 결코 나타나 있지 않다. 몇몇 구약의 정결 의식에는 물을 뿌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침례를 예시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침례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다고

는 기대할 수 없다. 여러 성경 구절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언급하지만 이러한 구절들은 단순히 구약의 피의 희생 제사와 연결하는 은유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히 9:13; 10:22; 11:28; 12:24). 이러한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침례 방식을 언급하지 않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잠긴다’가 아닌 ‘뿌린다’라고 의미하는, 침례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역사적으로 뿌리는 것과 붓는 것은 편리함을 위해 생겨났는데 (1) 유아세례, (2)몇몇 삼위일체론자들에 의해 행해진 삼위일체 세례, (3)(자신의 인생을 온통 죄를 짓고 살다가 그래도 구원만은 받으려는 계산으로)임종(臨終)때까지 세례를 연기하는 행위 등 3가지의 비성경적 세례 의식들이 출현한 이후 침수세례는 유달리 불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침례 방식이 중요한가?

누구든지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들에 근거하여 성경적 방식을 따라야 한다.

(1)침례는 성경적인 명령이며 우리는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야 한다. 성경이 몰침례에 둔 그 중요성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확히 행해야 한다.

(2)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써 침례를 받으셔서 침수세례를 따르셨는데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침례가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 방법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3)어떤 다른 세례 방식도 비성경적 전통(傳統)에서 유래된 것이며 전통은 성경적 가르침을 대신한 빈약한 대용품이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전통을 비판하셨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막 7:8),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 15:6)고 하셨다.

(4) 물을 뿌리는 약식세례가 가지는 잇점은 단지 편리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성경을 따르지 않는데 대한 어리숙한 변명에 불과하다. 예수님과 초대 교회가 사용했던 올바른 방법보다 편리하다는 이 유만으로 그러한 방법을 주장해야 하는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는 군중들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오순절날 3000명에게, 빌립에게는 광야에서 내시에게, 바울에게는 한 밤중에 간수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더 편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침수세례 주는 것을 택했다. 왜 우리는 편리를 위해 만든 이러한 방식을 벗어나야 하는가? 그것은 특히 물 뿌리는 것을 비롯한 몇몇 보편적인 세례의 식물 자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5) 침수세례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경외(敬畏)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 왜 근거없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어 정당화하려고 하는가? 왜 인간이 만든 서로 다른 선택 방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지를 토의하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진실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 방식에 만족해 할 것이며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여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오직 침수세례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침례의 의미를 지킬 수 있다.

###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얻는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며(막 1:4; 눅 3:3) 하나님께서 기독교적인 물침례로써 죄를 사하시는 때를 증거하였다. 최초의 기독교적 침례를 베푸는 사역이 있기에 바로 앞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다(행 2:38). 사(赦)함은 해방, 씻음, 취소 혹은

말소의 뜻을 나타낸다.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시며, 우리 죄를 씻으시고, 지우셔서 말소시키신다.

어떤 이들은 이같이 이해하지 않고 침례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2:38의 '위하여(FOR)' 라는 말이 '때문에(BECAUSE OF)' 혹은 '...을 생각하여(WITH A VIEW TOWARDS)' 라는 의미를 갖겠지만, 실제로 FOR는 '받기 위하여' 또는 '얻기 위하여' 라는 뜻을 갖는다 (KJV: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

(1) 이것은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읽을 때 알 수 있는 문학적 의미이다. NIV 성경은 사도행전 2:38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2)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해석에 이르게 된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행 2:37)라고 질문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했을 때, 그들에게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한 것이었다. 그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는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

(3)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6:28은 헬라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던 것이지,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듯이) 미래에 있을 죄사함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이미 얻은 죄사함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4)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은 죄를 사하는데 있어서 침례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준다.



## 침례를 반복해서 줄 수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이 '침례의 반복'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물과 그 의식(儀式)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침례는 어떤 미술적인 행동이 아니다. 자각하는 믿음과 회개가 따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전혀 무가치하다. 침례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침례없이 죄를 사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은 침례의 순간에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침례를 받을 때의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거나 주지 못한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근거하여 죄를 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물침례를 받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 침례-거듭남의 일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요 3:5).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딤후 3:5). (본서 4장에서는 두 구절이 침례를 언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구절들은 물침례를 중생의 과정 속에 놓고 있지만 침례의 반복을 가르치지 않는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포함하는 중생을 말씀하셨다.

##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막 16:16). 예수님은 구

원의 약속 가운데 믿음과 침례를 함께 연결하면서 둘 다 필수적임을 보여 주셨다. 우리가 침례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한다면 “믿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말하여 주님의 말씀을 변개(變改)시키게 된다.

예수님은 ‘믿지만’ 침례는 거부하는 사람의 상황을 논하시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자체가 말에 있어서 모순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침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침례를 받아도 믿음없이 받는 침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다. 그는 진정한 신자는 침례를 받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침례를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도 암시적으로 언급하셨다.

## 죄 씻음

사도행전 22:16에서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을 때 죄를 씻어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11).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죄 씻음을 언급한 또 다른 말씀이라고 본다.

## 구원의 일부

베드로는 노아의 날에 ‘여덟 명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상기했다(벧전 3:20). 그는 계속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벧전 3:21). 또 하나의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두 여덟 명이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 물은 이제 또한 너희를 구원하는 침례를 상징한다. 몸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선한 양심의 표시(보증)인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너희를 구원한다”(NIV).

여기서 대답(KJV), 또는 표시(보증, NIV)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의’(스트롱 성서 용어 사전) 또는 ‘간청’(W. E. Vine「바인」, 성경 해설 사전)의 의미를 갖는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RSV),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위해 드리는 기도’(Moffat), 그리고 ‘선한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Rotherham) 등 대답의 다양한 의미들을 보여준다.

실제로 홍수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킨 그 물이 반대로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의 도구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물은 오늘날 침례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다. 침례는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육체에서 더러운 것을 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통해 죄책감 없는 양심을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의 물 그 자체가 구원하는 효능을 지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홍수의 물만으로 8명의 노아 가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물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방주 안에서 찾을 수 있었고 오직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물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신을 안전한 장소에 있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침례는 홍수 때의 물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나 예수님 자신은 구원의 방주인 것이다.

폴뎃 주석은 베드로전서 3:21에 다음과 같은 해설로 뒷받침해 준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할 때, ‘물에 상응하는 실체가 당신들도 역시 구원하는데 그것은 곧 침례이다’가 될 것이다. 즉 당신들을 구원하는 물(침례)은 홍수의 물이 상징하는 실체다.”<sup>7</sup> 폴뎃 주석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분명 침례를 받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단순히 외적 의식(儀式)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외적이며 가시적 의식은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와 구별하여서는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 전자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외적 표식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후자가 결여되어서는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sup>8</sup>

###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

바울은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롬 6:3-4; 골 2:12). 옛 사람은 침례시에 장사된다. 옛 사람은 고쳐질 수 없는 생활방식이며, 과거 죄의 기록부이며, 죄의 주관자이다. 침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과거 죄의 기록을 대하지 않아도 된다. 로마서 6:3에 관하여 부르스(F. F. Bruce)는 틴데일 신약 주석(Th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에서 “바울 서신들에 기록된 침례에 관한 이 구절과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가 침례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부수물로 여기지 않았으며 ‘침례 받지 않은 신자’의 경우란 고려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sup>9</sup> 라고 진술하고 있다.

###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

바울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고 가르쳤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하는 하나의 물과 성령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물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 필수적이다.

### 영적 할례(割禮)

바울은 침례를 구약의 할례에 비유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골 2:11-13).

이 구절은 물과 성령의 침례를 언급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장사되고 새 사람이 부활하는 것,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물침례는 죄로부터 구별되며 죄성(罪性)의 지배를 제거하고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영적 할례이다. 성령침례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여 할례의 과정을 완성한다.

구약의 할례는 유대인의 남성들이 유대 교의 일원이 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창 17:10, 14)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응하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할례만으로는 아무

런 가치가 없었다(롬 2:25; 4:12).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문자 그대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출 4:24-26; 수 5:2-9).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었다(출 12:43-44). 이와 같이 기독교적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옛 죄를 없이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에 연합시키신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남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지 못했으며 죽음의 형벌에 처해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참여할 수 없었다.

### 모형론 안에서의 침례

3장과 본 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침례를 언급한 모형론적 내용들을 논의해 왔다. (1)홍해가 갈라짐. (2)율법 수여시 이스라엘 백성의 물로 씻음과 뿌림. (3)회막 뜰에 있는 물두멍. (4)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을 물로 씻김. (5)짐승의 희생제물을 물로 씻음. (6)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를 물로 씻기고 물을 뿌림. (7)부정한 자의 씻는 의식. (8)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과 병사의 옷을 물로 씻음. (9)노아의 홍수. (10)할례.

이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여 예를 들면, (11)여호와 앞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으로 봉헌되었다(민 8:7). (12)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두 차례 물로 씻어야 했다(레 16:4; 24). (13)문둥병자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담근 후에 고침을 받았다(왕하 5:10-14). 나아만은 흙탕물인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은 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나서야 고침을 받았다. 그의 종은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라고 했다.

이 원칙은 침례를 포함한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적용된다. 우

리는 그분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떨시해서는 안되며 순종하여 물침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여하시는 영적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이들 몇 가지 유형들을 면밀히 살펴 보면 그것들은 죄를 깨끗케 하는 침례의 역할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신다. 하나님은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라고 명하셨다(출 30:20). 의식(儀式)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물로 씻어야 깨끗하게 될 수 있었다(레 15; 17:15-16; 민 19; 겔 36:25과 비교하라). 이것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 속죄제’였으며(민 19:9), 또는 ‘죄에서 정결케 되기 위한… 깨끗케 하는 물’(NIV)이었다. 만일 부정한 사람이 이러한 규례대로 씻기를 거부하면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레 17:16).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케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제 있음이니라”(민 19:13).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민 19:20).

몇 가지 유형을 가까이서 보면 피가 물이라는 도구에 의해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물침례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에 적용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된 후 모세는 피와 물을 섞어 백성들에게 뿌렸다(히 9:19). 전에 문둥병자였던 사람을 정결케 할 때 제사장은 새의 피를 물과 섞어 그 사람에게 뿌렸다(레 14:1-7). 부정한 사람을 위한 정결케 하는 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 피가 든 채로 희생물을 불살랐다(민 19:1-5). 재는 부정을 정결케 하는 매개물로써 피에 상당하였으며(히 9:13)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 물과 섞었다(민 19:9).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물은 대속의 피를 적용하는 도구였다.

## 몰침례는 공중 앞에서의 시인(是認)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침례를 받을 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침례는 단지 공중 앞에서 믿음을 시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가시적인 교회에 입교함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공식적 시인이나 이미 얻은 죄사함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무도 그의 침례 받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없이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행 8:26-39). 빌립보 간수는 방금 심하게 때를 맞았던 바울과 실라에 의해 한 밤중에 침례를 받았다(행 16:25-33). 침례가 단지 즉각적으로 필요치 않은 공식적인 의식에 불과했다면 분명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날이 밝을 때까지는 기다렸을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한 때 이미 침례를 받았었고 공중 앞에서 시인을 했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침례는 너무나 중한 것이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베풀었다(행 19:1-5).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성령을 받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공연한 증거로써 방언을 말하였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몰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였다(행 10:47-48).

###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어떤 이들은 침례의 중요성을 격감시키고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고전 1:17)라고 말한 바울의 진술을 인용한다. 바로 이 구절에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당을 지어 어떤 이들은 바울을 따르라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아블로를, 어떤 이들은 게바를,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고전 1:11-13). 바울은 그들 중 몇 명에게만 개인적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아무도 그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하려고 했는지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려 했는지 하는 구실로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바울에 관한 다른 이들은 침례를 베푸는 영예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다. 침례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중요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지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인물들을 바라보는 것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브루스(Bruce)는 틴데일 신약 주석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4-17절 가운데 침례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그가 의식 자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고 침례를 베푸는 사람의 신분이 중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라고 했다.<sup>10</sup>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한 노력은 복음의 일부인 침례의 중요성을 결코 격감하지 않았으며 바울은 다른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침례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 침례 안에 있는 인간의 요소

어떤 사람들은 침례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얻는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가 믿음의 행위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신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다. 마르틴 루터와 같이 우리는 믿음에 의한 칭의(稱義)와 물침례의 필요성, 두 가지를 확인하는 바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역사를 수행하시기 전에 사람 편에서 가시적인 믿음의 반응을 자주 요구하신다. 구약의 할례의 요구, 피의 희생 제사, 정결 의식 등은 믿음에 의한 칭의와 모순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기 전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를 요구하셨다(요 2:7).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전에 구경하는 자들로 하여금 돌을 굴러 놓으라고 요구하셨다(요 11:39). 그는 그러한 도움 없이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믿음과 순종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셨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침례를 베푼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음을 전할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사람의 복음 전파를 사용하시는데(고전 1:18; 21) 전하는 자가 없다면 아무도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롬 10:13-17).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붙잡으셨을 때 그는 바울에게 구원의 계획을 밝히시지 않으셨으나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전도자에게 그를 인도하셨다(행 9장).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 베드로에게로 그를 인도했다(행 10장).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인간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물침례는 단순히 이러한 사실의 다른 한 예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것은 '행위' 이니까 침례 받으라는 명령을 무시할 수 있다면 회개하라는 명령 또한 무시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견해를 낳게 한다.

## 용서(Forgiveness)와 사함(Remission)

어떤 사람들은 용서와 죄사함이 명확히 구별되는 두 가지 사건으로써 전자는 회개시에 이루어지며 후자는 침례시에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죄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침례시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지은 죄의 기록과 형벌을 제거하신다고 한다. 이러한 구별은 다소 영어를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KJV)의 용례나 그 단어의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웹스터 사전은 용서를 ‘범죄자’에 대한 분노를 멈추다, 용납(pardon)’으로, 사하다는 ‘유죄를 취소하고 형벌을 면제하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그만두다... 형벌 가하기를 취소하거나 자제하다’로 정의한다.<sup>11</sup> 용서는 개인적인 화해의 생각이 들어 있고 반면에 사함은 법적 청산을 나타낸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도 용서하다와 사하다가 자주 서로 바뀌어 사용된다. 웹스터 사전은 용납(pardon)을 ‘형벌에서 자유케 하다... 형벌을 면하거나 용서하다’<sup>12</sup>로 정의한다. 더우기 중요한 것은 헬라어에서는 용서와 사함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점이다. *aphesis*(아페시스)라는 하나의 헬라어가 흠정역 성경(KJV)에서 때로는 ‘용서’(행 5:31)로, 때로는 ‘사함’(행 2:38)으로 번역되고 있다. 표준 새번역 성경(RSV)이나 새번역 세계 성경(NIV) 등과 같이 대부분 후대의 번역 성경들은 사함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용서만을 사용한다. 스트롱 성서 용어 사전에서는 *aphesis*를 ‘면제, 용납(비유적)’으로 정의한다. 바인(Vine)의 성경 해설 사전에서는 ‘해제, 방면을 나타낸다’고 말하면서 동사형 *aphiemi*(아피에미)를 ‘주로 발산하다, 파견하다, 이며... 그 외에도 사하다, 혹은 용서하다, 와 같은 다른 의미도 나타낸다’고 정의한다.<sup>13</sup>

구약은 용서를 대속적인 희생으로 생각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을 뿐 아니라 용서를 얻기 위

하여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도 드려야 했었다. 다음의 말씀들은 용서함이 피의 희생제물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레 4:13-35 5:7-18; 6:1-7; 19:22, 민 15:22-28, 신 21:1-8.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다.(왕상 8:30-50; 대하 6:21-39). 그가 뜻한 바는 희생 제사 대신으로의 기도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성소의 제물과 연합된기도를 의미했다.

다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대하 7:14; 렘 36:3) 그의 백성은 여러번 용서를 구했다(시 25:18; 단 9:19; 암 7:2). 그러나 어디에도 위선됨이 없이 진실하게 드려지는 피의 희생 제사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구절은 없다. 우리는 회개한 자의 부르짖음은 언제든지 성전의 희생제물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히브리서 9:22은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진술한다. 비록 짐승의 희생제물 그 자체가 용서를 주지 못했지만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생 제사의 계획에 순종하므로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하였다.

신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마 12:31-32; 막 4:12; 눅 23:34; 롬 4:7) 한편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용서에 대해 말하기도 한다(마 18:21; 고후 2:10; 12:13). 많은 성경 구절이 신자가 회심 후에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마 6:12-15; 행 8:22; 약 5:15; 요일 1:9; 2:1) 그 경우에 물침례가 선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신약에서는 두 사람이 분명히 물침례를 받지 않고서도 용서를 받았다 -중풍 병자와 그리스도의 발을 씻었던 여인(마 9:2-6; 눅 7:47-49)- 두 경우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에 발생했었는데 그 때는 아직 신약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고 기독교적인 침례가 있기 전이었다. 예수님은 그가 용서해 줬던 사람들이 율법

을 준수하고 좀 더 온전한 계시가 오기까지 기다리기를 기대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당시를 위한 그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 죄사함을 인정하지는 않으셨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도 그의 대제사장이시며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옛 언약 아래서 구원을 받았다.

다음 표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aphesis*가 포함되어 있는 구절들을 요약한 것이다:

### 신약 성경에 있는 *aphesis* [용서(forgiveness)/사함(remission)]

성경	KJV	NIV	내용
마 26:28	사함	용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막 1:4	사함	용서	<i>aphesis</i> 를 위한 회개의 침례
막 3:29	용서	용서	성령 훼방에 대하여
눅 1:77	사함	용서	예수님을 통하여
눅 3:3	사함	용서	<i>aphesis</i> 를 위한 회개의 침례
눅 4:18a	*자유 (deliverance)	자유 (freedom)	예수님을 통하여
눅 4:18b	자유케 함 (liberty)	석방 (release)	예수님을 통하여
눅 24:47	사함	용서	회개와 <i>aphesis</i> 를 전파한 제자들
행 2:38	사함	용서	<i>aphesis</i> 를 위한 회개와 침례
행 5:31	용서	용서	예수님은 회개케 함과 <i>aphesis</i> 를 주신다
행 10:43	사함	용서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i>aphesis</i> 를 받는다
행 13:38	용서	용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 26:18	용서	용서	하나님께서 돌아선 이후

엡 1:7	용서	용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골 1:14	용서	용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히 9:22	사함	용서	피가 필요함
히 10:18	사함	용서	다른 희생이 필요 없음

\*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자유' 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KJV)에서는 '해방 (deliverance)' 으로 표현하고 있다. -역자 주-

이 도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신약의 용서를 이루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예수님의 보혈, 회개, 예수의 이름, 물침례.

신약의 교회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를 온전히 용서 받는데, 용서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가능해지며 그 효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성경의 매우 난해한 구절을 설명해 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요 20:23). 단지 자백함으로만 용서받는다면 어떻게 사도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용서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으며 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대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사도들은 믿는 자에게 침례 베푸는 것을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었다(행 10:47). 사도들의 침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믿음은 침례시 필수적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실로 믿게 될 때에 침례를 받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침례도 예외는 아니다(히 11:6). 예

수 이름으로 행하는 침례는 그것을 받을 자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이름에 의해 나타나는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행 10:43).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예수를 믿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행 8:37). 하나님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오직 그를 보아야지, 의식이나 물이나 침례 받을 자의 행위나, 침례를 베푸는 사람의 선행 등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 회개와 침례는 모두 필수적이다

사도행전 2:38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따르면 용서 내지 죄사함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경은 회개와 물침례 두 가지를 취하고 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행 2:38).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시에 현재의 죄의 결과를 처리하시고 침례시 영원한 결과를 처리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5장을 보라) 회개는 용서함을 받는데 지극히 중대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회개만으로 온전한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물침례를 함께 받은 후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회개는 침례에 앞서 일어나야 한다. 요한은 먼저 회개를 전파했고 그의 회심자들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다(마 3:6; 막 1:5).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은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요구했다(마 3:8; 눅 3:8). 침례는 과거의 죄를 장사지내는 것이지만 이 장사가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 먼저 회개하지 않고 받은 침례

성경은 회개가 침례에 선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역자는 침례를 받으려는 후보자에게 신중하게 회개를 설명해 줘야 한다. 사역자는 만일 침례 받을 자가 회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침례 주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사역자는 그에게 높은 영적 성숙의 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발전을 위한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각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답해야 하며 그래서 사역자는 일반적으로 회개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하는 진실한 고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역자가 침례 받을 자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 줄 것을 동의하기에 앞서 그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 냈다(행 8:37). 그래서 사역자는 침례 행위에 앞서 그러한 고백을 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그때까지도 아직 어떤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자백할 경우에 성경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한 가지 선택은 그에게 다시 침례를 베푸는 것이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으며, 또는 그러한 이유로 재침례(再浸禮)를 받았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침례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원래 베풀었던 침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동기가 되어 행해졌다면 재침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회개의 척도를 나타낸다. 침례의 합법성은 믿음에 달려 있으며 믿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모두 다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입장을 증명할 만한 몇 가지 예들이 있다.



(1) 유아는 믿음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유아세례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유아는 나이를 먹고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고 회개를 했다고 증명한 후에 재침례를 받아야 한다.

(2) 성인이 영적인 이유보다도 사회적인 이유로 침례를 받는다면 그는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한 후에 재침례를 받아야 한다.

(3) 한 성인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고서 침례를 받았는데 후에 자신의 죄악된 생활 양식을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굳이 재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후에 그는 이러한 죄들을 충분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의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비록 그의 침례가 그 당시에는 회개치 아니한 죄들을 사하지는 못했더라도 후에 그가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4)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죄의 생활로 돌아갔다가 후일 그 죄의 삶에서 돌이킬 때 다시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가 받았던 침례가 그가 회개했을 때, 계속해서 지은 죄들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면 단 한번의 침례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침례 전이든지 후든지) 어떠한 죄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침례의 적법성은 수침자(受浸者)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침례를 베푸는 사람의 믿음이나 도덕성에 달려 있지 않고, 오히려 침례 받는 자의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 믿음에 달려 있다.

## 유아세(침)례

이번 논의에서 제안하는 것은 유아세(침)례는 불분명한 것이며 유아는 의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후에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침)례가 유효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믿음을 준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믿음의 원천이신 반면에 인간은 그 믿음을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응답이다. 성경은 오직 믿는 자(막 16:16; 행 8:37)와 회개한 자만(눅 3:8; 행 2:38)을 위하여 침례를 가르치고 있다. 유아는 믿거나 회개할 수 없으며 성경은 유아세(침)례의 어떠한 사례도 기록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세(침)례를 위한 증거로써 가족의 개종을 지적한다. 그들이 예로 드는 것은 루디아의 가족과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는 점이다(행 16:15; 31-33). 그러나 고넬료의 가족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으나(행 10:24; 44-46; 11:14-17) 유아들은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가족'은 문자적으로 가족을 포함하지만 아무도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성경은 간수의 모든 권속이 믿었으며 그리스보의 온 집이 믿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행 16:34; 18:8) 당시의 어떤 유아도 의식적인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다. 우리는 가족의 침례가 오직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기에 충분히 나이를 먹은 사람들 - 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유아도 구약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근거에서 유아세(침)례를 가르친다. 그러나 침례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이며,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이다. 과거의 죄와 옛 생활 방식이 청산되는데는 의식적인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 영적 할례로써 침례를 설명하고 있는 골로새서 2:11-12의 구절은 이 영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발생한다고 가르친다. 더우기 할례는 물과 성령침례 두

가지의 모형이다. -물침례를 받고자 하는 후보자는 성령을 받을 준비도 해야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육신적으로 증거되며 또 한 세상에서 구별되는 한 민족을 다루셨다. 오늘날 하나님의 다루심은 민족적인 기초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초이다. -그의 선택된 백성은 거듭나서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란 성경적이지 못하다. 죽은 자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회개할 수도 없다. 죽은 자에게 때는 너무 늦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며 특히 죽은 자들을 위해 사람들이 벌이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은 고린도전서 15:29를 그릇되게 해석한 데서 기인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미래의 부활을 가르쳤다. 그는 논증의 일부로써 본질적인 질문을 하였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바울이 의미한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 구절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가르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특히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다른 모든 내용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구절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죽음으로써 그 결과로 개종자가 된 자들을 언급했다.

(2) 그는 침례를 묵과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믿음의 한 예로써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대리인에 의한 침례를 언급했다. 아마 어떤 고린

도인들은 부활을 부인하여 가르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모순된 행위를 지적했다.

(3) 그는 침례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죽은 자'는 헬리어로 복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으나 회개함으로 죽었던 옛 자아(自我)를 의미할 수 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장사지내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새 생명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입을 수 있다(롬 6:3-5). 이러한 뜻으로 이해한다면 침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인데, 부활은 바울이 15장 전체 속에서 확인했던 것이다.

### 침례 후에 지은 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침례 이후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요일 2:1).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요구하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하나님은 두번째 침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래 처음 우리가 받았던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지은 죄들을 자백할 때 침례 이후에 지은 죄들에 관하여도 죄사함의 효력을 갖는다.

### 하나님은 왜 침례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뜻에 대하여 반문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물침례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만드셨는지 어느 정도 그 이유들을 이해할 수 있다.

물은 죽음과 관련된다. 물은 폭풍과 홍수를 통하여 엄청난 파괴와 죽음을 일으키며 인간은 물 속에 잠기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익사하고 만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신의 세상을 죽음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하셨다.

둘째로, 물은 보편적으로 씻고 깨끗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물은 많은 이유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깨끗케 하는 물질이다. 그것은 손쉽게 더러움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것에 사용될 수 있다. 액체인 물은 사용하기가 쉬우며 응용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물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한다. 어떤 식물이나 동물, 인간도 물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식량이 없어도 몇 주간 생존할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단 몇 일밖에 살 수 없다. 물은 많은 물질들을 녹여 필요한 화학적 반응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도록 만든다. 대략 몸의 60퍼센트가 물이며 피의 80퍼센트가 물이다. 피는 몸의 구석 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해 주는데 피 안에 물이 없다면 피가 흐르지 못할 것이다. 즉 '모든 육체의 생명'이 멈출 것이다(레 17:14). 물리적 영역에서조차도 물은 몸에 생명을 주는 피를 수송하여 공급하여 준다.

이들 물에 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는 독특하게도 침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침례의 물에 잠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사람을 멸하시고, 익사시키시며, 장사지내신다. 침례를 받는 동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피를 적용하시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준비가 된 것이다.

## 물침례와 성령침례 사이의 구별

비록 물침례와 성령침례가 결합하여 하나의 침례를 형성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일로 취급했듯이 두 가지 사건을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일이 항상 일어나지는 않는다. 지식이나 믿음이나 회개가 부족할 수 있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행 8:12-17).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회개는 하였지만 아직 물로 침례를 받기 전인데 성령을 받는다. 고넬료가 좋은 예이다(행 10:44-48). 성경은 비록 거듭남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일치하지만, 물과 성령의 침례를 두 가지 별개의 사건으로 설명한다.

## 침례는 필수적인가?

침례가 필수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하나님께서는 침례가 아니라도 죄를 사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침례를 받을 때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을 선택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시는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 시대에 죄사함을 기독교의 침례와 분리하여 가르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성경은 그러한 여지도 논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인간적인 추측을 피해야 한다.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전파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의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 물침례의 중요성

물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약해 보자.

(1)하나님은 물침례시에 죄를 사하신다(행 2:38; 22:16).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는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기록은 말소되며 죄에 대한 형벌 -영원한 영적 죽음- 은 제거된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 없어진다. 하나님의 사하심은 언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에 적용된다. 죄사함은 오직 침례를 받은 자가 믿고 회개할 때에만 있으며 합법적이며 유효한 침례가 되는 것(침례의 합법성)은 침례를 받는 자 외에 다른 사람(침례를 베푸는 사람 등과 같이)의 영적인 조건에 달려 있지 않다.

(2)물침례는 중생의 일부이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신 영적인 작업을 의미한다(요 3:5; 딤후 3:5).

(3)침례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시킨다(롬 6:1-4; 골 2:12). 그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의 과거의 죄 뿐만 아니라 '옛 사람' -죄와 죄악된 생활 양식의 지배- 이 장사되는 것을 가리킨다.

(4)물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드는 물과 성령의 침례 중 일부이다(롬 6:3-4; 갈 3:27).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이며 그의 가족이 되는 과정의 일부이다.

(5)물침례는 영적 할례의 일부이다(골 2:11-13). 하나님은 영적 수술을 하셔서 죄가 있는 '옛 사람'을 잘라 내신다. 침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번 장에서는 물침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논하였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물침례를 위한 성경적인 식문(式文)과 그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할 것이다.

각 주

- <sup>1</sup> "Baptism," *A Dictionary of the Bible*[hereinafter *ADB*], James Hastings, ed.(New York: Charles Scribner's, 1898), I, 243.
- <sup>2</sup> *Ibid*, pp. 240-41.
- <sup>3</sup> *Ibid*
- <sup>4</sup> Vine, pp. 98-99.
- <sup>5</sup> *Ibid*, p. 98.
- <sup>6</sup> *The Pulpit Commentary*, XVIII(Romans), 156.
- <sup>7</sup> *Ibid*, XXII(I Peter), 137.
- <sup>8</sup> *Ibid*.
- <sup>9</sup> F. F. Bruce, *Th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VI, 136.
- <sup>10</sup> *Ibid*, n.l.
- <sup>11</sup> *Webster's*, pp. 891, 1920.
- <sup>12</sup> *Ibid*, p. 1640.
- <sup>13</sup> Vine, pp. 462-63.
- <sup>14</sup> Isaac Asimov, *The Human Body*(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63), pp. 180-81.



## 제 7 장

# 침례식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행 2:38)

기독교에서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물침례를 받을 때 예수 이름을 구두적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 성경의 기록

성경 어느 곳에서도 실제 침례를 베풀 때 어떤 다른 이름이나 다른 식문을 언급한 곳이 없지만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 5가지의 예들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 내용들은 예수 이름으로 주는 침례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내용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다.

(1) 베드로는 신약 교회에 있어서 첫 설교를 하고난 후 다른 사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도록 명했다(행 2:14; 37-38).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같은 명령

을 따라 침례를 받았다 -즉,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행 2:41).

(2)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는 말씀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행 8:12-16).

(3)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했다(행 10:48). 가장 오래된 고대의 헬라어 사본에는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후대의 번역 성경에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놓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명하였다"(NIV),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했다"(TAB).

(4)바울이 에베소에서 침례 요한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무슨 침례를 받았는지 질문했다. 바울은 그들이 단지 요한의 침례만 받은 것을 알고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주었다(행 22:16).

(5)바울 자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기 때문이다(행 22:16).

(6)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다섯 가지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한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뉘어 어떤 이는 바울에게, 또 어떤 이들은 아블로에게,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가득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전 1:13)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분쟁을 책망했다.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아니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소"이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문자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에 그

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지 바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교회는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교회는 그를 따르는데 연합해야 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바울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는 이 여섯 개의 성경 본문들을 근거로 사도적인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모든 신자들-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

침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며 그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는 것이다(롬 6:4; 골 2:12).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기에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시행된다.

## 그리스도와의 연합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연합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롬 6:3; 갈 3:27).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자신을 개인적으로 그와 연합시키며 그의 이름을 사용한다.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서 하나님 자신과 성전을 동일시하였다(왕상 8:29). 신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고전 3:26-17),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써 자신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계 3:12; 14:1; 22:4).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헬라어 *eis*(에이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더욱 뜻이 분명해지는데, KJV(킹 제임스역)은 갈라디아서 3:27에서 *eis*를 ‘안으로’라고 번역한다. 이 말은 물론 사도행전 8:16, 사도행전 19:5, 고린도전서 1:13에도 나타나 있다. 이 세 구절에서 KJV에서는 관련된 구절을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NIV(신 국제역)는 그것을 ‘그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번역함으로써 그 본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바인(W. E. Vine)은 그 구절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가 침례를 받을 때 사용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sup>1</sup>

개신교의 또 다른 저자는 “그 이름은 인격과 권위와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분의 인격과 권위와 권세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 안으로 받는 것이다.”<sup>2</sup>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의 지체, 그의 생명 안으로, 그의 나라에 있는 시민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라고 쓰고 있다.

침례는 우리를 예수와 연합(동일시)시키며, 특히 우리를 그와 연합시킨다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말하며, 그것은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게 하고, 또한 그의 지체가 되도록 만든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성(姓)을 취함

성경에서 구원을 거듭남과 양자를 삼는 것으로 표현한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새로운 가족의 합법적인 성(姓)을 따라야 한다. 새로운 성을 갖는 것은 거듭남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하기에 침례

를 받을 때 성을 따라야 한다.

구약에서 한 아이는 할례시에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얻게 된다(눅 1:57-63; 2:21). 침례는 바로 영적인 할례이다(골 2:11-12). 구약의 어떤 제사장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의 계보(系譜)를 증명하지 못했기에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에 2:61-62).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록' 될 때에 우리의 제사장직과 우리의 영적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을 얻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요 5:43; 히 1:4). 그러므로 '예수' 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름이다. 하나님의 모든 영적 가족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엡 3:14-15). 그러므로 분명 예수라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반드시 취해야 하는 이름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그의 이름을 취해야 한다.

## 그 이름으로 얻는 죄사함

침례는 죄사함을 위한 것인데(행 2:38), 예수의 이름은 죄사함과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에 관하여 이것을 선포하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그는 또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 10:43)고 전파하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행 2:21)고 했다. 아나니아는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침례를 받을 때 죄를 씻는 것과 연관지어 말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행 22:16).

##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한 개신교 저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도움과 보호를 구하는 것이었다.”<sup>4</sup> 라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할 때 ‘예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또한 그 이름 이면에 있는 권위도 나타낸다. 한 보안관이 “법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그 법의 능력 뿐만 아니라 그 권세 위에 호소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1)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8-19)라고 말씀하셨다.

(2)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앉은뱅이를 고쳐 준 것에 관하여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행 4:7)고 추궁하였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대답했다(행 4:10).

(3)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4)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행 3:6, 16).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침례를 베풀 때, 권세와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 그 이름으로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7). 침례는 말과 행동 두

가지에 의한 것이기에, 이 구절이 이에 적용된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구두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다. 이 구절은 바로 그의 대리자로서, 그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고 그를 의지하여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써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특별한 영적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모든 일을 행한다. 그리고 물침례도 예외일 수 없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표자요,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 예수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침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게 하신 가장 뛰어나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으며 가장 자기 계시적인 이름은 '예수'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 2:9-10).

침례를 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 가장 뛰어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즐거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그 이름의 지고(至高)함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 구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

한 저자는 "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신의 주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신의 왕이자 주님이신 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다.”<sup>5</sup> 라고 말한다. 예수 이름의 침례는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서 영접하는 것을 나타낸다.

베드로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시라고 설교하고서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명했다(행 2:36-38).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主)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행 2:41).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예수에 관해 전파할 때 그 메시지를 받아 들였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행 8:12, 16).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회심할 때에도 성경은 특별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룬다.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했다(행 19:4-5).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에 관한 믿음을 보여 주었고, 또한 그를 메시아요, 주시며, 구세주로 여기며 요한의 사역의 완성으로 인식하였다.

##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영접함

예수 이름의 침례는 또한 신성(神性)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믿음을 입증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골 2:9-10).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개념을 물침례와 연관지어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구절 바로 다음에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골 2:12).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벧후 1:1; 유 25).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로 인정한다(요 14:6-11). 예수 이름의 침례는 예수님의 충만한 신성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의 완전한 역할을 강조한다.

## 마술적인 식문이 아니다

예수 이름은 마술적인 식문이 아니다. 그 이름을 불러 올려 퍼진 소리가 죄를 사한다든지 혹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응답하신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낸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행 3:16; 10:43).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고 그를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행 19:14-17)

예수의 이름이 마술적인 식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 그 이름을 구두적으로 부를 필요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베드로는 앓은 병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고 말했다. 앓은병이가 걷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설명하기를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했다(행 3:16). 이 구절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불러졌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내적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다. 침례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대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예수 이름의 중요성을 좀 더 깊게 논하기 위해서는 데이비드 버나드가 쓴 하나님의 유일성에서 제3장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을 좀더 깊게 논하기 위해서는 같은 책 제4장을 보라.

### 모든 민족을 위한 유일한 침례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나왔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후손인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 그의 친구들은 모두 이방인이었는데 그들 역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고넬료는 분명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었다(행 10:28, 45:11:1-3, 18). 오순절날에 이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고(행 2:10)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의 한 사람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한 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다른 사건에 있어서 고린도인과 같은 다른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모든 계층의 신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식문(式文)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기독교의 침례는 오직 한 가지의 성경적 형식만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으로 침례를 주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침례를 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행 10:34). 신약의 교회사 속에서 한번은 이런 방식, 한번은 저런 방식으로 침례를 주는 따위의 일은 있을 수 없다. 한번 침례를 베푸는데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없다. 신약의 교회에는 오직 하나의 침례만 있을 뿐이다.

## 이름을 구두적으로 불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침례'는 단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한 의미를 가질 뿐 침례 식문의 일부로써 구두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할 의미는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 말하는 증거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실행한 식문인 것을 알 수 있다.

(1) 예수 이름의 침례는 그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지만 그의 능력과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실제로 올바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불러야 한다.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에 관해 분명히 연계 되는 논점은 이것이다. 즉, 우리가 실제로 침례를 받을 때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 이름은 '예수'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성경은 예수 이름이 침례시 구두적으로 불러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도행전 22:16에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한다. 이것이 침례시 주의 이름(예수)을 부르라는 성경적 명령이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이 단지 수침자(受浸者)가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지 집례자(執禮者)가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논리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은 구두적으로 불려졌다. 일반적으로 집례자(執禮者)가 보통 그 이름을 부르지만 수침자(受浸者)도 역시 예수 이름을 부른다. 왜냐하면 침례의 정당성은 수침자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집례자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리내어 이름을 부른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부르다(calling)’로 번역된 헬라어는 ‘큰 소리로 부르다’ 또는 ‘불러내다’라는 뜻에 에피칼레오마이(epikaleomai)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스테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드린 기도를 기록하는데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calling upon)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행 7:59).

같은 동사가 또한 사도행전 15:17의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called)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와 아고보서 2:7의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called)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에도 나타난다. 이 두 구절은 예수 이름이 믿는 자들에 대하여 불려지는, 침례시에 행해지는 특별한 때를 암시하고 있다. 약 2:7에 대한 다른 역본(譯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너희를 대하여 불려지는(called) 그 선한 이름을 훼방하지 않느냐?”(대역 헬·영 신약성경: Interlinear Greek-English New Testament), “그들이 너희들에 대하여 불려졌던(invoked) 그 고귀한 이름을 중상하지 아니하느냐?”(로더햄 성경: Rotherham), “그것은 그들이 너희가 구별되며 불려지도록 하는 귀한 이름(침례를 행할 때 불려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상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TAB).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이름이 침례시에 구두적으로 불려진다는 것을 한 구절에서 진술하고 있고 다른 여러 구절들에서도 보여 주고 있다.

(3) 침례에 관한 구절에 들어 있는 의미들을 분명하고 평이하게 파악해 보면 ‘예수 이름으로’가 침례 식문(式文)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우며 문자적인 해석인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나타난 뜻을 부정하는 의문스럽고도 왜곡된 성경 해석을 사용한다. 만일 이런 식문이 맞지 않다면 이 식문에 반대하는 어떠한 설명도 성경에 전혀없이 마치 그것이 맞는 식문인 양 그렇게 많이 성경

에 나타나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4)다른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구두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막 16:17-18) 야고보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약 5:14). 베드로는 앓은뱅이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실제로 그 이름을 사용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그 때 그는 앓은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행 3:16; 4:10). 바꾸어 말하자면 초대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예수 이름을 불렀다. 이와 같이 초대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은 실제적으로 침례 식문의 일부로써 예수 이름을 불렀다.

(5)설령 ‘예수 이름으로’가 맞는 식문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에서 기독교 침례에 대한 다른 어떤 식문도 찾을 수 없다. 만일 침례 식문으로 적합한 다른 식문이 있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28:19의 말씀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맞는 식문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도 맞는 식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법적인 구조가 두 구절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 이름으로’가 문자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 없이 ‘...의 권위에 의해’라고 의미한다면 식문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떠나셨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제6장에서 우리는 물침례가 매우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그래서 성경이 침례를 베푸는데 합당한 가르침을 주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분명한 식문이 없다면 어떻게 이교도의 침례나 유대교로 입교하기 위한 침례나 요한의 침례로부터 기독교의 침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식문이 없다면, 혹은 식문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바

울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재침례(再浸禮)를 주었겠는가? 저명한 신학자들 누구도 침례 식문은 상관없다든지 성경이 침례 식문에 관하여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 이름으로”가 식문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는 아무런 식문도 없다.

(6)신학자들과 교회사가들은 대부분 사도행전이 초대 교회의 침례 식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인정한다. 종교와 윤리 백과사전(the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에서는 신약의 침례에 대하여 말하는데, “사용된 식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문구였다. 삼위의 이름을 사용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sup>7</sup> 성경 해석사전(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에서는 “갈라디아서 3:27과 로마서 6:3이 뒷받침하는 사도행전 2:38과 10:48(비교 8:16; 19:5)의 증거는 초기 기독교에서 삼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진술한다.<sup>8</sup>

어떤 이는 여러 침례 기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 등으로 서로 달리 표현된 문구를 쓰고 있어서 ‘예수 이름’은 맞는 식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모든 구절 들은 같은 표현이며 모두 같은 이름, 즉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주’와 ‘그리스도’는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명칭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이다. 마태복음 28:19에서도 침례 식문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 마태복음 28:19

이 구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이 구절을 사도행전 2:38과 같이 후에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를 언급한 모든 내용들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다.

첫째, 두 구절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침례 식문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모순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침례는 오직 한 가지 형식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약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개의 상반된 침례 식문이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말씀 자체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성경이 두 개의 식문을 주었다면 어느 것이 옳은가? 우리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가?

마태는 마태복음 28:19를 기록했고 또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그와 함께 서 있었다(행 2:14).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이 모든 사도들에게 제기되었다(행 2:37). 만약 베드로가 그릇된 답변을 해 주었다면 마태는 그의 답변을 수정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말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19를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마태는 베드로가 말한 사도행전 2:38을 들었기에 단지 일주일 내지 열흘이라는 시간의 간격으로 두 사건을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된다. 사도행전 2:38이 마태복음 28:19과 상반된 구절이라면 교회의 최초의 설교자(베드로)는 교리적 오류에 빠진 것이며 다른 제자들(마태를 포함하여)은 오류를 범한 베드로를 따른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말했거나 기록한 어느 것도 믿을 수 없게 된다.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신약의 모든 가르침을 버리는 편이 낫다.

두번째 견해는, 마태복음 28:19은 식문을 나타내지만 사도행전

2:38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거나 혹은 바꾸어 역으로 말하는 견해다. 그러나 두 구절 속에 ‘...이름으로(in the name of)’ 라는 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해석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 쪽 구절이 식문을 말하지 않았다면 다른 쪽 구절도 그러하다. 우리는 이미 왜 사도행전 2:38이 식문을 설명하는지에 관해 많은 이유들을 보아 왔다.

세번째 견해는, 마태복음 28:19이나 사도행전 2:38의 어느 구절도 침례 식문을 말하는 게 아니며 그 구절 속에 어떤 식문도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다. 이 견해는 침례의 중요성이나 다른 형태의 침례로부터 기독교의 침례를 구별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거나, 상징적으로 문제의 구절을 읽어 봐도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오직 유일하게 가능성있는 견해는 마태복음 28:19과 사도행전 2:38 두 구절 모두 동일한 침례 식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가 옳다고 한다면 식문을 제시하면서도 성경 말씀의 일치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이 있다.

진리는 한 사람 이상의 증인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 원칙이다(고전 13:1). 마태복음 28:19은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 문구를 사용한 유일한 구절이지만 그에 반해 사도행전 2:38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 문구는 여러번 반복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19은 다분히 우회적으로 표현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른 구절들에 비추어 조화를 이루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지상 명령의 비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만은 아니다. 마가와 누기도 다소 다른 말로 표현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말씀을 기록했다. 다음의 표는 그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마 28:19-20; 막 16:15-18; 눅 24:47-



49; 행 1:4-8).

### 지상 명령

마태	마가	누가
1.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 중에 복음을 전파하라.
2. 침례를 주라.	믿음과 침례	회개와 죄사함
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4.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표적이 따를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을 기 다리라(성령)

마태와 마가는 분명하게 침례를 언급했다. 침례는 죄사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행 2:38) 누가도 역시 침례를 우회적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 확실히 세 복음서 모두 하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각각의 복음서의 내용에 있어서 그 이름은 단수이다. 마가와 누가는 의문의 여지없이 그 이름을 예수로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28:19도 역시 분명하게 그 이름을 '예수'라고 기록했다.

### 유일한 이름

마태복음 28:19은 유일한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단수이지 복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창세기 22:18에 기록된 단어가 단수임에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한 갈라디아서 3:16을 읽

어 보아야 한다)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이 이름의 단수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들’이 아닌 그 이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며 그 이름이 하나임을 명확히 암시해 주고 있다.”<sup>9</sup> 라고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바른 이름이 아니며 단지 설명하는 명칭에 불과하다. 그 명칭들이 바른 이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구절은 분명히 세 가지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한 이름만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바른 이름이 무엇인지 여전히 질문해 보아야 한다.

## 아들의 이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마 1:21)

## 아버지의 이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셨다(요 5:43). 그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라고 하셨다(요 17:6, 26). 구약 성경 말씀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고 예언되어 있다(시 22:22; 히 2:12).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기업을 얻으셨다(히 1:4).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어떤 이름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선포하고, 기업을 얻으셨는가? 바로 「예수」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 성령의 이름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4:26). 성령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주어지고 계시된다.

### 마태복음 28:19의 문맥

마태복음 28:19의 문맥은 그 구절의 유일한(singular) 이름이 예수 입을 더욱 더 명확하게 보여 준다.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다. 19절은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한다. 예수님은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름들로 침례를 주라(혹은 또 다른 한 이름으로)”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한 침례교의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주석가들과 성서 비평가들은 예수님이 공포하신 마태복음 28:18은 이에 따르는 기독교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을 인정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가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결론이다.”<sup>10</sup>

이같은 결론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초기 기독교도에 의해 삼위 일체 식문으로 바뀌기에 앞서 그 이전에 19절의 기독교적 식문이 분명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게 했다.<sup>11</sup> 즉 그들은 주후 300년경에 생존했

던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가 '나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를 넣어 19절을 자주 인용했다는데 주목한다.<sup>12</sup>(그는 니케아 종교회의 전에는 이 구절을 자주 사용했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혹자들은 마태나 초기 필사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쉽게 풀어썼거나 다른 문맥에서 빌어 썼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19절은 침례의 성격을 설명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침례 식문으로써 해석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해석의 원리로도 마태복음 28:19이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를 언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원문 토론이 흥미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문맥이 기독교적 식문을 요구한다고 보는 반면에 그들의 삼위일체론적 편견 때문에 말하고 있는 식문의 내용이 사실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 식문을 나타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틴데일 신약 성경 주석의 마태복음 28:19에 대한 설명이 이 점에 있어서 한층 흥미를 더해 준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예수님 본인의 *ipsissima verba*(분명한 말씀)이라기 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전했던 전도자들의 말이거나 후대에 예배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첨가된 말이라는 것이 종종 확인된다... 왜 초대 교회가 즉시 삼중적 이름(threefold name)을 사용하여 침례를 시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충실한 해석은 19절이 원래 주님께서 침례 식문으로 언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침례식에 사용될 실제 말씀에 관하여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제시하신 대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침례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sup>13</sup>

## 예수는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마태복음 28:19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명칭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며 아들 안에서 육체로 오시며 성령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 내주(內住)하신다. 이러한 모든 직임들을 계시하는 하나의 이름은 ‘예수’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이름으로 계시되리라는 것을 예언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사 52:6),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슥 14:9).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빌 2:9-10), 그러므로 마태복음 28:19이 예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누구인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호와(또는 야웨)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 칭하신 유일한 이름이었다(사 42:8). 이 분석은, 한 삼위일체 교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복수)이 아닌, 그 ‘이름’(단수)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사용해야 하는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야웨로 이해되어야 한다” 라는 결론을 얻게 하였다.<sup>14</sup>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다. 예수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며 문자적으로 ‘여호와-구원자’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분명히 여호와가 포함되어 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이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단수)을 가지게 될 것이다(계 22:3-4). 어린양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다.

20세기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예수 이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에섹스 케논(Essex Kenyon)은 예수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이며 하나님의 성(姓)이라고

주장했다.<sup>15</sup> 그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의 법적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해 주며 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 준다고 가르쳤다.

미국의 뉴욕 지방 회장인 윌리엄 필립스 홀(William Phillips Hall)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연구를 맡았다. 그는 1929년에 「놀라운 성경의 발견, 혹은 성경에 따른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소책자를 발간하였다.<sup>16</sup> 그의 결론은 주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사용하므로 마태복음 28:19을 정확히 이해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이다. 더우기 마태복음 28:19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식문에 대해서는 “침례를 받을 때 원래의 사도들에 의해서나 초대 교회에 의해서도 결코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의 모든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명해졌고, 진술되었고, 행하여졌다.”<sup>17</sup>고 기록했다.

## 침례 식문에 대한 결론

마태복음 28:19을 포함하여 침례 식문에 대하여 언급한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다. 침례 식문이 성경적이기 위해서는 단지 구두적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다”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침례를 베푸다” 또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다” 라는 식문들은 모두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식문들 중 어느 것도 우리가 사용하도록 명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식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이어야 한다. 또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생한 다른 사람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기 위하여 주 혹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삼위일체 교리

이러한 강력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태복음 28:19이 나 타내고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문장을 침례 식문으로 반복하는 실제적인 한 가지 이유는 그들 삼위일체론자들이 삼위일체 론을 시인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삼위일체론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주는 침례를 정확 히 알고 있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세기 오순절 운동의 첫 지도자였던 찰스 파햄(Charles Parham)은 분명하게 삼위 일체론을 부정한 적이 결코 없었지만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주었다.

최근들어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제임스 빌(James Beall)이라는 조 합교회(Independent)의 한 목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라(Rise to Newness Lif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예수 이름의 침례를 옹호하고 있는 반면에 삼위일체론의 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삼위일체론자들의 목록에 대해서 는 제10장을 참고할 수 있다. W. E. 바인(Vine), 매튜 헨리(Matthew Henry), 제임스 버스웰(James Buswell)등도 비록 외형적으로는 마 태복음 28:19을 예수 이름의 침례에 연관짓지는 않았지만 그 구절이 이름을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은 인정해 왔다.

우리는 또한 삼위일체라는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삼위일 체 침례 식문을 사용해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결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닌 한 분임을 강조한다. 더우기 예수는 아 버지(사 9:6)이시며, 아들(마 1:21)이시며, 성령(고후 3:17-18)이시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골 2:9).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단순히 예수로서 육체로 오신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다른 표현(manifestation)일 뿐이다. 성경은 현대의 삼위일체론 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삼위일체론적 세례 식문도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경적 교리와 삼위일체 교리의 전체적인 논의는 데이비드 버나드의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라. 특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용어에 관한 성경적 의미를 설명한 것은 제6장에서 보라.)

## 마 28:19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가르친다

왜 마태복음 28:19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인지 9가지 근거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 (1) 문법상 하나의 이름(name, 단수)을 나타낸다.
- (2) 이 구절의 문맥상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설명했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다.
-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가르침에 관해 마가와 누가가 묘사한 글에서는 '예수'가 유일한 이름임을 보여준다.
- (4) 마태는 물론, 초대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행 2:38; 8:16; 10:48; 19:5; 22:16; 고전1:13).
- (5)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아버지는 그 이름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다(요 5:43).
- (6)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마 1:21).
- (7) 성령의 이름은 예수다. 성령은 그 이름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다(요 14:26).
- (8) 하나님은 신약 속에서 한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셨고(스 14:9) 그 이름은 '예수'다(계 22:3-4).
- (9)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으므로 삼위적인 식문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교회사 속에서의 증거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속사도 시대(the early post-apostolic era)의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이 원래의 식문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교회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이름이 더 오래된 식문이며 삼위적인 식문은 단지 점차적으로 채택되어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 주제에 관한 전체적인 논의는 제10장을 보라)

### 침례 식문은 정말로 중요한가?

모든 사람은 성경적 식문을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성경은 물침례에 대단히 큰 중요성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명한 대로 정확히 침례를 받아야 한다.

(2)우리는 사도적 교회의 본을 따라야 한다.

(3)전통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대신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4)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따를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순종해야지 다른 방법을 고안하여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성경적 식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반항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게 접근하는 것이 될 것이다.

(5)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물에 잠기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지만,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행 19:1-5). 두 가지의 침례에 있어서 외적인 차이점은 단지 '이름'에 있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할 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6)예수의 이름은 유일하게 침례가 갖는 모든 목적과 연관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 그리스도와 연합함, 죄사함을 얻는 것과 연관된다.

이미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고넬료의 경우가 지적하듯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며 예수 이름의 침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조차도 성령을 주실 것이다. 주님은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요 16:13), 사람들은 그 이후 줄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교리를 승인하신 것은 아니며, 이는 다만 그분의 은혜이며 그가 말씀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이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영적 경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

혹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침례 식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방법상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로 주의 만찬을 케이크와 편치(역자주: 포도주에 물, 우유, 과즙, 향료 등을 섞은 음료)로 기념한다든지 우유를 뿌리는 세례를 행하거나 심지어 침례 의식 모두를 생략해 버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가르침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침례의 경우에 성경은 침례가 구원의 일부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명하고 있다.

식문이 중요하지 않다면 어떤 이름으로 주어도 모두 타당한 기독교적 침례가 될 것인데 그것은 불합리하다. 침례의 영적인 중요성은 사용되는 식문과 불려지는 그 이름에 의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은 (1)그리스도의 성품(그분이 진실로 누구인가 하는 것)과 (2)그리스도의 사역(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3)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등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입증한다.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이다.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신성에 관한 완전한

단계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믿음이란 언제나 완전한 지식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믿음으로 성경적인 침례 식문에 순종하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무시한 채 그릇된 전통과 교리를 따라 만들어진 인위적 식문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흥미롭게도 로마 카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침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문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로 선포되어야만 유효한 침례가 된다고 아이러니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요약컨대, 성경은 예수 이름을 사용한 식문 외에 어떤 다른 식문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만족할 만한 다른 어떤 식문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의 기록에만 충실한다면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 기독교적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이는 그의 능력과 권위를 의미하며 그를 믿는 것과 입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2) 다른 어떤 식문도 성경적으로 유효하지 못하다.

## 결 론

결론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성경은 다음과 같은 식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식문은 말하고 있지 않다.

① 마태복음 28:19은 이 식문을 설명하고 있다.

② 사도적인 교회는 이 식문을 고수하였다(행 2:38; 8:16; 10:48; 19:5; 22:16; 고전 1:13).

(2)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다(롬 6:4; 골 2:12).

(3)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연합이며(롬 6:3; 갈 3:27) 그 이름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된다

(4)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탄생과 양자됨과 영적인 할례의 일부로써 이제 새로운 성(姓)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갖는 이름은 예수이다(엡 3:14-15).

(5) 침례는 죄사함을 위한 것(행 2:38)이며 예수 이름은 죄를 사하는 유일한 이름이다(행 10:43).

(6)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위를 나타낸다(마 28:18; 행 4:7, 10).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행 3:6; 16).

(7)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며(골 3:17) 침례는 그 말과 일에 해당한다.

(8) 예수의 이름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이름이며 모든 사람은 그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빌 2:9-11).

(9)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일부이며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다(행 4:12).

(10)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요 14:6-11).

(11) 예수 안에 신성이 충만하데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나타낸다(골 2:9).

(12) 예수리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다(마 1:21; 요 5:43; 14:26).

(13) 예수 이름의 침례는 인간의 전통에 대하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함을 증명한다.

예수 이름의 침례가 이토록 중요한데 왜 어떤 이들은 그 이름 사 용하기를 거부하려고 하는가?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되신 유일하신 분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왜 주저하는

가? 왜 유일한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을 거부하려고 하는가?

각 주

- <sup>1</sup> Vine, p.99.
- <sup>2</sup> Rousas John Rushdoony, "Baptism and Citizenship," Chalcedon Position Paper No. 37 (Vallecito, Ca.: Chalcedon, n.d.), p. 1.
- <sup>3</sup> *Ibid*, pp. 1-2.
- <sup>4</sup> *Ibid*, p. 2.
- <sup>5</sup> *Ibid*.
- <sup>6</sup> James Strong,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1890).
- <sup>7</sup> 'Baptism (Early Christian),'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hereinafter *ERE*], James Hastings,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1), II, 384.
- <sup>8</sup> 'Baptism',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1962), I, 351.
- <sup>9</sup> Matthew Henry, *Commentary*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n.d.), V, 443.
- <sup>10</sup> Beasley-Murray, p. 83. Emphasis in original.
- <sup>11</sup> *Ibid*, pp. 83-84.
- <sup>12</sup> *Ibid*, p. 81.
- <sup>13</sup> R. V. G. Tasker,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Vol. I of *The Ty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61), p. 275.
- <sup>14</sup> James Buswell, Jr.,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0), I, 23.
- <sup>15</sup> David Arthur Reed,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Theology of Oneness Pentecostalism in the United States* (Ann Arbor, Mich.: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78), pp. 47, 66-67, citing Essex Kenyon, *The Wonderful Name of Jesus* (Los Angeles: West Coast Publishing Co., 1927).
- <sup>16</sup> Reed, pp. 46, 49, 68.
- <sup>17</sup> William Phillips Hall, *Remarkable Biblical Discovery or "The Name" of Go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929; Rpt. by St. Louis: Pentecostal Publishing House, 1951), p. 10. However, Hall placed primary emphasis on Lord rather than on Jesus.
- <sup>18</sup> Elmer Clark, *The Small Sects in America* (Nashville: Cokesbury Press, 1937), p. 200.

## 제 8장 성령침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5).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 성 령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벧전 1:6).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거룩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며(요 4:24)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이다(엡 4:4).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다(행 5:3-4; 고전 3:16-17, 6:19-20). 성령의 칭호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영’ 이다(롬 8:9).

‘성신(Holy Ghost)’ 과 ‘성령(Holy Spirit)’ 의 칭호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흠정역(KJV)는 보통 전자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후자를 사용하기도 한다(눅 11:13; 엡 1:13; 4:30). 그러나 원래의 헬라이어 원본은 오직 *pneuma hagion*(프뉴마 하기온)이란 단어만을 쓰고 있다. 흠정역(KJV)이래 모든 주요 번역본들은 한결같이 ‘성령(Holy

Spirit)'을 선택해 왔는데, 그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령이란 칭호는 그의 거룩함과 영적인 속성을 강조한다. 성경은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 속에서 오직 성령이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의 일부를 언급할 때 이 칭호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특별히 성령을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하심과 인간 속에 그분이 내주(內住)하시는 것을 연관짓고 있다(요 3:5; 14:16-17).

## 성령침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갖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약적인 체험이다. KJV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말한다(행 1:5). 이 구절에 있는 with는 헬리어 *en*(역사주: *en*은 ‘안에(=in)’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상술성경(TAB)과 신 국제역 성경(NIV)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en*은 또한 *in*으로 번역될 수 있다.

침례(baptism)라는 말은 ‘집어넣다,’ ‘담그다,’ ‘잠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그 체험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으로 표현한다. 동시에 성경은 이런 체험을 갖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고 설명한다. 충만함에 관한 상호 보충적인(상반되지 않는) 예증(例證)으로는 마치 빈 용기가 완전히 액체 속에 잠겼을 때 용기 주위가 액체로 둘러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 속에도 액체로 가득 채워지게 됨을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묘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밀접한 인격적 연합을 얻는다는 의미를 전해 준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며, 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이 되신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성령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 성경적 용어

사도행전은 성령침례를 다음과 같이 여러 말들로 표현하고 있다. 즉 ‘성령의 충만함’ (filled with 2:4), ‘약속하신 성령’ (promised 2:33), ‘성령의 선물’ (gift 2:38), ‘성령의 내려오심’ (fell on 10:44), ‘성령을 부어주심’ (poured out 10:45); ‘성령받음’ (received 10:47); ‘성령의 임하심’ (came on 19:6). 그리고 서신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dwells in)라고 설명하고 있다(롬 8:9).

이러한 모든 구절들은 각각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으로써 동일한 신약의 체험을 확인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비어 있는 인간이라는 그릇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filled with)받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주실 때 (poured out)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 (came on) 것이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received) 것이 되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filled) 입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promised) 성취하신 것이 되고 사람은 약속된 성령을 받은 것이 된다. 아래 도표는 성령 침례에 대한 모든 구절

### 성령침례에 대한 성경적 용어\*

	성령침례 (Baptized)	성령의 임하 심(Came on)	성령의 내려 오심(Fell on)	성령의 충만 함 (Filled)	성령의 선물 (Gift)	성령받음 (Received)	성령 부어주 심(Poured)
성령의 임하심 Came on(upon)	1:5, 8						
성령의 내려오심 Fell on	11:15-16	10:44-47 19:2, 6					
성령의 충만함 Filled with	1:5 2:4	1:5, 8 2:4	2:4 11:15				
성령의 선물 Gift	11:15-17	2:38 19:2, 6	10:44-45	2:4 11:17			
성령을 받음 Received	1:5 2:33	19:2 19:6	10:44 10:47	2:4 2:38	2:38		
성령 부어 주심 Poured out	10:45 11:15-16	1:8 2:16-18	10:44-45	2:4 2:16-17	10:45	10:45 10:47	
성령의 약속 Promise	1:4-5	1:4 1:8	1:4-5 11:15-16	2:4 2:33	2:38-39	2:33	1:4 2:16-17

\*참조한 모든 성경구절은 사도행전에서 발췌함.



들이 동등한 것임을 입증해 준다.

성령 침례에 대한 구절들 중 어떤 경우는 성령을 물로 비유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영적 갈증을 풀어 줄 생수라고 말씀하셨다(요 4:14; 7:38). 그러나 성령은 실질적으로 액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성령은 또한 성령을 불(마 3:11)과 바람(요 3:8)으로 비유하지만(마 3:11) 성령이 문자적으로 불이나 바람이나 물은 아니다.

##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이란 말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최초의 경험과 성령이 그 생명 속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오순절 이후 얼마 동안은 성령으로 침례 받은 많은 신자들이 기도 모임에 함께 모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행 4:31).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방법으로 이들 믿는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처음에 경험했던 그 체험을 새롭게 하셨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공회에서 말했을 때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행 4:8).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 바에수에게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리라고 예언했다(행 13:9). 이러한 예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충만해지다’(filled)의 의미는 이미 성령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하고도 일시적으로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영적 위임에 관해 이야기한다.

다른 구절들에서는 성령침례를 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것을 말하기 위해 ‘충만해지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도들을 돕기 위해 선택된 일곱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였다(행 6:35).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하였다(엡 5:18). 후반절은 성령침례 받은 신자들에게 성령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주장하도록 하는 권고의 말씀이다. 이 의미로 볼 때 ‘성령

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롬 8:4)이며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한 자가 회개할 때에도 물론 그는 성령으로 다시금 '침례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것이다. 타락한 자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는 상속권을 잃지만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의 거듭남의 역사적 사실과 칭의는 여전히 실재한다. 그가 회개할 때 또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 그는 두번째 물침례나 성령침례를 경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에 받았던 물침례와 성령침례가 그가 회개할 때 다시 유효해지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는 단순히 의로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들로써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요약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어구는 사도 교회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했는데 항상 이 세 가지 의미 중 한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 최초의 성령침례. (2) 이미 성령침례 받은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령에 순복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매일 매일의 인도하심과 능력. (3) 최초의 성령 체험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 이후에 계속되는 성령의 체험들.

우리는 성령침례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졌던 구약의 모든 경험들과는 구별해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은 침례 요한이 가졌던 성령 충만과는 다르다. 즉 그것은 새로운 교회를 위한 전혀 새로운 경험인 것이다.(다음 단원을 보라)

## 구원의 일부

이 장(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구원의 초기에 경험하는 모든 성령의 사역에 관한 묘사는 성령침례를 말한다(요 3:5; 제4장).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은 먼저 그 사람의 생명 가운데 '거

(居)하기’ 시작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다른 방법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성령을 받은 일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적도 없고,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신 적도 없으며, 또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신 적도 없었다면(이 말들은 성령 받은 한 가지 체험을 성경적인 여러 표현으로 열거한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거하신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2:13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풀어 준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For by one Spirit are we all baptized into one body).” 으로(=by)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en*(역자주: *en*은 영어로는 *in*, 우리 말로는 ‘안에’ 라는 뜻이다)이다. -같은 전치사가 사도행전 1:5에 쓰여졌다 우리는 “한 성령을 가지고(with)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는 NIV의 한 서문에서 처럼 “한 성령 안에서(in)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침례는 구원의 일부이지 구원 이후에 갖는 일종의 체험이 아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령 충만의 필요성과 성령침례가 거듭남의 일부임을 인정한다. 블로에쉬(Bloesch)는 “우리는 성령침례가 신생과 별개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sup>1</sup> 또 다른 비오순절 계통의 신학자인 안토니 호크마(Anthony Hoekema)는 “만약 우리가 거듭났다면,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기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sup>2</sup> 그는 또한 “성령으로 받는 침례는… 회심(回心)과는 별개의 그리고 보통 회심 이후에 겪는 어떤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회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며 회심의 필연적인 측면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침례를 받았다. 성령침례는… 거듭남과 동일하다.”<sup>3</sup> 라고 썼다.

성령침례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안으로 영접하는 수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다(롬 8:9). 그리스도는 성령의 내주(內住)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신다(엡 3:16-17). '주는 영이시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이시다(고후 3:17-18, NIV). 오직 한 성령만이 계시기에(엡 4:4; 고전 12:13), 한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한번은 성령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 영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안으로 모셔 드리는 것이다.

성령침례는 단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성령침례는 단지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영적 체험이 아니며 오직 오랜 시간 기다리고 필사적으로 몸부림 한 후에 얻게 되는 회심 이후의 체험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회심의 일부이며 믿고 회개함으로 경험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함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구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성령침례는 이차적 혹은 삼차적인 '은혜의 사역'이며 구원하는 회심에 이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험이라고 가르친다.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성령침례를 회심의 일부로 간주하고 회심 이후의 즉각적인 은혜 사역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1800년대의 성결 운동은 회심 후에 성화(聖化)라고 불리는 이차적인 은혜 사역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즉 성화시에 사람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죄로부터 완전히 정화된다는 것이다.

1900년대 초기 많은 성결교 신자들은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을 받았고 그 경험을 삼차적 은혜 사역으로 분류하였다. 성령침례를 받은 다른 사람들은 성화(聖化)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계속되는 과정이며, 그래서 성령침례를 이차적 은혜 사역 내지 회심 자체의 일부로 취급하였다. 성경적인 가르침과 용어들을 분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성령침례가 이차적 또는 삼차적 사역이라기보다는 회심과 중생의 일부라고 결론 짓는다.

## 신약 교회의 기초(基礎)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에 시작되었다. 침례 요한은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했을 뿐이다. 예수님은 요한을 어느 선지자보다 위대하다고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눅 7:28)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성취되는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요한이 누렸던 것보다 더 위대한 영적 특권과 축복과 능력을 가진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왔다고 선포하였다(마 3:1-2). 천국의 메시지는 그와 함께 시작되었다(마 11:11-13; 눅 16:16). 그러나 그는 실현된 천국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실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왔기 때문이다(요 1:16-17). 그는 성령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고 전파하였다(마 3:11).

예수님은 그의 초기 사역 중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있어서의 교회를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그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짧게 말씀하셨다(눅 24:47).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으며 그 때 그들은 증인이 되었다(눅 24:49; 행 1:4-8).

신약 교회의 시작은 요한의 전파나 주님의 초기 사역으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오순절날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맺을 새로운 계약을 계획하셨고 이 계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 새로운 계약, 혹은 새 언약(KJV에 있는 계약(covenant)이나 언약(testament) 둘 다 헬라어

*diatheke*(디아테케) 한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은 성령의 약속을 담고 있다(렘 31:31-33; 고후 3:3-6).

새 언약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히 9:15-16).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으며 그의 부활은 그 죽음을 유효하게 만들었다(롬 4:24-25). 그러므로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후에야 주어진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9);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신약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되었는데 그 시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새 언약의 효력이 발효된 이후였다.

## 새로운 교회를 위한 새로운 체험

성령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 신약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체험이다(요 7:39; 16:7). 그리스도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들이 받을 미래의 새로운 체험으로써 성령을 약속하셨다(눅 24:47-49; 행 1:4-8). 이 약속은 오순절날에 이루어졌다(행 2:1-4, 33).

사도행전 2:1-4 이전에는 누구도 이것을 체험할 수 없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인데(히 8:6), 그 언약 중 하나가 성령의 약속이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후에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라고 진술하면

서 끝을 맺는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11:39-40).

선지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예언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갈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 교회를 위하여 성령침례를 예비하셨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벧전 1:10; 12).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루셨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벧후 1:21).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한 그릇에 기쁨을 부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체험과 더 위대한 차원의 성령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생명 속에 성령이 내주(內住)하심을 누릴 수 있으며 율법 아래에서는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죄를 이길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롬 8:3-4). 이 성령의 내적 능력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렘 31:31-33; 겔 11:19). 오순절날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신약적인 의미의 증생은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침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순절 이전에 침례 요한이나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특정한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눅 1:15; 41, 67). 그러나 그들의 체험은 신약 교회의 체험은 아니었는데, 그 까닭은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침례요한은 성령침례를 받지 못했으며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눅 3:16; 7:28; 행 19:1-6).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구절은 하나

님의 영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구약의 체험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침례요한의 경우에 성령은 그가 예레미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요한을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렘 1:5). 요한의 부모는 잠깐 동안 예언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았다. 오직 오순절 이후에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이 신약의 성령침례를 언급하는 것이며 그때에야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 구약의 예언

비록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성령의 도래(到來)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였다(벧전 1:10-12).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을 2:28-29). 베드로는 이 예언을 인용하여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침례에 적용하였다(행 2:16-18).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의 법을 기록하리라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렘 31:31-33). 이 약속은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며(고후 3:3-6) 우리에게 율법의 의(義)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롬 8:3-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라고 하셨다(겔 11:19; 36:26을 보라). 또 다른 예언의 말씀에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겔 39:29).



## 신약의 약속과 명령

침례 요한은 성령침례의 약속을 전파하였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요한은 단지 선택된 소수만을 위하여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가 베푸는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전파하였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표징을 주시므로 그가 그 약속을 실현하실 유일하신 자(예수)를 인식하도록 하셨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요 1:33).

다음 인용한 말씀이 입증하듯이 예수님은 성령침례를 약속하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또한 다음에 인용된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던 구절이다.

●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 7:37-39).

이 마지막 구절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

(1)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었다.

(2)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지 성경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3)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시점에서 내린 정신적 동의만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계속적으로 믿는 것이다.

(4)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성령의 선물은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얻기 전까지는 임하지 않았다. 그는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부어 주심을 의미하셨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체험이다.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은 그가 떠나신 후에 오시리라고 간략하게 강조하셨다. 더우기 그는 성령이 또다른 형태의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셨다 -육체 안에서보다는 영 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18).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7, 13).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령의 약속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 약속을 명령으로 바꾸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다(요 20:22). 누가복음에서 명확히 나타나듯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 24:49),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4-5, 8)

지상명령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도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 낫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 뿐만 아니라(막 16:17-18) 세상 끝날까지 그의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마 28:20). 이 모든 약속들은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 사도 교회의 실행(實行)

신약의 교회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침례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증거하였다.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순절날 그 약속을 전파하였다(행 2:38). 바울은 성령의 필요를 강조하였다(행 19:1-6).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정의하였다(롬

14:17).

## 사도행전의 중요성

신약 성경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2)초기 교회의 역사(사도행전), (3)서신서(로마서~유다서), 그리고 (4)예언서(계시록).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르침과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이다. 4복음서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고 단지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과 업적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이야기체로 기록된 신약 교회의 역사이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에까지 전파된 것을 기술한다. 서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거듭난 신자들에게 쓴 교훈과 권고의 편지이다. 서신서에 초기 회심의 경험에 관해 언급한 글이 들어 있지만 이 글들은 독자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다. 계시록도 또한 이미 세워진 교회와 신자들에게 전해진 것이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한다.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약 교회에서 있었던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의 역사적 사건들을 담은 책이며 기독교의 물침례와 성령침례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 책의 성격과 목적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계된 거의 모든 직접적인 증거들을 수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신약 교회를 위한 모범(模範)이며 표준이지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이 표준이 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사례는 전혀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침례의 다섯 가지 사건은 그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셨던 대표적인 방법이다.

## 오순절날

약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후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침례를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숫자에는 열 두 사도(유다를 대신한 맛디아를 포함하여)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행 1:12-26). 그들은 유월절 이후로부터 오십일이 되는 유대의 절기인 오순절날에 다락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헬라이어인 *pentecoste*는 문자적으로 '50일'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처음 맞는 오순절날에 120명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행 2:1-4).

어떤 이들은 단지 열 두 사도만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1) 예수님은 그가 승천할 때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지만 단지 열 두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다.

(2) 120명 모두 다락에 올라가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으며 그들 중 누구도 자리를 떠났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3) 베드로가 오순절에 적용했던 요엘의 예언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별없이 모든 육체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리라고 말씀하셨다(행 2:16-18). 이것은 분명 12명 이상을 말하는 것이며 여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120명이 성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에는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여 3,000명이 추가로 성령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1)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약속을 알려 주었으며(행 2:38-39) 그곳에 있던 3,000명은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행 2:41).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방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자신이 경험한 동일한 성령 체험을 제시하면서 설교를 마쳤다.

(2) 3,000명의 청중은 베드로의 설교를 믿고 그들의 삶에 적용했으며 베드로는 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했다.

(3)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행 2:41). 이것이 단지 물침례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주어지도록 약속되었다.

(4) 3,000명은 방금 성령을 받았던 120명에 '추가되었다'. 우리는 풀썩 주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3,120명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sup>4</sup>

오순절날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3,120명은 모두 유대인 내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행 10-11).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개종자들-이방인으로 출생하였지만 개종하여 유대인이 된 자들-이었을 것이다(행 2:10). 120명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지만 3,000명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여러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행 2:5-11).

후에 한 무리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행 4:31). 이것은 최초의 성령침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고 기쁨 부음을 받은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날은 최초로 성령침례가 이루어진 사건을 보여주며, 특별히 그 최초의 성령침례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 사마리아

성경에서 성령침례가 이루어진 장면이 두번째로 기록된 곳은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에서였다. 사마리아인들은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등이 혼합된 혼혈족이었고 유대인과는 구별

된 민족 집단을 구성했다.

전도자 빌립(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사마리아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적들(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등)을 목격했고 큰 기쁨을 맛보았으며 그의 메시지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았다(행 8:6-16).

이 사건은 성령침례가 기적이거나, 큰 감동이나, 지적 믿음이거나, 회개나, 물침례와 혼동되지 않는 뚜렷한 체험이며 이 체험에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일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안수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행 8:17).

사마리아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었다. 그들은 분명 처음부터 온전히 성령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못했다. 그들은 '빌립을 믿었던' 것이지만 분명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던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할 때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만큼 성장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열 두 사도만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도 아나니아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행 9), 에베소인들은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행 19). 마찬가지로 안수하는 것도 성령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20명도 안수없이 성령을 받았고(행 2) 고넬료도 그러했기 때문이다(행 10).

안수(按手)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과 목적을 갖는다.

(1)안수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도하심에 복종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2)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부르심을 부여해 주는 것을 상

징한다.

(3) 안수는 간구하는 자의 마음 속에 믿음을 불어넣는데 도움을 준다.

사마리아인들의 체험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가지고 물로 침례까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성령이 없이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기에(롬 8:9), 마술사 시몬의 경우가 한 예로 보여주듯이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성령침례를 필요로 했다. 호크마(역자주: 칼빈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는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침례를 주었을 때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까지 구원을 위한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이야기의 주된 관점은 구원이 성령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sup>5</sup> 대부분의 다른 개신교 주석가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데 동의한다.<sup>6</sup>

## 바울의 회심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로부터 비추는 강한 빛으로 다소 출신의 사울(바울)을 사로잡으셨지만, 바로 이때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행 9:6)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어 시력을 되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다(행 9:17).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바울은 즉시로 시력을 회복했고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행 9:18).

성경은 특별히 바울이 성령침례를 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그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틀림없이 실행되었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의 서신서들과 그의 사역에서 그가 참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다시 호크마의 설명이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사울의 회심이 즉각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일에 걸친 경험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삼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회심과는 별개의 회심 이후에 있었던 ‘성령침례’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그의 회심에서 없어서는 안될 체험의 일면으로써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7</sup> 블로에쉬는 바울의 거듭남은 그가 아나니아에게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있었다는데 동의한다.<sup>8</sup>

## 가이사라의 이방인들

성령침례에 관한 다음 기사는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사는 로마 백부장(일백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인 고넬료가 중심이 된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지어 천사의 방문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이러한 모든 인품과 존경할 만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천사는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면서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행 11:14)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마 그는 회개는 했을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고넬료는 출생이나 개종에 의해 유대인이 된 자가 아닌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로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일가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의 설교를 듣던 이방인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행 10:44-46). 베드로는 이 표적을 성령침례로 인정했다 -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동일한 선물(행 11:15-17) -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이방인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최초의 일임을 보

여준다.

## 에베소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 두 명쯤 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행 19:2).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했다(행 19:2).

이 제자들은 요한이 성령침례에 관하여 전파한 것을 전혀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체험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실제로 왔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 그들은 아마 “우리는 아직까지 성령이 주어졌는지 어졌는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지 모른다.(요 7:39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를 말하지만 KJV는 “성령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어쨌든 바울은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다(행 19:3 NIV).

바울은 그들이 단지 요한의 침례만 받은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재침례를 주었다. 그리고서 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수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행 19:6).

이 기사는 바울이 왜 이들 ‘믿는 자들’에게 접근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았다. 그것은 (1)‘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와 (2)‘너희는 어떻게 침례를 받았느냐?’ 라는 질문이다. 바울은 그들을 다시 가르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방언 표적으로 하는 성령을 받도록 했다.

이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수 이름의 침례와 방언을 수반하는 성령침례가 전 신약 교회를 위한 표준(標準)이 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대한 바울의 두 가지의 질문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선택하여 기록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

에 그 중요성이 명백해진다. 만약 사도행전 19장이 없다면 다른 기사들은 특별하고 일회적인 사건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 가운데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록하며, 8장은 사마리아로의 복음의 확장을 기록하고, 10장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록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에는 그러한 민족적인 특수성이 들어 있지 않다. 사도행전 19장은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침례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호크마는 사도행전 2, 8, 10장을 위와 같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은 “아마 다른 방언 말함(*glossolalia*)에 관계된 사도행전의 모든 글들 중에 가장 당혹스러운 것”임을 인정한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마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는 이 체험이 에베소인들에게 왜 필요했는지 설명을 시도한다. “(1)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왔을 때 이 에베소 신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 아주 불완전한 것이었다. (2)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다른 방언(*glossolalia*)을 꼭 주어야 했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sup>10</sup>

그가 주장하는 이 ‘특수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심에 대해 듣지 못했기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방언을 필요로 했다. (2)그들은 에베소 교회의 핵을 구성하고 있는 일단의 훌륭한 신자들이었지만 기독교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 핵심 멤버들에게 그들을 완전하게 이해시켜 줄 방언이 필요했었다.

이 근거 모두가 지금 여전히 영향력있게 적용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성령침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여전히 필수적이다. 방언은 여전히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표적으로써 필요하며,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확신하는데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적은 무리의 신자들을 지역 교회의 핵심으로 변화시키는데 여전히 성령이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인들에게 성령침례를 주기 위해 어떤 이유를 가지셨던지 간에 그러한 근거들은 오늘도 여전히 개

개인과 지역의 회중들을 위해 필수적임이 분명하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완전한 기독교적 믿음에 이르는 것과 성령이 참으로 교회에 부어져 왔음을 이해 시키는데 더욱 큰 필요를 느낀다.

### 성령침례에 대한 결론

이들 다섯 가지의 사건(오순절날, 사마리아, 바울, 가이사라의 이방인들, 에베소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성령 체험)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장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들을 입증하게 된다.

(1) 성령침례는 신약 교회 시대를 위한 구원(신생)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구원받은 후에 경험하는 구원과 분리된 체험이 아니다.

(2) 성령침례는 신약 교회 시대(오순절날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인종과 민족과 시대와 위치에 의해 우리와 차별되어 있는 특별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다.

### 복음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근거하여 성령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가르침을 반대하는데, 오순절 이전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십자가상의 강도 등,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던 사람들을 들어 반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율법 아래서 일어난 것이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과도기적 기간에 발생했다. 이 기간동안 성령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며 신약 교회는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의 초기 사역 기간에 옛 언약을 영생의 길로써 인정하셨으며(눅 10:25-28)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라고 명하셨다(마 19:16-19; 23:1-3, 23). 그는 간음한 여인에게 “가서 다

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도덕의 안내자로써 율법을 남겨 주셨다. 그는 그가 고쳐준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마 8:4)고 말씀하셨고 다른 열 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7:14).

복음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새 언약과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옛 언약 아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은 율법과 조화되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과 모순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강도를 위해 희생양과 대제사장으로써 섬기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순절 이전까지는 율법을 따르기를 원하셨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신약 교회 시대를 위한 복음을 따르기를 원하셨다.

## 단지 사도 시대의 교회만을 위한 것인가?

몇몇 사람들은 성령침례가 단지 사도들 내지 사도 시대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령은 남녀노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 약속되었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요엘은 말세에 있을 모든 육체에게 부여될 이 체험을 약속했다(욘 2:28; 행 2:16-18). 오순절날이 말세 가운데 있었다면 이후의 모든 역사 또한 말세이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군중에게 말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9).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과 또한 열 두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살 자들을 포함하여 분명히 그들 자녀들에게 선물을 약속했다.

‘모든 먼데 사람’은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오순절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포함한 것이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 - 원하는 자(계 22:17)- 에게 미친다. 에베소인들에게 있었던 일은 성령

침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단지 한번 각각의 민족 집단에게 반복되지 않을 체험으로써 주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참으로 성경은 모든 믿는 자(요 7:38-39; 행 11:15-17)와 구하는 모든 자(눅 11:13)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도행전이 신약 교회를 위한 모본(模本)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 모본이란 말인가?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성령침례와 관련된 그의 약속을 철회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체험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성령의 약속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성령이 없는 사도행전의 구원?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즉 성경에 사도들의 추종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과 앓은병이가 나은 후에 믿은 5,000명(행 4:4), 에디오피아의 내시(행 8), 루디아(행 16), 빌립보 간수(행 16) 등이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물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구절은 없다. 성경은 이 모든 회심의 사건들을 무작정 상세히 기록하지는 않는다. 마치 복음서가 지면의 부족으로 인해(요 21:25)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기적과 사건만을 기록한 것처럼, 사도행전도 중요한 회심의 체험들을 예(例)로써 선별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가를 감동시키셔서 후대(後代)에게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령침례에 관한 다섯 가지의 기사를 선택하도록 하셨다. 누가는 모든 상황에 맞는 선례를 세우기에 충분하게 기록했으므로 다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거나 다른 회심의 내

용들을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었다.

성경이 모든 경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회심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여전히 있다. 5,000명이 '믿었고' 루디아도 '믿었다.' 참된 믿음은 성령을 받도록 이끈다. 내시나 간수 모두 기쁨을 만끽하는 체험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성령침례의 결과일 것이다.

요약컨대, 다섯 가지의 중요한 실례가 성령침례를 회심(conversion)의 일부로써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다섯 가지 사건들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많은 다른 회심(conversion)의 체험들이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사들이 성령침례를 암시하고 있으며 어느 것도 특별히 성령침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다섯 가지의 예들이 모본을 세우는데 그 의미가 있음을 결론지었다. 몇 안되는 특별한 경우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섯 가지 예들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단지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다섯 가지 사건이 담고 있는 명확한 증거를 뒤집어엎을 수는 없다.

##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성령침례는 구원의 일부이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들을 구하고(눅 11:13) 믿고(요 7:38-39) 순종하는(행 5:32)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에(히 11:6)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했다(행 2:38). 사마리아인들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없이 물침례가 자동적으로 성령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우기 고넬료의 경우는 침례 받기 전에 성령이 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고자 해야 한다. 온전히 복종하는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 주신다. 만약 아직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한 속히 침례를 받아야 한다.

회개는 꼭 필요하다. 성령이 마음 속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자신을 영적 부정함에서 구별해야 한다(고후 6:16-7:1).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게 하실 수 있기에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하며 죄를 용서 받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해야 한다.

누군가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의 영을 주실 것이다. 비록 그가 아직 물침례를 받지 않았다던가 하는 다른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만약 이런 믿음에 있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 신실한 사람을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분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외면할 구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며 당신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와 믿음의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든지 그의 영을 주실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성령침례를 받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서약해야 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께 순복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상관없이 바로 그 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겠다고 마음에 결심해야 한다.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결심을 의탁한 후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 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며 간구하는 자를 온전히 주장하여 감동하심으로 전에 전혀 배우지 않았



던 방언을 말하게 하실 것이다. 종종 회개가 있는 후 안수(按手)를 할 때 간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적절한 시기에 그의 믿음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비록 안수가 성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었지만 초대 교회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행했던 일이었다.

간구하는 사람이 회개하기까지는 성령을 기대하고 찬양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없이 성령을 주실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간구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가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때까지의 시간을 요(要)하지만 때로 그 걸리는 시간은 단지 한순간일 수도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성령 받기를 기다리거나 여러번 간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직 완전히 회개함으로 자신의 생활의 모든 면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순절날 120명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일주일 내지 열흘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그 이후로 성령은 값없이 누구에게든지 부여됐던 것이다.

사람들이 성령침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성령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지, 그리고 그들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면 대부분 쉽게 성령을 받는다. 성령침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성령 체험이 단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축복으로 알고 있다면 대부분이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다.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배웠다면 대부분은 물침례를 받고서 성령을 받거나 회개한 후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을 것이다.

어린아이나 노인,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가난한 자나 부자도 모두 성령을 받는다. 종종 불교 신자나 비기독교적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도 성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넬료와 에베소인에 관한 기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순간 그 즉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성령의 사역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그의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 들여 영원한 기초 위에 서게 된다(롬 8:9; 엡 3:16-17).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신다. 성경은 다음 몇 가지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해 놓았다. (1)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요 3:5), (2)성령은 우리를 양자 삼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다(롬 8:15-16; 갈 4:5-6), (3)성령은 우리로 그 영으로 침례를 받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한다(고전 12:13), (4)성령은 우리를 성화(聖化)시킨다(고전 6:11; 벧전 1:2), (5)성령은 우리를 구원하는 인(印)이 된다(엡 1:13); (6)성령은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의 보증(담보, 보증금, 첫번째 불입한 할부금)이 된다(엡 1:14). 간단히 말해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의 일부이다. 물론 4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성령침례와 물침례를 분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둘이 하나로 신생(新生)을 완성하며 구원의 모든 은혜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성령침례는 구원의 일부로써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딤후 1:7), 그 능력이란 (1)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하심을 증거하며 그 구원의 산 증인이 되는 능력(행 1:8); (2)죄를 이기며 의롭게 살며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는 능력(롬 8:4, 13); (3)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재림하실 때 체험할 부활의 능력(롬 8:11) 등을 말한다.

성령은 안식과 상쾌함을 주며(사 28:11-12; 행 3:19), 근신(謹慎)하는 마음을 준다(딤후 1:7).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와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도록 빛을 비추어 주

시는 분이 되신다(요 14:26; 16:13). 그는 또한 우리의 중보자(中保者)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롬 8:26-27; 엡 2:18). 결국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즉,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갈 5:22-23; 롬 5:5; 14:17) 등의 열매이다.

이러한 모든 성령의 사역은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진리를 한층 확실하게 해 준다. 위에 열거한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 구원을 얻고자 애쓰는 자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시도하는 것이며 이것은 애초부터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결 론

성령침례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신약의 체험이다. 성령침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체험을 약속하셨으며 모두가 성령을 받을 것을 명하셨다. 오늘날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선물을 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성령이 주장하고 인도하는)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각 주

<sup>1</sup> Bloesch, II, 22.

<sup>2</sup> Anthony Hoekema, *What About Tongues Speaking?*(Grand Rapids: Eerdmans, 1966), p. 114.

<sup>3</sup> Anthony Hoekema, *Holy Spirit Baptism*(Grand Rapids: Eerdmans, 1972), pp. 20-21.

<sup>4</sup> *The Pulpit Commentary*, XVIII(Acts), 251.

<sup>5</sup> Hoekema, *Holy spirit Baptism*, pp. 36-37.

<sup>6</sup> *The Pulpit Commentary*, XVIII(Acts), 279; Bloesch, II, 12.

<sup>7</sup> Hoekema, *Holy Spirit Baptism*, p. 39.

<sup>8</sup> Bloesch, II, 18.

<sup>9</sup> Hoekema, *What About Tongues Speaking?*, p. 73.

<sup>10</sup> *Ibid*, p. 77.

## 제 9 장

# 방언을 말함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4).

### 방언 말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는 초자연적인 은사’<sup>1</sup>이다. 이 문구의 원어인 헬라어는 *glossa*(글로싸)로써 ‘혀’라는 단어인데 몸의 기관이나 언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방언 말함에 관한 현대 신학 용어는 *glossolalia*(다른 방언)이다. 몇몇 현대 번역인들은 흠정역(KJV)의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문구를 “외국 방언으로 말한다”(모펫성경, Moffat), “외국어로 말한다”(군스피드성경, Goodspeed), “상이한 언어로 말한다”(필립스 성경, Phillips) 등으로 번역한다.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방언 말함을 나타내는 구절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44-47, 사도행전 19:6, 고린도전서 12-14장 등 네 군데이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방언을 말했던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 2:4)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했다.

방언 말함이란 횡설수설하는 말이 아니며, 실제적인 의미도 없이 이해할 수도 없는 무아지경 상태에서의 말이 아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번 목격자들은 그 언어들에 알아 들었다(행 2). 그 언어들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내지 천사의 언어일 수 있다(고전 13:1). 방언 말함은 단지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믿음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이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희귀한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인 것이다.

## 이사야 28:11-12

이사야는 교회에 나타날 방언의 역할을 미리 말하였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사 28:11-12).

안식과 상쾌함은 성령침례이며(행 3:19과 행 2:38) 이사야는 생소한 입술과 다른 언어가 성령침례에 동반하리라는 것을 예언했다.

어떤 이들은 이사야가 단지 외국인에 의한 이스라엘의 침략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간과하고 있다. (1)이사야는 방언을 적의 침공과 연관시킨 것이 아니라 안식과 상쾌함으로 연관시켰다. (2)베드로의 말은 이 상쾌함을 성령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3)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방언에 적용했다. “율법에 기록된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

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고전 14:21-22).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신약 교회에서 표적으로써 방언 말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사에 나오는 구절을 사용했다.

이사야 28:11-12이 이방인의 이스라엘 침략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이 구절은 즉각적인 성취(앗수르의 침략)와 먼 장래의 성취(신약 교회에서의 방언)를 담고 있다. 예언과 모형론의 이중적 성취는 성경에서 흔한 일인데 이것을 ‘이중적 언급의 법칙(law of double reference)’이라 한다. 아무튼 이사야 28:11-12은 베드로와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하여 신약 교회에서 방언 말함에 적용된 것이 분명하다.

### 마가복음 16:17

예수께서는 승천 직전에 방언 말함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약속하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막 16:17). 어떤 번역본은 “새 방언”을 “새 언어”(TAB)로 혹은 “외국 방언”(Goodspeed)으로 번역한다.

방언 말함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방언과 함께 다른 몇 가지 표적들이 열거되어 있는 16:18절을 들어 반론을 제기한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미국의 남동부 지방에 있는 몇몇 소 종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독사를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비평가들은 그 종파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언을 독사를 다루는 것과 연관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우리는 18절을 납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17절도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바른 접근은 두 구절 다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18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독사를 만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던 실례가 이 뜻을 명확하게 해 준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구약의 약속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성경의 진리와 그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릴 것을 요구했다(마 4:6).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다(마 4:7).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도록 억지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시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고난을 자초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애써 해롭게 하여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해하자면 마가복음 16:18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뜻하지 않게 독사에게 물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다. 이것은 18절의 나머지 말씀과 잘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아플 때나 우연히 독을 마셨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 바울이 우연히 무서운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는 침착하게 독사를 털어 떼어 버렸고 기적으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것이 좋은 실례가 된다(행 28:1-6).

마가복음 16:18은 또한 영적으로 적용되어 믿는 자에게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은 마귀를 뱀이라고 일컫는다. 예수님께서 칠십인의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이길 권세를 주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눅 10:19)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마가복음 16:18은 뱀에게 물려도 그 해로움에서 보호되며 영적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약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이 약속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뱀을 일부러



만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17절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18절을 믿지 않으려 해서 안된다. 이 두 구절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힘써야 한다.

마가복음 16:17에 대한 두번째의 반대 의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헬라이어 성경 필사본이 마가복음 16:9-20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본문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은연 중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아래 기술한 근거들을 들어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임을 믿는다.<sup>2</sup>

(1)이 글을 반대하는 논쟁은 근본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인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본은 명백히 잘못 첨가된 곳과 생략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두 개의 필사본은 여러 권의 외경을 담고 있으며 히브리서 9:14 다음의 구절도 누락되어 있다. 또한 마가복음 16:9-20이 들어가야 할 자리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그 사본의 연대 자체가 반드시 신빙성을 더해 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본들은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반면에 더욱 정확한 필사본들은 너무 많이 사용되어 닳고 낡아져 폐기되고 새로운 사본들이 만들어졌다.

(2)현존하는 세번째 오래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포함하여 많은 양의 중요한 사본들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3)본문은 고대 라틴어(the Old Latin)성경, 시리아 페쉬타어(Syriac Peshitta)성경, 콥트어(Coptic)성경, 고트어(Gothic)성경 등을 포함하여 많은 초기 번역본들에 나타난다.

(4)이레니우스(Irenaeus), 파피아스(papias), 저스틴(Justin), 터툴리안(Tertullian), 힌폴리투스(Hippolytus), 암브로스(Ambrose), 제롬(Jerome), 어거스틴(Augustine) 등을 포함하여 많은 초대 교회 교부들이 본문을 인용하여 언급하였다.

(5)본문은 다른 복음서의 사건들과 일치하고 있다.

(6)본문이 가르치는 교리는 다른 성경 말씀들에서 확인된다.

(7)누군가가 방언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신 유 등의 교훈을 더하여 본문을 고의로 만들었으리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을 것 같다. 교회가 이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면(방언 비평가들이 여전한 것처럼) 누가, 왜 본문을 덧붙였으며 고대 교회는 왜 본문을 용인(容認)하였는가?

(8)마가복음 16:8은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마가복음을 그럴듯하게 끝맺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과 지상 명령을 언급하시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두려움과 좌절의 깊은 곳에 방치하고 끝을 맺으셨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9)대부분의 기독교도가 성령의 교통을 상실했던 것처럼 영적 은사들이 점점 사라지자 본문에 대하여도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참으로 어떤 현대 비평가들은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내용을 거부한다.

(10)어떤 이유로 몇몇 마가복음 사본이 끝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유포되었다면 다른 사본들이 본문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요약컨대 마가복음 16:9-20을 성경에서 뺄 만한 증거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방언 말함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 오순절날

방언과 관련된 예언이 최초로 성취된 때는 오순절날이었다. 이 때

에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 120명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는데 이 무리 가운데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초자연적인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고 성령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특별한 역사를 하시고자 그 장소에 임하셨다. 불의 혀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성령이 각 사람을 충만하게 하시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의 혀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행 2:3, NIV). 모인 무리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4은 이 기적이, 성령이 말하는 자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일어난 것이지 듣는 자들을 감동시킴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신 후에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함은 각 사람이 성령침례를 받고 충만함을 얻었다는 명백한 표적이었다.

바람같은 소리나 불의 혀같은 것은 그 이후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번개와 뇌성과(雷聲) 불꽃이 동반한 것처럼(출 19:16-19) 유사한 현상들이 신약 교회가 세워지면서 최초로 성령 부어주시실 때 함께 동반하였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으므로 이러한 형식으로 다시금 성령 부어주심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바람과 불꽃과는 달리 방언 말함은 성경에서 여러번 다시 나타난다. 이것은 특별히 개인의 성령침례에 관련한 유일한 표적이기 때문에(다른 현상들은 성령이 일으킬 수 있는 표징들이다) 방언 말함은

다른 표적들에서는 볼 수 없는 충분한 중요성과 기능을 가진다.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있었다.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 많은 방문객들이 제자들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그들이 대략 14개국의 지역 출신들이므로 기록하고 있다(행 2:5-11). 이들 이방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출신 지역의 다양한 언어들 들을 수 있었고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 모든 외국 언어를 말할 수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직 이 방언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잠시 후에 베드로는 한 언어로 그들 모두에게 설교를 하였다. 이 말은 아마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아람어이었거나 국제적 통상언어(通商言語)인 헬라어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청중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는 굳이 방언의 기적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적인 표적으로써 방언을 사용하셨다. 베드로는 방언에 관한 그들의 질문과 평가를 이용하여 그의 설교를 시작했으며 이 기적은 성령 부어주심에 관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즉시로 그들에게 설명했다(행 2:14-21). 그는 설교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 2:33)고 말했다. 청중들이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방금 보고 들었기에 베드로는 그것을 약속된 성령의 증거로써 강조했던 것이다.

### 고넬료가 방언을 말함

우리는 성령을 받은 최초의 이방인의 이야기에서 분명한 방언 말함의 기록을 발견한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행 10:44-46).

베드로와 동행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이방인들이 즉시 성령을 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 이유인즉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행 15:1). 이러한 강한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들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참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들도 들었기 때문이다. 풀핏 주석에 의하면, “이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다.”<sup>3</sup> 이 기록에서 바람같은 소리나 불꽃같은 혀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오직 방언을 말하는 것만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방인들은 또한 ‘하나님을 높였는데’, 방언 혹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다. 후자의 현상(하나님을 높임)은 성령을 받은 결과였지, 회의적인 유대인들을 확신시켰던 기적적인 표적은 분명 아니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고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는지라”(행 11:15)고 말했다. 방언 말함은 사도행전 2장과 10장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표적이지만 오직 이것만으로도 이방인들이 오순절날의 체험을 받았음을 베드로에게 확신시키기에 충분했다.

## 에베소인들이 방언을 말함

에베소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

도 하고 예언도 하니”(행 19:6).

이 기사는 방언을 말하는 성령침례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임을 입증한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의 방언은 아마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각각 한번씩만 나타난 표적으로 설명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은 이 체험을 신약 교회를 위한 표준으로써 세우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여기에 방언이 나타나게 된 유일한 목적은 이들 믿는 자들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체험을 그들도 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인들에게 방언 표적을 주신 이 유가 무엇이었던 그 이유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에베소인들은 또한 성령을 받은 후 ‘예언도’ 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충고를 말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sup>4</sup> 스트롱 성경 용어 사전에서는 **예언하다**라는 동사를 “감동 가운데 말하다”로 정의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의미할 수 있고(고전 12:10), 또 기름 부음 가운데 설교하거나 찬양하거나 증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전 11:4-5; 계 19:10). 마치 오순절날 120명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했던 것처럼(행 2:11) 이 에베소인들은 방언을 하면서 분명히 예언을 했다. 가능한 것은, 그들이 방언을 말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뭏든 다음의 사실들 때문에 예언은 성령침례의 ‘결과’였을 뿐, 방언과 동일한 성령침례의 ‘표적’은 아니었다.

(1)방언은 예언에 앞서 오며 그러므로 방언은 최초의 표적이다.

(2)성령침례를 기록한 다른 기사들 어디에도 예언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은 공통적인 표적이 아니다.

(3)방언은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인 표적으로써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예언은 그렇지 않은데, 특히 믿지 않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렇다.

## 사마리아인들이 방언을 말함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에 관한 기사는 방언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령침례의 표적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세한 묘사는 부족하지만 몇 가지 확실한 표적은 나타나 있었다. 성령침례를 받을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즉시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 표적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다.

(1)기적과 기쁨과 믿음과 물침례가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다.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 모두 특별한 표적을 기대했으며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표적이 없었기에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2)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명한 표적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이 표적은 초기에 있었던 감정의 변화나 믿음의 고백이나 물침례와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은 어떤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으며 어떤 성령의 은사들도 아니었다.

(3)거기에는 마술사 시몬이 얻고 싶어 할 만큼 분명하고도 초자연적인 표적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시몬은 분명히 이 기적을 돈 주고 사서 그의 마술쇼에서 이용하고 싶어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이 기적적인 표적이 저절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을 원했다. 다시 말해 이 표적은 기쁨의 표현,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쉽게 속일 수 있는 어떤 마술, 마술사나 의심많은 관객들을 때료시킬 만한 그 어떤 것 등, 그 어느 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것이었다. 더우기 이 표적은 다른 어떤 기적에도 없었던 것이었기에 시

문을 때려시켰다.

폴핏 주석은 성령침례를 받을 때 어떤 표적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도들에 의해 성령이 주어질 때에는 어떤 표적들이 있다.”<sup>5</sup>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점들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난 증거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방언의 은사, 설교, 또는 기도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외적 표적- 가 있었다.”<sup>6</sup>

물론 오순절날의 사건에 있어서 오직 방언만이 성령침례의 외적 표적 역할을 했다. 설교나 기도가 성령침례의 표적은 아니며 그것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목격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성령침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없다.

사마리아인의 체험을 성경의 다른 기록들과 비교할 때 공통적인 기적의 표적은 방언 말함이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호크마(Hoekema)는 방언 말함이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 여전히 적용된다고는 스스로 믿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어떤 말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어떤 공공연한 증거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오순절 친구의 의견에 동의한다.”<sup>7</sup>

## 바울이 방언을 말함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성령을 받았음은 암시하지만 성령 받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본문은 방언 말함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서신서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



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했다기 때문이다(고전 14:18).

그는 방언 말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고전 12:8-10) 그 가르침으로 비추어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바울 자신도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에베소인에 관한 기사와 같이 바울의 증거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 방언이 반복될 수 없는 단지 일회적 사건이 아님을 입증한다.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방언을 말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유대인인 바울도 방언을 말했다고 그의 헌신과 사역 중에 계속해서 방언을 말했다.

##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의 비교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모두 다섯 가지의 경우들을 살펴 보았다. 세 가지 경우에는(오순절날, 고넬료, 에베소) 성령을 받은 즉시 방언을 말했다. 네번째 경우(사마리아)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분명히 초자연적이며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외적 표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방언 말함이었다는데 동의한다. 다섯번째 경우(바울)에 성경은 방언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에 바울은 그의 믿음의 삶 전반에 걸쳐 방언을 말했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성령침례의 표적으로 방언 외에 가능한 다른 어떤 표적이 있는가? 사도행전 2장은 바람같은 소리와 불의 혀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최초의 성령 부음에 앞서 나타났고 다른 사건들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사도행전 8장은 모든 영적 은사와 기적들이 표적으로 여겨지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예언이 언급되지만 방언을 말한 다음에 언급되고 있다.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 높임(찬양)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표적이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오직 방언을 말하는 것만이 성령이 주어진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도 유일한 표적으로 인정된

다는 점이다. 다음의 도표는 비교한 것을 요약하고 있다.

### 성령침례와 방언

오순절	사마리아	바울	고넬료	에베소
●바람같은 소리 (방 안에 가득함)	●초자연적이고 공공연한 표적(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방언임)	●나타나 있지 않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자주 방언을 말함	●방언을 말함 ●하나님을 높임(찬양)	●방언을 말함 ●예언(아마 감동받은 찬양이나 간증)
●불의 혀(각 사람 위에 임함)				
●방언말함(개 개인이 충만할 때)				

방언 말함은 한 가지 기록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외적 표식이며 개개인이 성령침례를 받는 실제적인 순간에 발생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방언 말함은 성령의 선물(침례)을 받았다는 초기의 표적(증거)임이 분명하다.

### 참고 가능한 다른 구절들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任意)로 불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방언을 염두에 두셨을 것이다 (요 3:8). 적어도 방언 말함은 처음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한 로마서 8:16절 말씀을 실현한다. 또한 바울이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일부라고 썼을 때 아마 그의 마음 속에 방언 말함이 곧 주를 시인하는 한 요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롬 10:9-10). 왜냐하면

아무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2:3).

## 방언은 필수적인가?

분명한 것은 방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성령침례와 방언의 관계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와 흡사하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은 항상 진정한 믿음에 수반된다. 이처럼 방언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성령침례의 첫 표적은 방언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방언은 항상 성령침례에 동반하는가? 사도행전은 그러하다고 지적하며 개인의 충만함과 연관된 초기의 표적으로써 방언 외에 어떠한 것도 기록하지 않는다. 방언이 없는 성령침례는 비성경적인 개념이다. 성경은 이런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 성령침례를 받을 때 항상 방언을 말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

## 방언을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은 성령침례의 표적으로 방언을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그가 행하실 것들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은 종종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고 어리석고 멸시받는 것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다(고전 1:25-29). 죄사함을 받기 위해 물침례를 받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등은 그 예라 하겠다.

하나님께서 방언 말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인간과 더불어 그의 언약과 그 언약 아래서 약속된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 물리적인 표적을 외적으로

로 사용해 오셨다. 그 예로써 노아에게 보이신 무지개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가 있다.

방언은 사람이 구원의 실제적인 표적을 만들려고 무모하고도 비신양적인 연구에 의해 낱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스스로 교회를 위하여 방언을 창안(創案)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계획을 받아들인다. 방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있어서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믿음의 확증을 위해 방언을 주셨다(막 16:17).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침례의 초기 표적으로써 방언을 선택하신 몇 가지 이유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 혀는 몸에서 통제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체인 것 같다. 작은 지체이지만 온 몸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더럽힐 수 있다(약 3:2-6).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 3:8). 만약 사람이 그의 혀를 통제할 수 없다면 그가 믿는 신앙은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자신의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다(약 1:26; 3:2). 누구든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하는데 그가 굴복시킬 마지막 지체는 혀이다. 혀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지체를 사용하여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완전히 주장하시어 그의 주 되심을 증거하신다. 너가 언어를 통제하듯이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과 이성과 의지의 중심 -즉 그 사람의 모든 것- 을 주관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2) 방언 말함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다. 홍수 이후로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막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고자 그들에게 하나의 구음(口音) 대신 많은 언어를 주셨다(창 11:1-9). 오순절날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역으로 바꾸어

여러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을 취하셔서 방언을 표적으로써 그들을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연합 시키셨다. 교회는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의 백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이들은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이다. 방언 말함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하는 새로운 언어가 된다.

(3) 방언 말함은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며 어떤 상황하에서도 나타나서 명확한 표적이다. 사람들의 국적과 언어와 지역에 상관없이 그들에게서 방언 말함이 있을 때, 그것이 일상적인 언어인지 방언을 말하는 것인지 인식할 수 있다.

(4) 어떤 분명한 시간에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침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방언 말함은 성령 체험의 확신을 준다.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초기 증거인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자각할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은 이 입증할 만한 방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그 신자들은 구원을 논하기에는 불분명한 증거들을 애써 믿고 있다. 어떤 개신교 저자는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체험으로는 언젠가는 구원을 확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오래 지속된다...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계속해서 제단에 나아가 엎드려지만 여전히 확신을 얻지 못하고 떠나고 만다”<sup>8</sup> 라고 말했다. 이 저자는 또한 “어떤 기독교인은 비록 지식적으로는 ‘구원받았다’ 라고 알고 있지만 속으로 느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일지 모른다”라고 말했다.<sup>9</sup>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가 주와 구세주로서 자신의 생명 속에 들어오시기를 구했다면 그는 모든 느낌을 무시하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구원이 인간의 느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특히 우리의 체험이 성경의

실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개신교 저술가가 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위와 같은 지나치게 간소화 된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에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단지 역사적으로 실재하신 예수를 믿지만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당신에게 의심이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당신이 회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뜻하는지도 모른다.”<sup>10</sup>

어떤 한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다른 조건없이 영원한 구원을 보증 받는다고 가르치던 영향력 있는 한 신자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교회에서는 그가 진정한 회심없이 신앙 생활을 했다고 말할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자신의 회심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위에 인용된 저자는 자주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한 때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서도 이후에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차적인 경험을 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가 확인한 것은 대략 20%정도가 이 범주에 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교회들 대부분의 현실일 것이다. 우리의 신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의심에 사로잡혀 자신은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했다고 단정해 버린다. 이것이 당신의 진실일 것이다.”<sup>11</sup> 그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이렇다. “죄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구하고 그를 믿으라.”

이 가르침은 참 훌륭하지만 단지 지식적으로만이 아닌 영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모두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다. 즉 성경 말씀을 따라 죄를 회개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 방언이 성령의 영속(永續)적인 임재의 증거는 아니다

방언 말함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초기의 표적이지만 그 자체가 성령이 영구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령의 열매와 같이 성령의 영속적인 임재를 말하는 더욱 중요한 증거가 있다(갈 5:22-23). 특히 사랑은 진정한 제자도를 입증하는 궁극적인 시금석(試金石)이다(요 13:34-35).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요일 2:3-5; 롬 8:4, 14). 이러한 특징들이 없다면 방언 말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나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

성령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단지 그가 그 특별한 은사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순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잘못된 교리를 믿거나 죄를 짓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생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교훈을 준수해야 하며 그 가르침에 복종하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가 특정한 말씀에 관해서는 순종하지 못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주시며, 위선자가 설교하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마 7:21-27).

로마서 11:29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다. 비록 이 구절이 다른 문맥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마 일반적인 적용을 원칙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일단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그는 결코 그 은사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개종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은사를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타락한 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그 은사를 그대로 두시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도 않은데 성령을 받은 후 계속 방언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인간이 마음으로는 영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이에 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을 방언을 하는 이의 머리 속에 기억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말을 지시하시지만 뇌세포와 신경과 후두(喉頭)와 입과 혀를 포함하여 사람의 육체의 기관을 사용하여 방언을 하도록 하신다. 뇌는 여러 정보를 기억하므로 이러한 말들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새로운 말을 주시거나 기억 속에 들어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이것으로써 설명이 될 것이다.

어떤 때는 뇌가 이 기억된 말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잠재의식 속에서 ‘배울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 해도 그 사람이 한 번 성령에 의해 주어졌던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 없이도 혹은 성령이 그들을 떠나신 후에도 자신의 의지대로 방언을 말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덧붙여 우리는 인간이 그릇된 방언의 모방과 심지어 사단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看過)해서는 안된다. 사단은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려 든다(출 7:10-12; 계 13:2 11-



15). 어떤 불신자나 배교자들이 사단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인간의 영이나 마귀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방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주어진 성경적인 방언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침해할 수는 없다.

### 성령침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언을 하는가?

성령은 초기 성령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말한 이후에도 방언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계속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령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처음의 체험 이후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고 반드시 신령하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아마 이전에 앞서 체험한 것을 상기시키며 확신케 하는 역할을 제외한다면 방언 말함은 더이상 증거할 만한 역할은 하지 못한다. 물론 바울은 자주 방언을 말했으며(고전 14:18)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방언을 한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 유익한 은사 중 하나이다(고전 12:8-10). 고린도전서 12:30은 본래적 의미가 대중 설교를 언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근거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성령은 충만하지만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지는 못하는 경우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처음 성령을 체험할 때 했던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순종한다면 다시금 방언을 할 수 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사용하기를 바라신다고 믿는다. 이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疏遠)해졌음을 나타낸다. 방언의 은사는 인내와 믿음과 더불어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성령 충만한 신자들에게 유용한 것이

다(마 7:7-11; 21:22; 요 14:12-14; 고전 12:31).

## 방언의 은사

바울은 고린도전서 12-14장에서 방언의 은사를 논하였다. 그는 모두가 이미 성령침례를 받고 방언을 체험한 적이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 글을 썼다(고전 1:2; 12:13). 그가 목적인 바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도하고자 한 것인데 특히 공중 집회에서의 방언의 은사 사용에 대하여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이 세 장은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을 논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들을 요약해 보자.

## 고린도전서 12장

1절: 바울의 목적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2절: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회심하기 전에는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였다.

3절: 성령은 항상 예수를 높인다.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이 주(主)이심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실제로 예수님을 그의 생명의 주로서 모실 수 없다.

4-11절: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만 모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바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함,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등 아홉 가지 은사를 열거하였다.

12-27절: 거듭난 신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28-30절: 하나님은 몸의 다양한 지체들에게 서로 다른 기능들을

부여하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부여하신 아홉 가지의 직임들과 은사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miracle),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을 열거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공적인 직임과 공개적인 은사들을 갖은 것은 아니다.

31절: 우리는 진심으로 가장 좋은 은사들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성령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그 방언의 출처가 인간의 말이든 천사의 말이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세상에 완전한 것이 올 때 폐하여 지겠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위대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하지만 또한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하는데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한다.

2-4절: 방언 말함은 방언하는 자의 덕성(德性)을 기르지만(덕을 세우고 유익을 준다), 예언(모든 사람이 아는 언어로써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은 다른 모든 사람(교회)의 덕을 세운다.

5절: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방언 말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예언하기를 더욱 원했다. 교회(신자들의 공중 집회)에서는 만일 방언이 통역되지 않는다면 그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

6-11절: 통역이 없다면 공개적인 방언의 메시지는 교회 전체에게 유익이 없다.

12-14절: 우리는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 특별히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방언을 한다면 우리는 통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15-19절: 바울은 개인적으로 영(즉,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미했으며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와 찬미를 하였다.

공개적인 대표 기도자는 경청하는 사람들이 알아 듣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 바울 개인적으로는 어떤 고린도 교인들보다도 많이 방언을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아는 언어로 말했다.

20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신자로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21-22절: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반면에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바꿔 말하면 방언은 관심을 일으키고 믿음을 고취시켜 주겠지만 그런 후에는 알아 듣는 언어로 바로 가르쳐야 한다.

23-25절: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비록 방언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모든 예배를 방언하는데 할애(割愛)해 버린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다.

26-31절: 공중 집회에 대한 결론이다. 보통의 교회 집회에서는 찬송시(psalms)(노래)와 가르치는 말씀(doctrine)과 방언과 계시(모두가 아는 말로 전하는 영적 진리의 말씀)와 방언 통역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은 이렇다.

(1) 공개적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둘 내지 적어도 셋은 나오도록

하라.

(2)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방언하지 말고 차서(次序)를 따라 하도록 하라.

(3) 누군가가 각각의 메시지를 통역하도록 하라.

(4)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공개적인 방언은 멈춰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조용히 방언할 수 있다.

(5) 적어도 둘 내지 셋의 예언이 나오도록 하라.

(6) 듣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

(7) 순서대로 예언하라.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다.

32-33절: 예언의 은사는 예언하는 사람에게 제재(制裁)를 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은사가 교회에서 질서있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34-35절: 여자들은 시끄럽게 의문을 제기하여 교회 예배를 어지럽혀서는 안되며 집에 가서 그들의 남편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물론 여자도 교회에서 예언할 수 있다. 고전 11:5-6과 14:31).

36-38절: 이러한 지침들이 하나님께서 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라.

39절: 모든 사람은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하며 아무도 방언 말함을 금해서는 안된다.

40절: 우리는 모든 것을 적당히 그리고 질서있게 해야 한다.

## 고린도전서 12-14장에 대한 결론

(1) 방언 말함은 신약 교회의 일반적인 일이었다. 바울은 방언을 했으며 다른 신자들도 자기와 같이 방언하기를 원했고 올바른 방언의 사용을 위한 가르침도 제시하면서 교회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2)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방언 말함은 사도행전과 동일한 현상이

다. 두 곳 모두 동일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사람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실제 언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떠드는, 알아 들을 수도 없고 뜻도 모르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전 13:1).

(3)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 말함은 성령침례를 받을 때 처음 나타나는 표적이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이 두 가지의 부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특히 방언 말함은 개인 경건에 있어서 개인의 덕을 세우며 방언이 통역될 때 전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4) 공중 앞에서의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거의 유익을 줄 수 없다.

(5) 방언은 개인 경건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 방언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참으로 성경적인 방언 말함은 오직 성령이 그 말을 주실 때 나타난다(행 2:4). 그러므로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단지 방언을 하기 위해 간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방언이 표증이라는 사실을 전혀 혹은 거의 모르더라도 상관없이 성령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된다.

물론 방언을 말하는 현상에 친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간구하는 사람을 격려하여 안심시키고 전적으로 성령께 복종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방언 말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모호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지어내어 반복하도록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일이다. 이런 일은 성령의 충만함없이 단지 방언을 흉내내기만을 구하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없이 하는 '방언'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절거림에 불과하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방언에 집

착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집중해야 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의 생활 속에서 항상 방언을 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 받아야 한다. 그러나 또한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전 12:28-30). 방언을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와 그 은사까지도 겸비할 수 있을 것이다.

## 반대 이론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 말함을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개신교의 신학 교수 안토니 호크마의 저서 ‘방언 연구’<sup>12</sup>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설명한 글이다.

(1)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회심한 이후 성령침례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 반대 이론은 (성령침례를 구원과는 별개의 이차적인 체험으로 여기는)여타의 많은 ‘오순절’ 교파에게 적용되지만 이 책(신생)에 있는 교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령침례는 회심의 일부이며 방언은 항상 성령침례에 동반되기 때문이다.

(2) “오순절주의(Pentecostalism)는 그리스도를 성령에 종속시키는 비성경적 주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건대, 이 이론은 해당 사항이 없다. 우리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믿으며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침례의 교리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를 높인다.

(3) “오순절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침례를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이 이론 역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성령침례는 회심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지 진정한 사도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그 밖의 사람들을 구분할 뿐이다.

(4)“오순절주의는 1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기간의 교회가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제11장은 방언 말합이 교회사에 걸쳐 존재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여하튼 역사와 전통이 성경을 반대할 수 없다. 인간의 죄악과 배교와 오류와 무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변질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뒤이어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바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모든 오순절주의는 수세기 동안 교회가 복음의 여러 핵심적인 진리들을 버렸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5)“영적인 축복은 육체적인 현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시면 이 주장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성령침례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표적을 나타내셨다. 성경은 방언 말합을 성령침례의 증거(행 10:46)와 ‘표적’(고전 14:22)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종종 영적인 역사에 동반하는 육체적인 표적을 선택하신다. 물침례는 영적인 축복(죄사함)과 물침례에 꼭 필요한 육체적 표현(외적 의식)으로 구성된다. 영적인 축복과 육체적 표현이 결합된 예는 기도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과, 성직 수여와, 주의 만찬과, 거룩한 생활과, 재림 등이다. 성령침례의 장기적인 증거는 성령의 열매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육체적인 표적을 대신할 수는 없다.

(6)“기적이 오늘날 교회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증명될 수 없다.” 이 반대 이론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음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 기적은 오늘날도 존재한다



오늘날 방언을 반대하는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본서 제8장에서 성령침례가 오늘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입증했으므로 논리적으로 방언 역시 오늘날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기적, 특히 방언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다양한 주장들을 각각 분석하였다.

(1)“기적은 단지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와 고넬료, 에베소인 등을 들어 이 글을 쉽게 논박(論駁)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방언을 말했다. 스테반과 빌립도 12제자 중에 들지 않지만 그들 또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행 6:8; 8:6-7).

(2)“오직 사도들 내지 그들에 의해(안수에 의해) 위임받은 사람들만이 기적을 행하거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었다.” 위의 반증을 설명하기 위해 수정된 이 이론 역시 잘못되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은 시력을 회복했지만(행 9:17-18) 아나니아가 열 두 사도에게서 특별 위임을 받았다고 지시하는 바는 어디에도 없다. 바울과 바나바는 열 두 사도 중에도 들지 않았으며 그들에 의해 위임받은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행 14:3).

신약 성경은 어떤 제한이나 차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기적(능력)을 약속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하며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리라고 약속하셨다(막 16:17-18). 모든 믿는 자는 기적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마 21:22; 막 11:22-24; 요 14:12-14; 15:7). 지역 장로들은 성도의 신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다(약 5:14-16). 기적과 방언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고전 12:8-10, 28).

(3)“기적은 단지 사도 시대만을 위한 것이었다.” 위에 인용된 말씀을 볼 때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시간적인 제한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각 말씀들은 시대적인 제

한없이 모든 믿는 자와 온 교회에게 주어졌다. 바울은 당대의 모든 교회에게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했다(고전 1:2).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전 1:7). 고린도전서는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각종 방언 말함 등 성령의 은사를 논하고 있으며(고전 12:8-10), 바울은 분명히 교회가 모든 영적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보유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기대했다.

모든 사람은 지상명령이 오늘날 교회에도 해당되며 성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초대 교회는 그 명령을 성취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20),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히 2:4). 우리가 초대교회와 동일한 주, 동일한 명령,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동일한 세상을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동일한 메시지와 함께 그 메시지를 확신케 하는 동일한 표적들을 갖게 될 것이다.

## 방언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3:8-10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들어 ‘온전한 것’을 완성된 ‘신약성경’과 동일시하므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그와 함께 방언이 폐하여졌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 주장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되었다.

(1)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때까지 교회 안에 존재할 것이다(고전 1:2 7).

(2)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혹은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온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텔레이온(*teleion*)인데, 이는 중성 단수이다. 이 단어는 ‘성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의미하는 경우로 쓰일 때에는 언제나 여성 복수형으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3)8절과 같이 방언은 예언과 지식 등과 함께 폐하여질 것이다. 예언은 성령에 감동된 설교와 찬양과 증거 등을 말한다. 교회에는 분명히 지금도 예언과 지식이 존재하고 있다.

(4)성경은 기적과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문서로 기록된 형태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 여전히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은사 등을 사용하신다(막 16:20; 히 2:4).

(5)고린도전서 13:11-13에서 바울은 영적 성장의 단계를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 비유하였지만 방언을 어린 아이와 같은 것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지식과 비교하였다. 우리가 이미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바울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방언 말함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라면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을 말했기 때문에 결코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전 14:18).

(6)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세상 또한 완전하지 못하다. 온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올 것이다.

(7)신약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을 멈춰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요한이 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글

을 썼을 때 모든 방언이 갑자기 폐하여졌는가? 모든 사람이 처음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었을 때 방언 말하기를 중단했는가?

## 방언없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다섯 가지의 성령침례에 관한 기사들을 분석했고 매 경우마다 방언이 나타났음을 알았다. 많은 다른 본문들에서는 믿는 자들이 방언을 언급함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성령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최초 성령침례 후의 모든 체험에 반드시 방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사도 행전에서 어떤 회심의 기사는 분명히 방언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도행전의 전개 방식은 몇 가지 대표적인 회심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다른 기록들은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다.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내용은 방언을 언급하는데 상세하게 기술된 이들 기사들은 다른 일반적인 기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역으로 일반적인 기사들이 세 가지의 중요 기사를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주장도 이 분명한 증거들을 뒤집거나 제거할 수 없다.

물론 방언 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다. 방언은 단지 성령침례에 동반할 뿐 성령침례와 분리해서는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성경은 믿고 성령을 받는데 더 강조를 두기 때문에 지나치게 방언을 강조하지 않지만 그래도 방언을 기대할 만큼은 충분히 깨닫게 해준다.

틴데일 신약 주석에서는 고넬료의 회심(행 10:45-46)에서 나타난 방언을 말함에 대해 논하면서 상당히 비오순절적인 내용을 허용한다.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의 은사가 필연적으로 동반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sup>13</sup> 바뀐 말하면, 그들은 성경적인 증거로써 방언이 사도 교회에서 성령 부어주심이 있을 때마다 동반되었다는 것

을 인정하지만 두 가지 사실을 들어 이러한 결론을 회피하려 든다.

(1) 사도행전에서 방언 말함은 그다지 자주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첫번째 근거는 성경이 방언 말함에 관해서나 방언 말함 그 자체는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성령침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로써 설명될 수 있다. 두번째 근거에 관해서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체험했던) 초기 성령침례에 동반하는 방언을 논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그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성령침례 이후에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집회 때 공개적으로 방언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다고 말했다.

## 결 론

플랫 주석에서 우리와 일치하는 점은,

(1) 방언 말함은 말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외국 언어로서 초자연적인 말을 의미한다.

(2) 선교를 목적으로 습득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아니다.

(3) 방언 말함은 실제의 언어이며 의미없이 횡설수설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4) 천상의 혹은 인간의 언어일 수 있다.

(5) 고린도에서 있었던 방언 말함은 실제적인 언어를 말한 것이었다.

(6) 방언 말함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상징한다.<sup>14</sup>

결론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신약 교회에서 지니는 기능은 이러하다.

(1) 방언 말함은 성령침례의 최초 표적이다(행 2:4; 10:46; 19:6).

이것은 “방언의 은사”와는 용도(用度)면에서 구별되는데,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신자에게 회심에 이어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2)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적이든지 회중을 위한 것이든지) 개인 경건의 삶 속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전 12:8-10; 14:1-5, 12-13, 27-28).

(3)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공개적인 방언과 통역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한 덕을 세우게 된다(고전 12:8-10, 28-30; 14:5, 12-13, 27-28).

우리가 방언 말함이 무엇이며 무슨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인지를 이해한다면 그 주제에 대한 모든 성경적 가르침을 정확하게 깨닫고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 방언 말함은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개인의 경건과 공중 집회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신앙 체험의 일부이다.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처음 성령을 받고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을 모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방언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각 주

<sup>1</sup> Vine, p. 1165.

<sup>2</sup> Norman Geisler and William Nix,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Bible*(Chicago: Moody Press, 1968), pp. 270-74, 372; David Otis Fuller, ed., *Which Bible?*(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75), pp. 168-69. For further discussion, see David Otis Fuller, ed., *Counterfeit or Genuine? Mark 16? John 8?*(Grand Rapids: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1975).

<sup>3</sup> *The Pulpit Commentary*, XVIII(Acts), 336.

<sup>4</sup> Vine, p. 903.

<sup>5</sup> *The Pulpit Commentary*, XVIII(Acts), 279-80.

<sup>6</sup> *Ibid.*

<sup>7</sup> Hoekema, *What About Tongues Speaking?*, p. 70.

<sup>8</sup> Charles Solomon, "Counselor's Corner," *Fulness*, November-December 1980, pp. 30-31.

<sup>9</sup> *Ibid.*

<sup>10</sup> James Eaves, "Steps to Blessed Assurance," *Fulness*, November-December 1980, p. 12.

<sup>11</sup> *Ibid.*

<sup>12</sup> Hoekema, *What About Tongues Speaking?*, pp. 103-23.

<sup>13</sup> I. Howard Marshall,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V of *Th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p. 194.

<sup>14</sup> *The Pulpit Commentary*, XVIII(Acts), pp. 48-50.

## 제 10 장

# 교회사 속에서의 증거: 침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히 12:1).

모든 교리는 오직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인간의 전통이나 신조나 철학에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갈 1:8-9; 골 2:8; 딤후 3:16-17), 우리는 이 책에서 성경에 기초하여 모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준 교리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러한 교리들을 현대에 와서 고안(考案)해낸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역사가 성경의 진리를 변경시키거나 대체할 수 없었지만 교회사 속에서 이 교리를 연구한 사실은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다.

### 교회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 (1)교회 역사가들의 교리적 성향(性向).

현대의 사가(史家)들은 종종 자신들의 신념에 준하여 고대 저자(著者)들의 진술들에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교훈들을 해석해 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사가들의 교리적 입장이 전에 실재했던 교리를 이해하는데 제한을 주기도 한다.

## (2)고대 교회 저자들의 교리적 성향.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고대 저자들은 때때로 교리적인 면에서 자신들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왜곡하거나 잘못 전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분명한 고대의 교리적 관점을 올바르게 나타낸 자료들, 특히 소수의 견해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쉽게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 만약에 미래의 세대들이 오직 삼위일체론자들에 의해 쓰여진 자료들에서만 정보를 얻는다면 그들은 유일신론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갖겠는가? 이와 같이 의심많은 관찰자들은 유일신 신봉자들에 관해 기록할 때 그들을 우습고, 불합리하며, 무지하고,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나타내곤 하였다.

또 한 예로써 누군가 오직 오순절에 대해 냉소적인 반대론자의 글만을 읽었다면 그는 오순절 신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3)변조(變造)의 가능성(고대 필사본에 다른 내용을 첨가).

교회사에 관하여 우리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원본이 쓰여진 후 수백년 동안 필사(筆寫)된 필사본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 경우에 필사자들은 특정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특정한 문구를 변조하거나 삽입하였다. 예를 들자면 속사도 시대의 지도자들이 쓴 많은 서신서들은 내용이 짧은 번역본과 긴 번역본으로 존재하고 있다. 분명히 한 가지 형태는(아마 긴 것일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편집자들과 필사자들에 의해 개악(改惡)되고 변조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써, 디다케(Didache)라고 불리는 고대 기독교 저서는 분명히 2세기 경에 쓰여졌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헬라어 필사본은 1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실수와 고의적인 변조가 900년 이상

계속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가 변조되어 로마 카톨릭 교리로부터 나온 교훈들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4) 현존하는 문서들이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신자들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고, 직접 손으로 써서 책이 만들어져야 했던 시대에는 신학적인 문서들이 오직 교육을 받은 엘리트에 의해 쓰여지고 필사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학자들은 당시 대다수의 신자들보다도 그들 교리에 있어서 빈번하게 좀 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5) 역사는 정복자에 의해 쓰여진다. 그 당시 널리 알려져서 채택된 교리들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충분히 기록한 글을 남길 만한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그들이 기록했던 문서들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다시는 씌여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현재 잔존한 소수의 교리적 증거를 통하여 그러한 교리가 당시에 널리 우세했던 교리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자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들은 그 신앙을 실제로 지켰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6) 거짓 교리는 교회 초기 당시부터 존재했었다. 바울과 베드로, 요한, 유다의 글에서도 거짓 교리가 사도 시대에서도 만연해 있었으며 교회를 해칠 만큼 위협적이었다고 하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 때문에 글들의 저자가 단지 고대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교리가 성경적으로 순수하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다.

## 회개와 물침례

초기 속사도 시대의(A.D. 90-140) 교회 지도자들은 침례가 오직 믿는 자만을 위한 것이며 회개는 침례가 그 효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가르쳤다. 루터파의 교수인 오토 하이크(Otto Heik)는 이

렇게 진술한다. “침례 역시 신비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뜻은 없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sup>1</sup> 루터파 교수인 클롯쉐(E. H. Klotsche)는 이 당시에 있었던 믿음에 대해 “침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회개다. 이것은 침례를 받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이다.”<sup>2</sup> 라고 말한다. 그러나 유아 세례가 용인되기 시작했을 때 신학자들은 믿음과 회개가 침례 다음에 올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告解聖事)가 되었다. “원래 회개 다음에 침례를 행한 것이 유아 세례를 행함으로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버렸을 때 고해(penance)는… 하나의 성례전(sacrament)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sup>3</sup>

### 침수에 의한 물침례

교회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초기 속사도 시대의 교회는 침수세례(浸水洗禮)를 행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클롯쉐(Klotsche)는 “침수 세례를 행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초대 교회 당시에는 보편적이었다.”<sup>4</sup> 라고 말했다. 케넛 스콧 레이토릿(Kenneth Scott Latourette)은 이러한 관점을 확인하였다. “침례는 침수에 의해 행해졌던 것 같으며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었다”<sup>5</sup> 어떤 역사가자들은 다른 방식도 당시에 행해졌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식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조차도 침수 방식이 가장 우세하고 선호했던 방식이었다는데 동의한다.

헤르메스(Hermas: 2세기 초)는 침수에 의한 침례를 기술했고 이레니우스(Irenaeus: - 202?)는 물을 붓는 세례를 비난하였다. 터툴리안(Tertullian: - 220?)은 침수에 의한 침례를 가르쳤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씨프리아(Cyprian: - 258?)은 물을 뿌리는 것을 주장한 최초의 변증가이지만 그조차도 침수가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침례는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병자를 위

해 물을 뿌리는 것을 조언했다. 디다케(Didache)에서는 침수에 의한 침례를 가르치지만 만약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라면 물을 붓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거룩한 사도의 법(The Constitution of the Holy Apostles: 2~3세기)은 디다케와 비슷한 구절을 담고 있는데, 침수세례는 가르치지만 물을 붓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동방 정교회(The Eastern Orthodox)는 서방에 있는 그들의 반대 세력인 로마 카톨릭이 침수를 물을 뿌리는 것으로 바꾼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아에게까지도 여전히 침수 세례를 베풀고 있다.<sup>7</sup> 비록 대부분의 초기 개신교 지도자들은 침수 세례가 성경적인 방법임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신교들은 계속해서 카톨릭의 전통 그대로 행하고 있다. 마틴 루터는 헬라이어 밭토(*bapto*)에 근거한 침수 방식에 우선권을 두었으며 존 칼빈은 침수 방식이 초대 교회의 관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로마서 6:3-5을 침수 세례로 해석했다.<sup>8</sup>

## 구원의 필수 부분으로써의 물침례

초기 속사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구원의 일부로 확신했다. 레이토릿은, “침례는 침례 받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씻는다고 믿었다. 침례를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해서는 안되었다.”<sup>9</sup> 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침례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신생(新生)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져 왔던 것 같다”고 했다.<sup>10</sup>

1세기와 2세기의 침례에 관하여 종교와 윤리 백과 사전(the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은 “지배적인 사상은 죄의 용서와 거듭남과 성령의 은사 등이었다... 침례가 가져오는 변화는 ‘이름’과 물에서 나타났는데, 이 물은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단지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sup>11</sup> 고 설명하고 있다. 하

이크(Heik)에 따르면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post-apostolic fathers: A.D. 90-140)은 “침례는 죄 사함을 준다”<sup>12</sup>라고 가르쳤다. 예로써 이것은 바나바 서신(the Epistle of Barnabas)과 헤르메스의 목자(the Shepherd of Hermas)에서 나타나는 가르침이었다. 헬라 변증가들(A.D. 130-180)에게도 침례는 ‘용서와 거듭남을 위한 씻음’<sup>13</sup>이었다. 그들은 “침례는 용서와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므로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다”<sup>14</sup>라고 말했다.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고 가르쳤던 다른 초기 신학자들은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이레니우스(Irenaeus), 오리겐(Origen), 터툴리안(Tertullian), 어거스틴(Augustine) 등이었다.<sup>15</sup>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씨프리아 등은 특히 물침례를 요한복음 3:5에 나오는 물로 거듭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히폴리투스와 씨프리아는 물침례를 디도서 3:5에 있는 중생의 씻음(the laver of regeneration)과 동일시하였다. 거룩한 사도의 법(the Constitutions of the Holy Apostles)은 요한복음 3:5을 “물과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sup>16</sup>라고 의역하고 있다.

터툴리안은 침례를 받을 때 신자는 그의 죄를 씻게 되고 물로 거듭나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진다고 가르쳤다.<sup>17</sup> 그는 요한의 침례가 미래의 죄사함을 가리킨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기간 동안에 요한의 침례를 계속해서 베풀었다고 믿었다. 터툴리안은 요한복음 3:5이 “믿음을 침례의 필수성과 관련지어 놓았다”고 설명하면서 침례를 구원에 필수적인 믿음의 징표라고 기술했다.

이 인물들과 글들은 여러 가지 신학적 분파를 대표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모든 교리들을 채택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침례의 필수성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이다. 3세기에 있었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단적인 침례에 대한

논쟁은 당시의 모든 기독교도가 “오직 하나의 침례만 있으며 이 침례는 구원에 필수적이다”<sup>18</sup> 는데 동의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 항상 침례의 본질을 가르쳐 왔지만 개인의 믿음과 회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르침으로 침례의 본질을 믿음의 행위에서 성례전(聖禮典)의 행위로 변질시켜 버렸다. 그들은 거듭남(중생)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가 아닌 의식(儀式) 자체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그릇된 견해를 가졌었다.

개신교도들 중 마틴 루터는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sup>19</sup> 아우크스부르크 신조(the Augsburg Confession:역지주-1530년 루터와 멜란히톤(Melanchthon)이 공동으로 기초하여 Augsburg의 의회에 제출한 신교의 신조:초기 루터교 신조)의 제 9항은 “침례는 구원에 필수적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sup>20</sup>

루터교의 교리 문답에는 “침례는 사소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며… 침례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장 엄숙하게 명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1</sup> 루터가 강조한 믿음에 의한 칭의에 따르면 침례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유효하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물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터도 하나님께서 유아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이론을 근거로 유아세례의 적법성을 가르쳤다. 판단하건데 루터가 유아의 믿음과 유아세례를 가르친 것은 옳지 못했지만 믿음에 의한 칭의와 물침례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확신한 것은 옳았다.

루터 이후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은 침례는 단지 상징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견해는 오히려 교회사 속에서 상당히 새로운 교리이며 모든 개신교도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 외에도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es of Christ)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연합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의 신학자인 도날드

블로에쉬(Donald Bloesch)는 “침례는 우리의 개종에 있어서 탁월한 역할을 하며 단지 개종의 상징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신약의 전반적인 증거로 볼 때 침례 그 자체가 구원에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일 수 있지만 회개와 믿음이 결합된 침례는 중생의 선물을 얻는 수단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sup>23</sup>

### 최초의 식문(式文)

초기 속사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식문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침례를 베풀었다. 하이크에 따르면 “처음에는 침례가 예수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점차 삼위일체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뀌었다.”<sup>24</sup> 그는 저스틴의 저서(간단하게 연구해 볼 것이다)에 있는 글에서 약 AD. 130-140년 사이에 삼위일체의 침례 식문이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sup>25</sup>

종교와 윤리 백과사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형태는 단순한 물에서의... 침수 세례와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안수였다. 이 형태에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시대와 장소 등에서 (a) 삼위일체 이름(저스틴), (b)도덕적인 서약(신약의 베드로전서, 저스틴과 흑, 헤르메스), (c)삼중 침수 세례(저스틴), (d)믿음의 고백(이레니우스, 혹은 저스틴), (e)성유(聖油)(터틀리안), (f)대부모(sponsors)(터틀리안), (g)우유와 꿀(터틀리안) 등이 덧붙여졌다”고 설명한다.<sup>26</sup>

식문은 더욱 발전되어 간다. “이름과 관련하여 식문의 의문이 제기된다. 최초의 알려진 식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나 또는 어떤 유사한 문구였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며 아마 헤르메스에 의해 여전히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순교자 저스틴 시대에서 삼위일체 식문이 일반화 되었다. 더 오래된 식문은 고립된 집단에서 잔존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현재 없다.”<sup>27</sup>

## 1세기와 2세기

헤스팅스의 성경 사전은 역사적 증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한다.

“원래의 용어의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또는 ‘주 예수’였다. 삼위일체의 이름 안으로 행하는 침례는 후에 발전한 것이었다. 마태복음 28:19에서 삼위일체의 식문이 한번 언급된 이후에는 순교자 저스틴 때까지 다시 그 식문을 찾을 수 없으며 그의 식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식문과 동일하지 않다.”<sup>28</sup>

성경 사전에서는 삼위일체론자들이 전통적인 관행(침례)을 따랐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이름의 사용에 관하여 주어진 두 가지 설명 중에 하나가 더 선호되었다.

(1)삼위일체에서 한 위(位=person)의 이름으로 행하는 침례는 완전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행하는 침례이므로 역시 유효하다. (이 설명은 원래의 식문이 실제로는 ‘예수 이름’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2)‘예수 이름으로’라는 문구는 식문의 의미가 아니라 단지 침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만 나타낼 뿐이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동일하게 마태복음 28:19에 적용되는 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침례를 위해 어떤 식문도 우리에게 남기지를 않는다)

우리가 인용한 이 자료에 덧붙여 대부분의 다른 교회 역사가들은 예수 이름의 침례가 더 오래된 식문이었다는데 동의한다. 더욱 자세한 인용은 각주에 실려 있다.<sup>29</sup>

2세기 초의 헤르메스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에 관하여 글을 썼다.<sup>30</sup> 그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침례가 생활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마술적인 식문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덕행이 결여되면 효과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sup>31</sup> 그는 기록하기를 “만약 당신



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sup>32</sup>

또다른 2세기의 기독교 문서인 디다케에서는 ‘주의 이름 안으로’ 베푸는 침례를 말하고 있지만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베푸는 침례를 말하기도 한다.<sup>33</sup>

어떤 이들은 디다케가 두 가지 식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결론 짓는다. 그러나 우리는 원문을 수정해 넣었을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디다케의 기록 연대를 AD. 120년에서 200년으로 다양하게 추정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현존하는 헬라어 필사본은 1056년의 것이기 때문이다.<sup>34</sup> 더우기 디다케는 침수 세례와, 침례 전 금식, 3중 침수 세례, 그리고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물을 붓는 것과 관련된 비성경적 관행도 가르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150년에 쓰여진 순교자 저스틴의 첫번째 변증(First Apology)은 삼위일체 식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침례에 사용된 위격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시며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받기 때문이다”<sup>35</sup>

우리는 저스틴이 현대 삼위일체의 식문을 암송하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예수 이름을 포함했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아마 그것은 더 오래된 관행을 존중한 때문일 것이다.

저스틴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피조된 종속적인 두번째 존재라고 가르쳤지만 성령을 세번째 위격으로 명확하게 구분짓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론자들에게 있어서 저스틴의 글은 그들 식문의 증거를 발견하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실 현대의 삼위일체 교리는 니케아 회의(325)와 콘스탄티노플 회의(381)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AD. 150년경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믿지 못하고 오늘날의 삼위일체 식문과 유

사한 침례 식문을 언급한 인물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오래된 예수 이름의 식문을 버렸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 현대 삼위일체 식문의 일반적인 사용에 관해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역사는 저스틴 시대 이후에 간단하게 예수 이름의 침례를 언급했을 법한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리옹(Lyons)의 감독인 이레니우스(Irenaeus)는 “우리는 주님을 불러 신성한 물로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기록했다.<sup>36</sup> 그러나 그의 마지막 주요 저서는 분명히 저스틴의 것과 동일한 침례 식문을 기술하고 있다.

침례 식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신성에 관한 교리이다. 이그나티우스(Ignatius),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폴리갑(Polycarp), 헤르메스(Hermas)와 같은 초기 속사도 지도자들은 분명히 삼위일체론자가 아니었다.<sup>37</sup>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유일하신 하나님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글에서 삼위일체적인 침례 식문에 관한 어떤 언급도 발견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단자 말썸온(Marcion)은 그때 당시 교회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옛 침례를 고수하였다.<sup>38</sup> 아시아의 한 장로에 의해 쓰여진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the Acts of Paul and Thecla)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침례를 담은 기사를 말해준다.<sup>39</sup>

### 3세기

중요한 것은 저스틴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의 침례를 언급한 내용을 여전히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3세기에 ‘이단자’가 베푸 침례가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로마의 감독 스티븐(Stephen:로마 카톨릭은 그를 교황으로 여긴다)은 이단자의 침례도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반면에 북아프리카의 신학자인 씨프리안(Cyprian)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씨프리안은 스티븐에 반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이단자’의 경우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이단자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자들이 죄 사함을 얻었으리라고 판단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박했다.<sup>40</sup> 그는 주장하기를 단지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은 이미 아버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올바로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았지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완전한 삼위일체로 침례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이교도들은 완전하고도 연합된 삼위일체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이름 만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도 없이 교회밖에서 교회에 반대하여 침례를 받은 이방인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sup>41</sup>

씨프리안은 더 나아가 이단자들은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를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만 베푸는 침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씨프리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단자에 의해 침례가 베풀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침례는 언제나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갑바도기아(Cappadocia)에 있는 가이사랴(Caesarea)의 감독인 퍼밀리안(Firmilian)은 256년에 씨프리안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스티븐(Stephen)이 말한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음과 침례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큰 유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어디서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즉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다” 라는 글을 인용하였다.<sup>42</sup>

씨프리안은 스티븐의 견해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만약 그리하면 이단자들도 단순히 인수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단자들이 몰과 성령으로 거듭나 참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것을 뜻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카톨릭 교회 밖에 있는 데도 말이다.” 씨프리아안은 그러한 견해는 옳지 않다고 논박했다. 바로 카톨릭 교회 밖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수 없었듯이 예수 이름의 침례만으로 교회 밖에서는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침례의 효력을 그 이름의 위엄에 두므로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이 새로워져 거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 중에서 침례 받은 사람에게 안수하지 않았는가?”<sup>43</sup>

역사가들은 이러한 글들에서 씨프리아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식문을 사용했으며 아마 스티븐이 그 식문을 따랐으리라고 결론짓는다.<sup>44</sup> 어떤 이들은 카톨릭 교회가 예수 이름의 식문을 사용하면서도 삼위일체가 부인되지 않는한 씨프리아안까지도 이 침례를 받아들였다고 믿는다. 어쨌든 모든 논쟁은 많은 사람들이 3세기 동안에 예수 이름의 침례를 행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익명의 저자가 쓴 재침례에 관한 논문(A Treatise on Re-Baptism by An Anonymous Writer)에서 충격적으로 입증된다.<sup>45</sup> 어떤 학자들은 그 저자가 울시누스(Ursinus)라고 하는 4세기의 수도사였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씨프리아안을 반대했던 3세기의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비록 이단자로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논문은 이단에서 돌이켜 카톨릭 교회로 돌아온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거론하면서 재침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이미 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이단자들은 오직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저자는 그의 글에서 많은 흥미있는 점들을 보여준다.

(1) 그의 입장은 예수 이름의 침례를 ‘가장 오래된 관례와 교회의 전통’으로, 또한 ‘아주 오랜 기간과 많은 교회와 사도들과 감독들의 권위’로 지지하고 있었다.

(2) 사도행전 4:12과 빌립보서 2:9-11을 인용하면서 “침례시 부르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약간의 유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다.”

(3)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이 경배를 받으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익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4)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이단자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단자가 자신의 과오를 고치고 진리를 인정하고 성령을 받는다면 그 때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이전에 예수 이름을 부른 것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5)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 28:19과 상충되지 않는다.

(6) 이단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적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은 같은 방식의 침례를 받는다.”

## 4세기

니케아 회의(the Council of Nicea) 이후로도 예수 이름의 침례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의 침례가 여전히 살아 있는 쟁점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암브로스(Ambrose: 340-398)는 비록 삼위일체론자였지만 삼위일체 중 한 인격(person)의 이름으로 행하는 침례가 모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행하는 침례와 일반이라는 근거 위에 분명히 예수 이름의 침례도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다.<sup>47</sup> 어떤 편집자는 각주에서 말하기를 “이 구절은 몇몇 사람들이 분명히 (아마도 암브로스의 권위 위에) 말했듯이 암브로스가 다른 위들의

언급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는 침례가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쳤을지 의문을 일으켜 왔다”고 한다.<sup>48</sup>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the Council of Constantinople)에서는 특히 사벨리우스의 침례를 정죄했는데, 그 침례는 갈라디아(Galatia)에서 널리 행해진 것으로 기술하였다.<sup>49</sup> 거룩한 사도의 법(the Constitutions of the Holy Apostles)은 덧붙여 4세기와 5세기에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주어지는, 한 번만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삼위일체 식문으로 세 번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도록 요구한다.<sup>50</sup> 동방교회의 이 문구의 변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침수하는 세례를 양식론(modalism)과 연관시킨다. 그러므로 아버지나 성령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며 성령은 아버지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침례를 받을 자들이 배우도록 강요한다.

## 중세시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는 약 450년 경 안디옥(Antioch)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벨리우스의 침례를 정죄했고, 529년(비잔틴 제국)의 저스틴 법전(the Justinian Code)은 반삼위일체론과 재침례론에 대해 사형의 형벌을 포고했다. 553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다시 사벨리우스의 침례를 정죄했고, 브라가(Braga)의 감독인 마틴 다미언(Martin Damian: 579년 사망)은 계속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한 번 침수 세례를 행하는’ 사벨리우스 침례를 정죄했다.<sup>51</sup>

프레저스 회의(the Council of Frejus: 792)와 교황 니콜라스 1세(Nicholas I: 858-867)가 그러했듯이 영국의 베데(Bede: 673-735)는 암브로스(Ambrose)에게서 기인한 근거를 들어 예수 이름의 침례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예수 이름의 식문을 언급한 다른 중세의 저자들은 피터 롬바르드(Peter Lombard: 1160년 사망), 휴고 빅터(Hugo Victor: 1141년 사망),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등이었다.<sup>53</sup>

이 증거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결론을 내린다. (1) 교회 역사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식문을 알고 있었다. (2)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이름의 식문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3) 반복해서 쟁점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러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 관행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 종교 개혁 이후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의 식문에 대한 논쟁에 직면했다.<sup>54</sup> 16세기와 17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예를 들자면 1572년 조지 스킨만(George Schomann)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sup>55</sup> 영국의 토마스 에드워즈(Thomas Edwards)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말을 사용하는 세례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며 기독교의 침례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주어야 한다고 가르친 어떤 '이단자들?'에 대해 글을 썼다. 19세기에는 다른 몇 영국의 단체들 뿐만 아니라 많은 플리머스 형제단(Plymouth Brethren)도 사도행전 2:38의 말씀의 권위로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만 행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sup>57</sup>

## 역사를 통하여 본 유일신 신자들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의 교리(위(person)를 구별하지 않고,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로 오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를 확신해 왔다. 이들 유일신 신자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비록 역사적인 기록들은 보통 그 주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추측컨대 대부분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을 것이다. 다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아마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을 역사

속에 기록된 비삼위일체론자들의 요약된 명단이다.<sup>58</sup>

(1)니케아 회의 이전(Ante-Nicene era): 속사도 교부들(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폴리갑(Polycarp), 헤르메스(Hermas), 이그나티우스(Ignatius) 등을 포함, 아마도 이레니우스(Irenaeus), 몇몇 몬타누스파(Montanists), 노에투스(Noetus), 프락세아스(Praxeas), 에피고누스(Epigonus), 클레오메네스(Cleomenes), 아마도 로마 감독인 칼리스트투스(Callistus)와 제피리누스(Zephyrinus), 터툴리안(Tertullian) 시대의 '대다수의 신자들', 사벨리우스(Sabellius).

(2)니케아 시대(Nicene era): 앤씨라(Ancyra)의 마르셀루스(Marcellus), 포토누스(Photinus), 코모디안(Comodian), 프리셀리안(Priscillian), 사벨리안주의자들(Sabellians).

(3)중세 시대(Medieval era): 사벨리안주의자들(Sabellians), 프리셀리안주의자들(Priscillianists), 아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삼위일체론자들로부터 '이단'으로 불리운 사람들.

(4)종교 개혁 시대(Reformation era): 미카엘 세르벤투스(Michael Servetus)〈그의 교리는 루터와 쾰링글리(Zwingli), 칼빈(Calvin)에게 알려졌고 칼빈의 승인으로 화형을 당하였다〉,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그(Emmanuel Swedenborg: 그는 삼위일체의 오류를 인정했지만 이상하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가르쳤다), 몇몇 재침례교도들(Anabaptists), 많은 반삼위일체론자들(antitrinitarians), 윌리엄 펜(William Penn), 많은 초기 퀘이커 교도들(Quakers).

(5)19세기: 존 클라우스(John Clowes: 영국), 존 밀러(John Miller: 미국), 몇몇 영국 회중교회 신자들(Congregationalists).

(6)20세기: 유일신 오순절 신자들, 소수의 안식일 신자들(Sabbatarians), 몇몇 은사주의자들(charismatics).

## 20세기



금세기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위대한 부흥을 보아 왔다. 현대 오순절 운동은 1901년 1월 1일에 시작되었고 첫 지도자인 찰스 파햄(Charles Parham)은 이미 1901년~1902년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 시작했다.<sup>59</sup> 그는 다음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주는 침례에 관한 이유를 들었다.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유명한 오순절 전도자인 앤드류 어션(Andrew Urshan)은 1910년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다.<sup>60</sup> 1913년이 시작되면서 프랭크 에와르트(Frank Ewart), 알. 이. 맥알리스터(R. E. McAlister), 글렌 쿡(Glenn Cook)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지도 아래 예수 이름의 침례와 하나님의 유일성의 교리가 북아메리카 오순절 운동을 휩쓸기 시작했다.<sup>61</sup> 각 사건(파햄, 어션, 1913년의 부흥)은 모두 서로 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인 것이었다. 매 경우가 간절한 성경 연구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시작되었다.

1915년, 앤드류 어션은 오순절의 메시지를 러시아에 가져 갔는데 어션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 진리를 발견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도 그곳에서 그의 몇몇 개종자들은 자신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주기를 요구했다.<sup>62</sup> 이 일은 그 땅에서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다. 몇 년 후, 한 무리의 중국 그리스도인 단체가 세상에서 자신들 외에 누가 그 교리를 믿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그들이 읽은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유일성과 예수 이름의 침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1917년, 그들은 참 예수 교회(True Jesus Church)를 조직했는데, 오늘날에도 중국과 대만에 존재하고 있다.<sup>63</sup>

초기 오순절 운동에서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포함한 많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A. H. 아규(A. H. Argue), 프랭크 바틀먼(Frank Bartleman: 이주사 거리의 집회 참석자이며 역사가), 이. 엔. 벨(E. N. Bell: 하나님의 성회의 두 창립자 중 한 사람

이며 초대 총회장, 윌리엄 부쓰-클리본(William Booth-Clibborn), 글렌 쿡(Glenn Cook), 에이. 지. 가르(A. G. Garr), 프랭크 에와르트(Frank Ewart: 초기 윌리엄 두럼(William Durham)의 협력자이며 뛰어난 부흥사), 하워드 고스(Howard Goss: 하나님의 성회의 조직자 중 한 사람이며 집행 위원회 임원들 중 한 사람), 엘. 씨. 홀(L. C. Hall), 지. 티. 헤이우드(G. T. Haywood: 유명한 흑인 지도자), 로렌스(B. F. Lawrence), 해리 반 룬(Harry van Loon), 맥알리스터(R. E. McAlister: 유명한 전도자), 에이미 셴플 맥퍼슨(Aimee Semple McPherson), 오퍼맨(D. C. O. Opperman: 하나님의 성회 집행 위원회 임원), 로저스(H. G. Rodgers).<sup>64</sup>

벨(Bell)은 나중에 그의 삼위일체주의 동료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예수 이름의 침례를 포기해 버렸다. 마찬가지로 에이미 맥퍼슨과 호스트라(R. G. Hoekstra)도 예수 이름의 침례를 포기했는데, 맥퍼슨은 후에 국제 포스퀘어 복음 교회(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를 설립하였고 호스트라는 그의 ‘채플린 레이(Chaplain Ray)’ 라디오 방송으로 금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sup>65</sup>

벨의 이야기는 특별히 흥미가 있다.<sup>66</sup> 처음 그는 그가 ‘슬픈 새로운 논쟁(The Sad New Issue)’ 이라 불렀던 것을 거부했지만 그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대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었다. (1)하나님은 한동안 예수 이름의 침례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셨다. (2)하나님은 그가 순종하고자 할 때까지 그의 설교의 모든 메시지를 제거하셨다. (3)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행했던 것이다.

벨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이 붙은 강력한 기사에서 그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은 사실을 밝혔지만 발간에 앞서 하나님의 성회(The Assemblies of God)는 그 기사의 상당 부분을 삭제해 버렸고 그의 재침례 사실도 삭제해 버렸다. 이 기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그의 ‘새로운 비전(brand new

vision)' 과 그의 새로운 깨달음과 침례를 수반한 강렬한 흥분의 경험을 나타냈다.<sup>67</sup> 그러나 결국 벨은 하나님의 성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의 새로운 침례 실행을 철회하였고 1920년 두번째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이 되었다.

이 쟁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입장 또한 아주 흥미롭다. 1915년 이 교단은 예수 이름의 침례가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얼마 후 하나님의 성회는 마태복음 28:19과 사도행전 2:38의 문구를 포함한 절충적인 식문을 적극 권장하였다. 결국 1916년, 이 교단은 예수 이름의 식문을 거부하고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도록 요구하였다.

루이지애나(Louisiana)주에서는 하나님의 성회 교역자들 중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오순절 성회(the Pentecostal Assemblies of Canada)도 설립자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초기 캐나다 오순절 지도자들도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아들였다.<sup>68</sup> 그러나 1919년 캐나다 오순절 성회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다시 삼위일체론으로 돌아섰고 하나님의 성회와 교제하였다.<sup>70</sup>

미국 오순절 계통의 교파 중 약 25%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sup>71</sup> 게다가 몇몇 삼위일체 오순절 교단들도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베푼다.

(1)씨애틀(Seattle)에 있는 벨렐 성전과 성경 학교(Bethel Temple and Bible School), 오펠러(W. H. Offiler)가 세움.

(2)인도네시아 오순절교회(the Pentecostal Church of Indonesia), 이 단체의 선교적 노력으로 세워졌다.

(3)디트로이트에 있는 베데스다 선교 성전(Bethesda Missionary Temple in Detroit), 제임스 리 비올(James Lee Beall)이 사역.

(4)복음 성전과 북캘리포니아 성경 대학(Gospel Temple and Northern California Bible College), 어니스트 젠타일(Ernest Gentile)

이 이끔.<sup>72</sup>

그 외에도 60개 이상의 대학 캠퍼스에 존립해 온 마라나타 캠퍼스 선교회(Maranatha Campus Ministries)를 포함하여 많은 현대 은사 주의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 시작했다.<sup>73</sup> 또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르치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소규모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단체들(분명 비오순절 교단들)이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 있다.<sup>74</sup>

## 결 론

예수 이름의 침례는 분명히 교회 역사를 통하여 존재해 왔고 이제 는 엄청난 부흥을 누리고 있다.

제11장은 방언을 수반하는 성령 침례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 장 마지막에서는 교회사 속에서의 사도적 교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낼 것이다.

## 각 주

<sup>1</sup> Otto Heick,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5), I, 215.

<sup>2</sup> E. H. Klotsche,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rev. ed.(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p. 100.

<sup>3</sup> Heick, I, 217, n.17.

<sup>4</sup> Klotsche, p. 99.

<sup>5</sup> Kenneth,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New York: Harper & Row, 1953), I, 193.

<sup>6</sup> Henry Morris III, *Baptism: How Important is It?*(Denver: Accent Books, 1978), p. 24. For further documentation of this paragraph see *The Ante-Nicene Fathers* [hereinafter ANF],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eds. (Rpt. Grand Rapids: Eerdmans, 1977), II, 22 & 49; ANF, III, 94 & 678; ANF, V, 377 & 400-01, AFN, VII, 379, 431 & 469.

<sup>7</sup> Morris, p. 10.

<sup>8</sup> W. H. Murk, *Four Kinds of Water Baptism* (St. Paul, Minn.: Northland Publ. Co., 1947), pp. 16, 17, 100. For Luther's view see also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3rd ed. (1890; Rpt. Grand Rapids: Eerdmans 1958), VII, 98-99.

<sup>9</sup> Latourette, I, 135.

<sup>10</sup> *Ibid.*, p. 194.

<sup>11</sup> "Baptism(Early Christian)," *ERE*, II, 389.

<sup>12</sup> Heick, I, 54; see Klotsche, pp. 20-21, 99.

<sup>13</sup> Heick, I, 62.

<sup>14</sup> *Ibid.*; see Klotsche, p. 27.

<sup>15</sup> Heick, I, 62, 122, 129, 135; "Baptism(Early Christian)," *ERE*, II, 385. For further documentation of this paragraph see *ANF*, I, 444 & 574; *ANF*, III, 674-75; *ANF*, V, 237, 276, & 378.

<sup>16</sup> *Constitutions of the Holy Apostles*, 6.3.15, *ANF*, VII, 457.

<sup>17</sup> Tertullian, *On Baptism*, *ANF*, III, 669-679.

<sup>18</sup> 'Baptism(Early Christian),' *ERE*, II, 391.

<sup>19</sup> Klotsche, p. 180.

<sup>20</sup> *Ibid.*, p. 198.

<sup>21</sup> *Ibid.*, p. 180, quoting *Lutheran Catechism*, 733.

<sup>22</sup> Bloesch, II, 15.

<sup>23</sup> *Ibid.*, p. 12.

<sup>24</sup> Heick, I, 53. See also J. F. Bethune-Baker, *An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London: Methuen & Co., 1933), p. 25 n. 1 & p. 378 n.1.

<sup>25</sup> Heick, I, 87.

<sup>26</sup> 'Baptism(Early Christian),' *ERE*, II, 389.

<sup>27</sup> *Ibid.*

<sup>28</sup> 'Baptism,' *ADB*, I, 241.

<sup>29</sup> 진 다니엘로우(Jean Danielou), 「니케아 종교회의 의전의 기독교 교리의 발달」 존 A 베이커판(John A. Baker)(런던: Darton, Lonman, and Todd, 1964), 제1권 '유대 기독교의 신학' P323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삼위식문과 세번 침수'는 유대 기독교(초기교회)의 실행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윌헬름 보우셋(Wilhelm Bousset)저 「주님의 기독교-기독교의 시작에서 이레니우스까지 그리스도 안의 신조들의 역사」, 제5판, 존 스틸리(John Steely)역, (뉴욕: Abingdon, 1970), p. 292. "바울 시대의 침례는 침례는 주 예수 이름으로 주는 침례였다." 개정판 p.220 "더 고전적인 식문은 의심할 여지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주는 식문이었다." 윌스턴 워커(Williston Walker)저, 「기독교회사」(뉴욕: Charles Scribner's Sons, 1947), p. 58 "삼위일체의 침례식문은... 그

- 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더 오래된 침례를 대신하였다” 더 추가적인 인용들은 윌리엄 찰펀트(William Chalfant)의 「유일신의 고대 챔피언들」(1979; Rpt. 헤이즐우드, Mo.: Word Aflame Press, 1982), 1982년판 제5장을 보라.
- <sup>30</sup> Hermas, *The Pastor*[*The Shepherd*], 1.3.7. & 3.9.16, ANF, II, 15 & 49.
- <sup>31</sup> 'Baptism(Early Chritian),' *ERE*, 385; see Hermas, 3.9. 14-16, ANF, II, 48-49.
- <sup>32</sup> Hermas, 3.9.13, ANF, II, 48.
- <sup>33</sup> *The Teaching of the Twelve Apostles*, 7.1 & 9.5, ANF, VII, 379 & 380.
- <sup>34</sup> ANF, VII, 372.
- <sup>35</sup> Justin, *First Apology*, 61, ANF, I, 183.
- <sup>36</sup> Irenaeus, *Fragments from the Lost Writings of Irenaeus*, 34; ANF, I, 574.
- <sup>37</sup> For full discussion and documentation of the beliefs of these men, as well as that of Justin, see David Bernard, *The Oneness of God* (Hazelwood, Mo.: Word Aflame Press, 1983), Chapters 9 and 10.
- <sup>38</sup> Cyprian, *Epistles*, 72.4, ANF, V, 380.
- <sup>39</sup> *Acts of Paul and Thecla*, ANF, VIII, 490.
- <sup>40</sup> Cyprian, *Epistles*, 72.17, ANF, V, 383.
- <sup>41</sup> *Ibid.*
- <sup>42</sup> *Ibid.*, 74.18, ANF, V, 395.
- <sup>43</sup> *Ibid.*, 73.5, ANF, V, 387.
- <sup>44</sup> Bethune-Baker, p. 378 n.1.
- <sup>45</sup> *Ibid.*, p. 25 n.1.
- <sup>46</sup> *A treatise on Re-Baptism By an Anonymous Writer*, ANF, V, 665-78.
- <sup>47</sup> Ambrose, *Of the Holy Spirit*, I, iii, 43,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hereinafter *NPNF*], Philip Schaff and Henry Wace, eds.(Rpt. Grand Rapids: Eerdmans, 1976), 2nd ser., X, 98. See also "Baptism", *ADB*, I, 241; Bethune-Baker, p. 25 n.1. & p. 378 n.1.
- <sup>48</sup> *NPNF*, 2nd ser., X, 98 n.2.
- <sup>49</sup> Chalfant, p. 78.
- <sup>50</sup> *Constitutions of the Holy Apostles*, 47.50, ANF, VII, 503.
- <sup>51</sup> Chalfant, p. 78.
- <sup>52</sup> 'Baptism,' *ADB*, I, 241.
- <sup>53</sup> *Ibid.*
- <sup>54</sup> Vinson Synan, ed., *Aspects of Pentecostal-Charismatic Origins*(Plainfield, N.J.: Logos International, 1975), p. 158, citing John Dillenger, ed., *Martin Luther*(Garden City, N.Y.: Doubleday, 1961), p. 297.
- <sup>55</sup> Thomas Weisser, *After the Way Called Heresy*(N.p., 1981), p. 80, quoting Robert Wallace, *Antitrinitarian Biography*(London: E. T. Whitefield, 1850), II, 350.
- <sup>56</sup> Weisser, p. 80, quoting Wallace, I, 90.
- <sup>57</sup> W. Robertson Nicoll, ed., *The Expositor's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56), V, 330.

- <sup>58</sup> See Bernard, Chap. 9; Chalfant, *passim*; "Monarchianism," *ERE*, *passim*; Wisser, *passim*, For testimony concerning the Montanists see Hippolytus, *The Refutation of all Heresies*, 8,12, ANF, V, 123-24.
- <sup>59</sup> Fred Foster, *Their Story: 20th Century pentecostals*(Hazelwood, Mo.: Word Aflame Press, 1981), pp. 120-21, quoting Parham, *A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pp. 23-24.
- <sup>60</sup> Andrew Urshan, *The Life of Andrew Bar David Urshan*(Stockton, Ca.: Apostolic Press, 1967), p. 141.
- <sup>61</sup> Frank Ewart, *The Phenomenon of Pentecost*, rev. ed.(Hazelwood, Mo.: Word Aflame Press, 1975): Foster, pp. 88-90, 102-03.
- <sup>62</sup> A. Urshan, pp. 235-37.
- <sup>63</sup> David Barrett, ed., *World Christian Encyclopedia*[hereinafter *W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234.
- <sup>64</sup> Foster, p. 107; Walter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R. A. Wilson, trans.(Minneapolis: Augsburg Publ. House, 1972), pp. 32 & 43 n.21.
- <sup>65</sup> N. A. Urshan, Lecture and Personal Interview, July 11-13, 1982, Granby, Colorado.
- <sup>66</sup> Reed, pp. 109-123.
- <sup>67</sup> Bell's article "Who is Jesus Christ?" is reproduced in Oliver Fauss, *Buy the Truth and Sell It Not*(St. Louis: Pentecostal Publ. House, 1965), Chapt. 2.
- <sup>68</sup> Reed, pp. 124-136.
- <sup>69</sup> Hollenweger, p. 32, p. 43 n.21, p.312.
- <sup>70</sup> *Ibid*, p. 312: Reed, p. 108.
- <sup>71</sup> Tim Dowley et al, eds., *Eerdman's Handbook to the History of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77), p. 619.
- <sup>72</sup> Reed, pp. 343-46.
- <sup>73</sup> See "And Now-Deprogramming of Christians is Taking Place," *Christianity Today*, April 22, 1983, p. 31.
- <sup>74</sup> Reed, p. 199, citing, *Directory of Sabbath-Keeping Groups*, 4th ed. (Fairview, Okla.: The Bible Sabbath Association, 1974).

## 제 11 장

# 교회사 속에서의 증거:방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 12:1).

이 장에서는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난 방언을 표적으로 하는 성령의 침례에 관하여 알아 보고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완전한 사도적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연구에 따르는 어려움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nica)은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잘 말해준다. “사도시대 이후의 방언 말함에 대한 기록들은 기독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다”<sup>1</sup>

## 1세기와 2세기

1~2 세기의 속사도 교부들은 성령의 은사를 믿었으며 성령의 침



례를 위한 안수를 시행하였고, 방언 말함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거했다.<sup>2</sup> 그들에 의한 다음의 인용 기록들에서 ‘은사’라는 단어는 헬리어에서 카리스마타(charismata)라고 표현되었는데<sup>3</sup> 바울은 이 단어를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고전 12).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100?)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하길 원하노라”라고 하였다.<sup>4</sup>

익나티우스(Ignatius -107?)는 서머나 교회에게 “나 익나티우스는…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및 송축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했다.<sup>5</sup> 그는 또한 폴리잡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에 충만한 자가 되라”고 충고했다.<sup>6</sup>

디다케(Didache)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은사로 충만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했고 또한 예언을 하는 자들을 “성령 안에서 말하는 자”라고 설명했다.<sup>7</sup>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은 “예언의 은사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므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sup>8</sup>

리용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는(Ireneus 130?-202?)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정한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전 세계에 퍼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sup>9</sup> 그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고 또한 성령 침례의 증거로서 방언 말하는 것을 강조했다.

“사람은 아버지의 성령과 연합하는 것으로 완전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들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온

갖 종류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온전한 자들’ 이라고 불렀다. 같은 이치로 우리는 또한 교회 안의 많은 형제들이 예언의 은사를 소유하고 온갖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사도들이 또한 그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sup>10</sup>

이교도였던 셀시우스(Celsus)는 2세기 말엽에 당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기록했다. 신학자 오리겐(Origen -254?)도 방언 말함의 존재와 효용성을 증거했고, 당시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었음을 인정했다.<sup>11</sup> 몬타누스파(Montaniast)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한 성령을 강조했고 방언을 말했다.

### 3세기

기원 후 2세기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 신학자 터툴리안(Tertullian)은 이단자 말씨온(Marcion)에 대한 반박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창조지는 말세에 당신의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로 나타나셨다.”<sup>12</sup> 터툴리안은 특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12:8-11과 이사야 28:11이 그 시대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진정한 교회의 표적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말씨온으로 하여금 그가 믿는 신에게 받은 은사로서 사람의 지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예언의 은사를 보이게 하라... 그에게 찬양이나 환상이나 기도를 만들어 보이게 하라. 환상 중에서 오직 영으로만 하게 하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은사를 일으키도록 해 보라...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어렵지 않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sup>13</sup>

노바티안(Novatian - 257?)은 로마의 장로였는데 성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바로 그분이 교회 안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교사들을 가르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능력과 신유와 기적을 일으키시며, 영들 분별함과, 교회의 지도력과, 지혜와, 모든 성령의 은혜를 질서있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곳에 있는 주의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sup>14</sup>

사벨리우스(Sabellius)는 성령의 침례와 방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다. 비록 그의 글들이 오늘날에는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에피파니우스(Epiphanius)는 사벨리우스가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과, 아타나시우스라는 가명(Pseudo-Athanasius)을 쓰는 한 저자의 기록에 따르면 사벨리우스가 고린도 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말했다.<sup>12</sup>

아스테리우스 어바너(Asterius Urbanus, c. 232)는 당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은사들이 교회에 영존하기를 원했다고 기록했다. 그는 몬타누스파(Montaniast)에 반대하는 글을 쓰면서 몬타누스(Montanus)와 그의 동역자가 죽은 후로 왜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다. 어바너는 진정한 교회에는 항상 예언의 은사들(예언, 방언과 방언의 통역)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에 존재해야 한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sup>16</sup>

## 4세기와 5세기

포이티어의 감독이었던 힐러리(Hilary -367)는 방언과 방언의 통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역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sup>17</sup>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Ambrose 340-398)는 고린도 전서 12

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기독교인들의 정상적인 경험들의 일부라고 가르쳤다.<sup>18</sup>

4세기 말엽과 5세기 초의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조직으로 변했다. 명백히 방언을 말하는 역사는 타락해 가는 교회에서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만 그에 대한 기억들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345-407)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장 전체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록 이해하기 어려우나 그 성령의 역사가들이 멈춘 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다. 이전에는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역사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누구든지 침례를 받는 사람은 방언을 말하였다... 그들은 단번에 성령을 받았다... 그들은 페르시아인의 방언과 로마인의 방언과 혹은 인도인의 방언이나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가 되었다.”<sup>19</sup>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은 당시대의 교회가 성령을 받을 때 방언 말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음을 증거했다.

“성령은 안수를 받음으로서 일시적인 기적들과 함께 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임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성령을 구하던 사람들에게 안수가 행해짐으로써... 그들이 방언 말함과 함께 성령을 받고는 하였다”<sup>20</sup>

어거스틴 시대에도 카톨릭에 의해 ‘이단자’로 정죄된 어떤 이들은 방언 말함과 함께 성령을 받는 것을 믿었다. 어거스틴은 다음의 주장들로서 그들을 반박했다. (1)방언은 사랑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전 13). (2)사랑은 오직 성령으로 임한다(롬 5:5). (3)그들은 카톨

릭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4) 더이상 아무도 방언 말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sup>21</sup>

## 중세시대

중세시대에 방언 말함의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 아마도 그것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자신들이 '이단들'로 정죄한 사람들의 입을 막는데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모임들 가운데서 방언을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12세기 유럽의 왈덴파(Waldenses).<sup>22</sup>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단체.

(2)12세기 유럽의 알비겐파(Albigenses).<sup>23</sup>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고 정결한 삶을 강조했던 모임.

(3)13세기 유럽의 프란체스코 수도회(Franciscans)와 다른 탁발 수도사들(mendicant)의 모임.<sup>24</sup> 단순한 삶의 방식을 고수했고 시골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천주교 수도사들.

##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살펴보면 방언을 말하는 기록들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두드러지게 증가한 종교적인 자유. (2)성경공부에 대한 중요성의 회복, 사도적 교리, 회심, 영적 경험들. (3)인쇄술의 발명. 그리고 (4)근대라는 시대적 상황들이다.

저명한 역사가들에 따르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1500년에서 1900년에 이르는 사이에 많은 모임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한다.

(1)1500년대 유럽의 재침례 교도들.<sup>25</sup> 그들은 루터교회, 개혁교회,

그리고 영국 정교회와 더불어 초기 개신교 물결의 4대 조류 중 하나이다. 다른 개신교도들과는 달리 재침례교도들은 사도적 경배와 삶의 방법의 회복과 개심의 경험을 하는 것, 오직 믿음에 의한 침례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교회와 정부의 완전한 분리, 회심 후 죄를 이기는 능력,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메노파(Mennonites) 추종자들을 이끄는 유명한 재침례교 지도자 메노시몬(Menno Simon)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침례의 증거라고 기록했다.<sup>26</sup> 많은 초기 재침례교도들이 열렬한 경배를 올렸다. 비기독교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면, “매우 격앙되고, ‘열렬한’, 복음적인 일들... 미국인들이 ‘거룩한 뒹굴음’이라고 알고 있는... 때때로 회중은 큰 소리로 외치고 춤을 추기도 했다. 그리고 항상 찬송을 열심히 불렀다”<sup>27</sup> 이러한 그들의 교리와 찬양을 볼 때, 초기 재침례 교회에서 방언 말함이 행해졌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 1500년대 영국의 예언운동(Prophecy Movement).<sup>28</sup>

(3) 1600년대 ~ 1700년대 프랑스 남부의 까미사르 교도들(Camisards).<sup>29</sup> 때때로 그들은 개번스의 예언자들(Prophets of the Cevennes)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주로 농부들로 구성된 위그노(Huguenots,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었다. 그들은 루이 14세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국교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항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하였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였고, 심지어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왕실에서만 쓰는 불어로 예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아주 열성적이었으며, 크게 경배하였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4) 1600년대 영국의 웨이커 교도(Quakers).<sup>30</sup> 그들은 영적인 체험들을 강조했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 하시기를 기대했다. 초기 웨이커 신도들은 그들이 사실상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웨이커 교도라고 불려졌다.

(5) 1600-1700년대 프랑스의 안센파(Jansenites).<sup>31</sup> 천주교 내의 종교

개혁 운동.

(6)1600년대 후반 독일의 경건 주의자들(모라비안 교도 포함).<sup>32</sup> 그들은 성령의 체험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했다.

(7)1700년대 초기 영국의 카미사드(Camisards) 회심자들.<sup>33</sup> 그들 중 일부는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가서 전도 활동을 하였다.

(8)1700년대 영국의 감리교도들. 그들은 웨슬리(Wesley)와 화이트필드(Whitefield)의 부흥 운동의 열매들이었는데 나중에 미국 부흥에서도 나타났다.<sup>34</sup>

웨슬리는 비록 성령의 은사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회복된 교회는 그것들을 다시 소유할 것이라고 믿었다.<sup>35</sup> 미들톤(Middleton)박사가 성령의 은사는 교회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저술했을 때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많은 고대 기록들이 더이상 남아 있지 않고 (2)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쓰지는 않았으며 (3)반 니케아 교부들이 방언이 사도들과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한 적도 없으며 (4)방언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행해지지도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sup>36</sup>

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언으로 말했을 것이며, 그것들이 모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그 기록들은 많은 해를 거둬하는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sup>37</sup> 라고 주장했다. 방언 말함이 그의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웨슬리는 “방언 말함은 여러번 들은 적이 있고, 다오피니의 계곡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sup>38</sup>

우리는 또한 감리교회의 부흥에서 일어났던 회개에 대한 강조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적의를 가진 한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극단적인 감정적 소란함과, 몸이 쪼이는 듯한 그러한 현상들은 18세기 영국의 부흥사인 웨슬리의 부흥집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웨슬리의 부흥 집회에서도 “극단적인 행동

들과 발작들… 그리고 진동들과 고향 지름들이 일어났다”<sup>39</sup> 비슷한 현상이 1700년대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화이트필드 및 다른 전도자들을 필두로 한 영적 대각성 운동 가운데서도 일어났다.<sup>40</sup>

(9)1800년대 미국의 부흥회와 천막 집회들. 2차 영적 대각성이라고 불려지는 이후의 미국 부흥회에서도 물리적 현상들이 보고되었다. 그것은 켄터키주의 천막 집회에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미국 전체를 뒤덮었다.<sup>41</sup> 이러한 천막 집회 가운데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흐느꼈으며, 발을 구르며 뛰었고, 땅으로 꼬꾸라졌고, 땅에 쓰러져 마치 죽은 자처럼 누워 있기도 했으며,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때때로 그들은 ‘거룩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짓거나’,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sup>42</sup>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울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고, 발작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구르며, 달리고 춤을 추는 회중이 울며 땅을 치고 회개하는 것을’ 보았다.<sup>43</sup>

이러한 집회들은 감리교도들과 침례교도들, 일부의 장로교도들, 나중에는 성결교도들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회개와 자유로운 경배를 강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1800-1801에는 조오지아 대학 교정을 큰 부흥의 물결이 휩쓸었다. 학생들은 “소리를 치며 알려지지 않은 방언으로 이야기하였다.”<sup>44</sup>

많은 경우에 방언으로 말했던 사실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것의 중요성을 잘 몰랐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방언 말함이 다른 물리적 현상과 섞여서 잘 구별되지 않기도 했다. 어떤 역사가는 “19세기를 통틀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나라 곳곳의 부흥회와 천막 집회 가운데서 종종 일어났으며 아마도 그 현상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될 때 현상의 하나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sup>45</sup>

(10)1800년대 초 독일의 루터교회.<sup>46</sup> 이 현상은 구스타프 본 벨로(Gustav von Below)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11)1800년대 영국과 미국의 어빙파(Irvingites).<sup>47</sup> 영국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유능한 목사였던 에드워드 어빙(Edward Irving)의 회중에 성령이 임했다. 마리아 캠퐀(Mary Campbell), 제임스(James), 마가렛(Magaret), 맥도날드(MacDonald)를 필두로 시작된 이 모임은 곧 연합된 사도적 모임으로 발전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강조되었다. 이 부흥의 물결은 크리스찬 카톨릭 교회와 새 사도의 교회(New Apostolic Church), 그리고 어빙파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모임들은 점차 성령의 은사를 잃어가며 형식적으로 변했다. 그들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오늘날에는 거의 그 숫자가 남아있지 않다. 교회 역사가인 필립 스카프(Philip Schaff 1819-1883)는 뉴욕의 어빙파 교회에서 목격한 방언 말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수 년 전 뉴욕의 한 어빙파 교회의 예배에서 나는 이 현상을 목격했다. 단어들은 분절되었으며, 마구 내뱉는 말 같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매우 특이하고 인상적으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의식이 없거나 거의 들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으며, 혀를 제어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았고, 마치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붙들린 것 같았다. 친구이자 동료인 브릭 박사도 1879에 런던의 한 어빙파의 교회에서 같은 느낌을 받았다”<sup>48</sup>

(12)1800년대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Plymouth Brethren)<sup>49</sup>

(13)1841 - 1843 스웨덴의 성경읽기회 (Readers; Lasare)<sup>50</sup>

(14)1859년 아일랜드의 부흥회들.<sup>51</sup>

(15)1800년대 테네시와 북 캐롤라이나 주의 경건주의자들.<sup>52</sup>

우리는 한 독일 역사가가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방언을 말했다고 주장한 것과, 또한 무디(Dwight Moody)의 제자들 중 일부가 방언을 했다고 주장한 무디의 친구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up>53</sup>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방언 말함과 동일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웨스터민스터의 신앙고백은 1648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장로교의 칼빈주의를 도입한 것인데 그 신앙고백 안에는 ‘기도는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sup>54</sup>

## 20세기

근대의 오순절 운동은 1901년 1월에 켄사스의 토페카라는 작은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학장 찰스 파햄(Charles Parham)은 성령주의에 신앙의 근본을 둔 목사였다. 그의 학생들은 방언이 수반되는 성령의 침례를 구하기 시작했고 아그네스 오즈만(Agnes Ozman)이라는 여성이 방언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 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곳에서 시작된 부흥은 곧 많은 교단과 전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sup>55</sup>

1950년대 후반, 은사주의 혹은 신오순절 운동으로 불리는 방언 말함의 부흥이 개신교와 천주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정교회까지도 널리 전파되었다.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오순절교회와 연합하였고,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교단을 새로 세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머물러 있었던 전통 교단들에 남았다.

## 오늘날의 오순절 교회들의 통계

세계 기독교 대사전을 보면, 1970년도에 160,509개의 오순절 교회가 있고 18,694,038명의 장년부 신도들이 있으며, 36,794,010명의 전체 출석 신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체 출석 교인의 수가 51,167,1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다. 타임지(Time)가 밝힌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오순절 교인의 수가 어떤 개신교 교단의 수보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통계에

의하면 은사주의자들과 신오순절 운동의 교인들은 1970년에 1,587,700명이었고 1980년에는 11,005,390명에 이르렀다.

위에서 말한 출석(affiliation)이라는 것은 교적부에 올라 있는 숫자나 평균 출석수를 훨씬 상회한다. 그것은 장년과, 어린아이들, 신자는 아니나 교회에 가끔 나오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숫자이다.

아래는 미국내의 유일신 오순절 교단들의 교인 숫자이다.<sup>60</sup>

### 미국내 유일신 오순절 교단들 (1970)

교단명	교회수	성인수	총신자수(추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적 성회(스페인어 사용)(Apostolic Assembly of the Faith in Jesus Christ)	195	24,000	55,000
하나님의 사도적 승리 성회:흑인교회(Apostolic Overcoming Holy Church of God)	300	30,000	75,000
주예수그리스도의 성회(Assemblies of the Lord Jesus Christ)	300	25,000	60,000
기독교 연합 형제회(Associated Brotherhood of Christians: spiritual communion)	100	2,500	6,000
예수 그리스도 세계 성경의 도 교회:흑인교회(Bible Way Churches of Our Lord Jesus Christ World Wide)	350	30,000	42,000
사도적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흑인교회(Church of Our Lord Jesus Christ of the Apo-stolic Faith)	200	45,000	60,000
세계 오순절 성회:과반수 흑인(Pentecostal Assemblies of the World)	550	45,000	60,000
국제 연합오순절교회 과반수 백인, 다수의 흑인, 남미인(United Pentecostal Church International)	2,300	250,000	450,000

이 외에도 많은 군소 교단들과 독립 교회들, 은사주의자들의 모임

들이 유일신적 오순절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숫자들은 1970 년도의 기록이고 그 후 대부분의 오순절 교회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통계들이 정확하지는 않다.

1983년 9월, 국제 연합오순절교회(UPCI, United Pentecostal Church International)는 북미에서만 약 50만명, 그 외 다른 나라들에 도 약 50만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sup>61</sup> 그 당시에 북미 에는 3,295개의 지역교회가 있었고 약 500개의 교회들이 개척교회였 으며, 일주일에 평균 4개의 교회가 새로 시작되었다.<sup>62</sup> 해외선교는 당 시 90여 개국에서 5,998개의 교회와 설교지가 있었고, 53개의 신학교 와, 1년동안 534개의 교회가 새로 시작되었으며 86,686명이 전도되었 다.<sup>63</sup> 1984년도의 중요 해외 선교지들은 다음과 같다.

### 국제연합오순절교회의 주요 선교 지역들 (1984년)

(교인이 2내지 3배로 성장하여 가입함)

나라	교회수	신자수
브라질	226	11,000
버마(미얀마)	160	9,000
엘 살바도르	439	14,000
에디오피아	445	95,278
가나	102	9,000
하이티	135	13,181
북동부 인도	613	53,356
남부 인도	175	10,000
인도네시아	203	12,901
자마이카	160	23,000
케냐	212	28,000
마다가스카르	122	10,000
파키스탄	208	15,000
필리핀	1,375	60,000
베네수엘라	608	40,000

많은 다른 유일신 사상의 오순절 교회들이 미국 외에서도 존재한다. 다음의 표는 1970년에 10,000명 이상의 성도를 가진 미국 외의 교회이다.<sup>65</sup>

**국제연합오순절교회 이외의  
예수이름 오순절 교파 [미국제외] (1970년)**

나라	교단명	교회수	성인수	총교인수
캐나다	오순절 사도 교회 (Apostolic Church of Pentecost in Canada)	100	12,000	30,000
중국	참 예수 교회 (True Jesus Church)	1,700	15,000	35,000
콜롬비아	콜롬비아 연합 오순절 교회 (United Pentecostal Church of Colombia)	570	47,000	95,00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회* (Pentecostal Church of Indonesia)	1,500	750,000	1,000,000
멕시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도교회 (Apostolic Church of the Faith in Jesus Christ)	954	16,034	48,192
멕시코	세계의 빛 교회 (Light of the World Church)	20	15,000	30,000
대만	참 예수 교회 (True Jesus Church)	187	25,000	50,000
일본	예수의 영 교회 (Spirit of Jesus Church)	453	37,000	62,726

\*인도네시아의 오순절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삼위일체론자지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참예수 교회는 1917년에 다른 오순절 교회와 아무런 접촉없이 중국의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기 직전에 참예수 교회에는 1,260개의 교회와 125,00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성도들은 지하의 비밀교회로 숨어 들었다.<sup>66</sup> 참예수 교회는 중국 정부가 삼자 교회로 모든 교회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잘 극복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교회들 중의 하나이다.<sup>67</sup>

그들은 물론 나는 것은 물침례이며, 침례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며,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sup>68</sup>

콜롬비아의 연합 오순절 교회는 오순절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으나 현재는 철저히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교회는 자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카톨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교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 놀라운 교회 성장의 비결이 두 명의 비오순절교파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69</sup>

그 외에도 많은 유일신 사상의 오순절 교단들이 있다. 그 중에는 멕시코에 몇 개가 있고, 영국에 이민한 카리브 사람들의 교회들, 그리고 세족식을 거행하는 유고슬라비아의 '주 예수의 영(Church of the Spirit)' 교회가 있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은 소련에 하나의 유일신적 오순절 교회가 있다고 밝힌다. 이 모임은 지하교회인데 '사도적 정신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Evangelical Christians in the Apostolic Spirit)' 이라고 불린다. 이들의 유래는 앤드류 어션(Andrew Urshan)에 의해 주도된 1915년 부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은 세족식을 거행한다.

오순절교회를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는 '복음적 기독교인과 침례교도들의 연합(AUCECB, the Union of Evangelical Christians-Baptists)' 이다. 1940년에 유일신 사상의 신자들은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 AUCECB교단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곧 그곳을 떠나 불법적인 모임 가운데 있기를 자청했다.<sup>70</sup> 명백히 많은 이들이 이 정부교회 가운데 남아 있었다. 1974년에 피터 샤프트로브(Peter Shatrov)라는 한 유일신 신자는 이 교회의 최고 간부로 임명됨으로써 이 교단 뿐만이 아니라 전체 소련 교회의 주요한 대변인이 되었다.<sup>71</sup> 그렇다면 삼위일체 신앙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상당수의 유일신을 믿는 신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

다. 아래의 표는 러시아 오순절 교회의 통계이다.<sup>72</sup>

### 러시아의 오순절 교단들 (1970)

교단명	교회수	성인수	총신자수
복음주의 믿음의 기독교 (지하교회, 삼위일체 교회) (Christians of Evangelical Faith)	600	80,000	320,000
복음주의 기독교 오순절 시온주의자 (지하교회, 삼위일체 교회) (Evangelical Christian Pentecostal Zionists)	100	10,000	20,000
사도적 정신의 복음주의 기독교 (지하 교회, 모두 유일신 교회) (Evangelical Christians in the Apostolic Spirit)	50	2,000	5,000
복음주의 믿음의 기독교(AUCECB) (등록교회, 삼위일체교회로 분류되지만 유일신주의 지도자가 선출됨) (Christians of Evangelical Faith)	400	40,000	160,000
기타 오순절 단체(지하교회, 유일신 교회인지 삼위일체 교회인지 명확하지 않음)	900	80,000	160,000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은 이러한 유일신 사상 오순절 교회의 1970년도 전체 숫자를 13,350개의 교회와, 1,593,999명의 장년 신자들, 2,682,248명의 출석 인원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4,205,428명이 1985년도에 출석한 것으로 나와 있다.<sup>73</sup>

## 결 론

우리는 이 장에서 설명된 모든 다른 교단들과 모든 면에서 교리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는 단순한 하나의 사실을 보여 준다. 그것은 모든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회개와, 잠김에 의한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죄사함을 위한 침례, 그

리고 성령을 받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을 믿고 가르치고 경험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 아니다. 성경이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들 통해서 그 가르침들을 따라 왔다.

특히 어떤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와 방언이 수반되는 성령의 침례에 대한 가르침들을 일관성있게 고수해 왔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교리를 1세기와 2세기 이후인 속사도 시대의 지도자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3세기의 초기 사벨리우스 주의자들, 그리고 20세기의 근대 오순절 교단들에서 그 동일한 가르침이 발견된다.

역사적 증거들은 또한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몬타누스파(2~3세기)와 후기 사벨리우스 주의자들(4,5,6세기)에게서도 발견됨을 말해 준다. 3, 4세기와 중세의 카톨릭에 의해 '이단들'로 정죄된 사람들에게서, 16세기의 재침례 교도들, 17, 18세기의 반 삼위일체 주의자들, 17세기의 초기 웨이커 교도들과 19세기의 폴리머스 형제단들 가운데서도 그 가르침들은 발견된다. 사단은 진실을 감추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전한 사도적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남겨 놓았다는 증거는 많다. 우리는 그 가르침과 경험으로서 이 사도적인 교회가 사도의 시대로부터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는다.

교회의 역사만으로는 교리의 정통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역사는 이러한 교리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고 또 수세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사라졌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그것은 이러한 가르침들이 최근에 들어와 새로 생성된 것이라는 환상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만으로도 전통이라는 비성경적인 수의(壽衣)를 찢어 내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간략한 역사적 고찰은 그 과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때인 오늘날, 완전한 사도적 진리는 전 세계에 걸쳐서 선포되고 있다. 오늘날의 세상은 방언을 수반한 성령의



침례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100년이 채 안되어서 적은 무리로 시작한 오순절 운동은 개신교 내에서 가장 거대한 집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기독교 교단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부흥이 그분의 성령 침례와 잘 조화된다고 믿는다. 교회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최선의 역사가 앞으로 도래한다고 믿는다!

## 각 주

- <sup>1</sup> "pentecostal Churches", *Encyclopedia Britannica*[hereinafter EB](Chicago: William Benton, 1976), XIV, 31.
- <sup>2</sup> Heick, I 47; Latourette, I, 194
- <sup>3</sup> "Charismata," *ERE*, III, 371.
- <sup>4</sup> Clement of Rom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 ANF, I, 5.
- <sup>5</sup> Ignatius, *Epistle to the Smyrnaeans, superscription & 12*, ANF, I, 86 & 92.
- <sup>6</sup> Ignatius, *Epistle to Polycarp*, 2, ANF, I, 99.
- <sup>7</sup> "Charismata," *ERE*, III, 371. See *The Teaching of the Twelve Apostles*, 1.5 & 11.7; ANF, VII, 377 & 380.
- <sup>8</sup> Justin, *Dialogue with Trypho*, 82 & 88, ANF, I, 240 & 243.
- <sup>9</sup> Irenaeus, *Against Heresies*, 2.32.4, ANF, I, 409.
- <sup>10</sup> *Ibid.*, 5.6.1, ANF, I, 531.
- <sup>11</sup> Origen, *Against Celsus*, 7.9, ANF, IV, 614, quoting Celsus, *True Discourse*. Origen, *Commentary on John*, 2.6, ANF, X, 329.
- <sup>12</sup> Tertullian, *Against Marcion*, 5.8, ANF, III, 446.
- <sup>13</sup> *Ibid.*, III, 446-47.
- <sup>14</sup> Novatian, *Treatise Concerning the Trinity*, 29, ANF, V, 641.
- <sup>15</sup> Chalfant, pp. 133, 135.
- <sup>16</sup> Asterius Urbanus, *Extant Writings*, 10, ANF, VII, 337.
- <sup>17</sup> Hilary, *On the Trinity*, 8.33, NPNF, 2nd ser., IX, 147.
- <sup>18</sup> Ambrose, *On the Holy Spirit*, 2.8, NPNF, 2nd ser., X, 134.
- <sup>19</sup> John Chrysostom, *Homilies on First Corinthians*, 29, NPNF, 1st ser., IV, 443.
- <sup>20</sup> Augustine, *On Baptism, Against the Donatists*, 3.16.21, NPNF, 1st ser.,

- IV, 443.
- <sup>21</sup> *Ibid*, IV, 442.
- <sup>22</sup> Carl Brumback, *What Meaneth This?*(Springfield, Mo.: Gospel Publ. House, 1947), p. 92.
- <sup>23</sup> *Ibid*.
- <sup>24</sup> "Tongues, Gift of," *ADB*, IV, 796; "Tongues, Gift of," *Smith's Dictionary of the Bible*[hereinafter *SDB*], H. B. Hackett, ed.(1870; Rp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1), IV, 3310-11.
- <sup>25</sup> Bloesch, II, 115-16; Michael Hamilton, *The Charismatic Movement*(Grand Rapid: Eerdmans, 1975), 00. 73-74; "Pentecostal Churches," *EB*, XIV, 31.
- <sup>26</sup> Hamilton, p. 74.
- <sup>27</sup> Crane Brinton et al, *A History of Civilization*, 3rd ed.(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7), I, 472, 480.
- <sup>28</sup> "Tongues, Gift of," *SDB*, IV, 3310-11.
- <sup>29</sup> *Ibid*:"Camisards," *ERE*, III, 175-176; "Pentecostal Churches," *EB*, XIV, 31; Schaff, I, 114; "Tongues, Gift of," *ADB*, IV, 796.
- <sup>30</sup> Bloesch, II, 115-16; "Charismata," *ERE*, III, 370; Schaff, I, 114.
- <sup>31</sup> "Charismata," *ERE*, III, 370; "Pentecostal Churches," *EB*, XIV, 31; "Tongues, Gift of," *ADB*, IV, 796; "Tongues Gift of," *SDB*, IV, 3310-11.
- <sup>32</sup> Bloesch, II, 115-16; Hamilton, p. 77.
- <sup>33</sup> "Tongues, Gift of," *ADB*, IV, 796.
- <sup>34</sup> *Ibid*: "Tongues, Gift of," *ADB*, IV, 796.
- <sup>35</sup> Howard Snyder, *The Radical Wesley*(Downers Grove, III: Inter-Varsity Press, 1980), p. 96.
- <sup>36</sup> John Wesley, "A Letter to the Reverend Dr. Conyers Middleton," *The Works of John Wesley*, 3rd. ed. (Rp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X, 54-55.
- <sup>37</sup> *Ibid*, p. 55.
- <sup>38</sup> *Ibid*, p. 56.
- <sup>39</sup> Clark, pp. 111-12.
- <sup>40</sup> *Ibid*, pp. 112-13.
- <sup>41</sup> *Ibid*, pp. 114-17.
- <sup>42</sup> *Ibid*, pp. 116-17.
- <sup>43</sup> William Sweet,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0), pp. 133, 227-31.
- <sup>44</sup>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Grand Rapids: Eerdmans, 1971), p. 25, quoting E. Merton Coulter, *College Life in the Old South*(New York, 1928), pp. 194-95.
- <sup>45</sup> Synan, p. 25 n.29.
- <sup>46</sup> Hamilton, pp. 84-85.
- <sup>47</sup> "Irving and the Catholic Apostolic Churches," *ERE*, VII, 422-25;

- "Pentecostal Churches," *EB*, XIV, 31; "Tongues, Gift of," *ADB*, IV, 796; "Tongues, Gift of," *SDB*, IV, 3310-11.
- <sup>48</sup> Schaff, I, 115.
- <sup>49</sup> Bloesch, I, 115-16.
- <sup>50</sup> "Tongues, Gift of," *SDB*, IV, 3310-11; Schaff, I, 114.
- <sup>51</sup> *Ibid.*
- <sup>52</sup> "Pentecostal Churches," *EB*, XIV, 31.
- <sup>53</sup> Brumback, pp. 92-94, quoting Souer[or Sauer],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II, 406 and R. Boyd, *Trials and Triumphs of Faith*(1875), p. 402.
- <sup>54</sup> Justo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Nashville: Abingdon, 1975), III, 271.
- <sup>55</sup> Robert Dalton, *Tongues Like as of Fire*(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45); Ewart, pp. 59-93; Foster, pp. 41-69; Stanley Frodsham, *With Signs Following*(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41).
- <sup>56</sup> Don Basham, *Face Up with a Miracle*(Springfield, Pa.: Whitaker House, 1967); Hamilton, passim; John Sherrill, *They Speak with Other Tongues*(New York: McGraw-Hill, 1964).
- <sup>57</sup> *WCE*, pp. 6, 14.
- <sup>58</sup> "Counting Every Soul on Earth," *Time Magazine*, May3, 1982.
- <sup>59</sup> *WCE*, p. 6.
- <sup>60</sup> *WCE*, pp. 720-25, In the spring of 1983 the author sent a survey to most of these groups, but only received responses from the *UPCI* and from the Apostolic Overcoming Holy Church of God, which reported 198 churches. For a description of these and several smaller Oneness Pentecostal groups, see J. Gordon Melton, *The Encyclopedia of America Religions*(Wilmington, N.C.: McGrath Publishing Co., 1978), pp. 287-94 and Arthur Piepkorn, *Profiles in Belief: The Religions Bod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San Francisco: Harper & Row, 1979), III, 195-219.
- <sup>61</sup> "Profile: General Superintendent, Reverend Nathaniel A. Urshan," *UPCI Press Release of September 1983*, p. 14.
- <sup>62</sup> Financial Reports, *UPCI*, Year ending June 30, 1983(Hazelwood, Mo.: Pentecostal Publishing House), pp. 8, 78.
- <sup>64</sup> Annual Field Report from *UPCI*, Foreign Missions Division, 1984.
- <sup>65</sup> *WCE*, pp. 216, 234, 243, 327, 386-87, 490-91.
- <sup>66</sup> "Churches in China: Flourishing from House to House," *Christianity Today*, June 18, 1982, pp. 24-25.
- <sup>67</sup> *WCE*, p. 234.
- <sup>68</sup> John Yang, *The Essential Doctrines in the Holy Bible*, M. H. Tsai, trans.(Taichung, Taiwa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True Jesus Church in Taiwan, 1970), pp. 113, 119, 157-58.
- <sup>69</sup> Cornelia Butler Flora, *Pentecostalism in Columbia: Baptism by Fire and*

<sup>69</sup> *Spirit*(Cranbury, N. J.: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74); Donald Palmer, *Explosion of People Evangelism*(Chicago: Moody Press, 1974).

<sup>70</sup> Walter Sawatsky, *Soviet Evangelicals Since World War II*(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1), p. 95.

<sup>71</sup> *Ibid*, p. 434.

<sup>72</sup> *WCE*, pp. 695-96.

<sup>73</sup> *WCE*, pp. 792-93.

## 제 12장

# 예외는 과연 있는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 하셨느니라” (히 2:3-4).

우리가 이 책에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신약의 구원 계획 이외에 다른 예외가 과연 있는가? 이 장은 어떤 이들이 제안한 예외들에 대하여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성경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기본 원칙들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토론의 원칙들을 세우고자 한다.

(1)하나님만이 개개인의 구원을 결정하신다 (롬 2:16; 히 12:23).

어떤 사람도 다른 누군가를 지옥에 간다고 정죄하거나 천국에 간

다고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되 서로를 판단하지는 말고 타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치셨다(마 7:1-5; 눅 6:37). 예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요 3:17).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순종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경고해야 하나 최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있다면 단지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조금하게 배척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제자들은 그를 단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금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막 9:39-40).

이러한 사람들(진리는 가지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존중하는 이들)은 비록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라도(마 7:21-23)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다(빌 1:15-18). 따라서 그들을 배척하기 보다는 그들이 하고 있는 선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긍정적인 태도로 전한다면 진리는 스스로 말할 것이고 또한 스스로의 답변이 될 것이다.

(2)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자비를 베푸시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내가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라고 말씀하셨다(롬 9:15). 또한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이 자비를 베푸실 조건들을 명백히 전하셨다. 바울은 처음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쳤고(롬 9:14-24),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롬 10:9-17).

(3) 성경은 참된 교리에 관한 한 유일한 권위이며 구원의 지침서이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요 5:39-40). 그분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 그 자체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스도를 명백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전파하는 유일한 복음만을 가르친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다(갈 1:8-9).

모든 참된 교리는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5-17).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을 교리에 첨가할 수 없다. 더우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둘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

남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그분의 권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한 계획만을 가르칠 권위를 가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추론, 철학, 난해한 구절을 추측하여 꿰어 맞추는 등, 잘못되고 부정확한 가르침들을 전할 수는 없다. 성경의 가르침과 예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예외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4)우리는 특이한 상황들이나 가상(假想)의 경우를 가지고 교리를 세우려 해서는 안된다. 인간적인 동정이 오히려 우리를 낭패케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예외를 가지고 교리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한 예로써 설령 하나님께서 물침례를 통하지 않고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상황들 가운데서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권한밖의 말을 하는 것이 된다. 만약 우리가 침례 받지 않은 한 사람에게 예외를 둔다면 논리적으로 말해 침례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린다.

이와 같이 사람 스스로가 심판자가 된다면 결국 우리는 성경을 불순종하는 것과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므로 그분은 공정하고 법적으로 정확한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원칙들을 특정한 상황들에도 적용시킬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도록 격려한 후에 영원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5)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가장 공정한 심판자이시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공정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시 100:5).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도 틀릴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를 베푸실 권리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특정 상황들 가운데서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全知)하시기 때문이다. 오직 그분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과거의 기회들과 또 미래의 기회들에서 개인이 선택할 길을 아신다.

(6)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수의 사람들만 따른다고 해서 변경시킬 수는 없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롬 3:3-4).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마 7:14).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눅 13:23) 라고 질문했을 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라고 대답하셨다(눅 13:25).

노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겨우 여덟 명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계획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1세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들 대부분은(이스라엘은) 그분의 계획을 거부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 당시의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단체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만약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놀라운 일일까?

## 이방인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는가?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예수께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요 8:24). 바울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기록했다(살후 1:7-9).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이미 하나님의 피조물들 속에 분명한 증거를 받았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롬 1:19-20).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영광과 감사를 돌릴 책임을 주셨다(롬 1:21).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충분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만약 그것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2)만일 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어떤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이며 그러한 죄에 해당되는 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롬 1:32).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그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며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이들은 율법없이 판단을 받을 것이다(롬 2:12-16).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양심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

신의 양심의 요구에 따라서 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번 이상 잘못을 범했다(롬 3:10, 23). 아무도 자신의 행위나 양심의 법을 포함한 법을 지키므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롬 3:20; 엡 2:8-9). 양심은 단지 정죄를 위한 증거가 될 뿐이지, 그리스도 밖에서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만약 누군가가 진실된 마음으로 양심을 좇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길을 보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히 11:6). 그분은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존중하신다(시 34:18; 51:17).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대상 28:9; 29:3-14; 마 7:7).

하나님께서서는 진리 밖에서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딤후 2:4). 고넬료는 좋은 예가 된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행 10:1-2). 간단히 말해,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구했고, 찬양했으며, 순종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다(행 10:3-6). 천사가 그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거나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다. 천사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다. 고넬료가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천사는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언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했다(행 11:13-14).

대한민국의 서울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무당이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미신적인 주술 행동들과 악령들과의 교통때문에 영혼이 고통스러워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렸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그녀는 두명의 미국인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 그 후 그녀는 회복되었고 어느 날 제

일 오순절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찬송 소리에 이끌려 그녀는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이전에 그녀가 환상에서 본 두 명의 미국인들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엘톤과 로레타 버나드 선교사 부부(Elton & Lretta Bernard, 역자 주: 한국연합오순절 교회 초대 선교사)였는데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었다. 이 기적의 결과로 인해 그 젊은 여성은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도 받았다. 그리고 결국은 무당이었던 어머니까지도 주께로 인도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 마음의 소원을 아셨고 그분을 찾으려는 그 순전한 갈망을 아셨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녀를 진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만약 이방인들이 복음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필요한 것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만약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구원을 받는다면 선교사들은 이미 구원받은 이들을 멸망당하게 하는 꼴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으나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사실상 더 많은 사람들을 잃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벧후 3:9).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3-15, 17)라고 기록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까지는 잃어버린 상태에 처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

자비를 보이신다. 그분은 사람의 죄에 아무런 책임은 없으시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울 책임도 없으셨다. 구원은 그의 은혜로 받는 것이므로 그분은 그것을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서 허락하신다. 더우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시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다. 오늘날에는 그분께서 교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무를 주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후대와 당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존재 그 이상의 분이시다 -그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와 양심을 통해서 증거를 주신 분이시다.

### 도덕적이고 진실한 사람들

아무도 천성적으로 의롭지는 못하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아무도 자신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롬 3:10-12, 23, 27, 28; 엡 2:8-9). 단 한 가지의 죄라도 한 영혼을 정죄 받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는 다만 죄인일 뿐이다. 누구라도 자신의 어떤 것을 댓가로 지불하고 구원을 살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만약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도덕과 선행은 결코 구원을 불러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많은 모슬렘교도들이나 유대인들, 불교신자들, 힌두교인들,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 만큼, 혹은 그리스도

인들보다 더 훌륭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며 또 선행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준수하면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으나 그 역시 개종을 필요로 했다(빌 3:5-7).

진실함 자체로서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짓 종교인들이나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및 다른 많은 이들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 아주 진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요 4:24).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신다(삼상 15:22), 그리고 아무도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렘 17:9-10). 우리는 온전치 못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선함을 판단함으로써 그 사람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예외(例外)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 채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믿고 복음을 순종해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며, 심지어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다(마 7:21-27). 많은 이들이 그를 안다고 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분의 임재를 누릴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눅 13:25-27).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복음을 순종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교통하셨다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온전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체험을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으나 아직 사도적인 신자들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요한복음 3:5과 사도행전 2:38절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블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의 경우를 보여 주는 성경적인 예이다(행 18:24-28). 그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통달했으며, 주의 도를 배운 사람으로써 열정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쳤고, 회당에서 담대히 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를 데려다가 더 완전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장에서 바울이 요한의 12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성경을 아주 깊게 이해하고 능력있는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 영적 뜨거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들은 말하자면, 사도적인 오순절의 준비 교인(pre-pentecostal believers)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사도적인 교회의 일부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인도함을 받아야 했다.

아마도 그들의 현재 위치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태아의 단계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에이 디 어션(A. D. Urshan)이나 지 티 헤이우드(G. T. Haywood)같은 오순절 신앙

의 개척자들은 다음의 비유를 했다.<sup>1</sup> “말씀이 심겨졌고 그 결과로서 잉태되었다(눅 8:11; 벰전 1:23). 그러나 사실상의 출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완전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출생을 필요로 한다.”

### 교회사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교회 시대를 위해 오직 하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읽혀져 왔다. 사도시대 이후의 역사적인 기록들 또한 그 후의 세대들에게 읽혀 왔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예수 이름의 침례와 방언으로 수반되는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확인해 주었다. 더우기 이러한 교리는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sup>2</sup>

우리는 교회 역사의 비중있는 지도자들이 개혁 기간동안 어떠한 영적 생활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것이고 중요성을 잘 모르면서도 방언을 말했을 것이다. 또한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사도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많은 증거들도 있다.

예를 들자면 종교개혁 동안에 유명한 스페인의 외과 의사였던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 재침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르쳤다. 루터(Luther)와 쾰링글리(Zwingli), 칼빈(Calvin)은 모두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특히 루터는 예수 이름의 침례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많은 재침례교도들 사이에 빈번한 일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다. 루터는 예언과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던(아마도 방언 말함과 통역을 포함한) ‘열성파’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루터를 가리켜 ‘성경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믿는 사람'이라고 간주했다. 그리고 그들은 루터와 루터교 신앙고백(1577)을 배격했다.<sup>3</sup>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도적 진리에 접했었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교리적으로 오류가 없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 영혼의 예정설, 유아세례, 물로 뿌리는 세례, 삼위일체 같은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원칙의 삶에 모범이 되지도 못했다. 루터는 어떤 독일 지도자가 첩을 두는 것을 용인하고 권하기도 하였다. 그는 모든 재침례교도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그들을 처형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야고보서의 가치를 의심하여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유대인들을 폭력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허가했으며, 독일의 봉건적 영주들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지원했다. 그는 농민 반란에 반대하여 '살인적 도적들인 농민 무리에 대항하여'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sup>4</sup> 그 글에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때리고, 칼로 베고, 찌르게 하자'라는 구절도 포함되어 있다.<sup>5</sup> 쾰른의 개신교의 법을 스위스의 천주교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했다.<sup>6</sup> 칼빈은 미카엘 세르베투스를 죽이는 것을 주도했으며 그가 제베바 근교에서 화형을 당하도록 허락했다.<sup>7</sup>

이러한 인물들의 고결한 인격들과 그들이 교회 역사에 기여한 바들은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하거나 오류가 없지는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용기나 열정, 성경의 어떤 부분을 더 잘 이해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등 구원에 있어서 개인적인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열정, 위대한 결단력과 희생을 잘못된 종교나 정치, 국가주의를 위해 바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나 불교, 이슬람교, 공산주의나 어떤 혁명적인 목적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잔인한 고문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었다. 많은 이단이나 사교(邪敎)의 신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나 종교의 자유, 여호와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들의 고난이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조상이나 교회사의 고결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허락해서는 안된다.

### 성경 외적인 추측들

구원에 관한 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다른 추측과 생각들은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 죽음 후에도 기회가 있는가?

몰몬교 신자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을 포함한 어떤 이들은 적어도 이 삶에서 완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는 사후(死後)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상상하기에 흥미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결코 그와 같은 교리를 복음으로서 전할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성경의 어디에서도 이 지구상의 삶이 끝난 후에 복음을 다시 받아들일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다시는 그러한 기회가 없음을 가르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29),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계 20:13).

‘두 번째 기회’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성경구절들이 종종 인용된다. 하나는 바울이 죽은 자들의 침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고전 15:29). 이 부분은 이미 6장에서 언급된 바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했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는 구절이다(벧전 3:18-20). 다음과 같이 이 구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다. (1)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했다. 베드로전서 4:6의 단어와 시제가 이 해석을 지지한다. (2)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육체가 무덤에 누여져 있는 동안에 지하의 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와 악령들(벧후 2:4)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다. (3)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인간의 영들에게 전하였으나 아무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

(2)번과 (3)번의 설명은 ‘전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라는 뜻을 지닌 유안겔리조(*euangelizo*)가 아니고 그냥 ‘정보를 전한다’는 뜻의 케뤼소(*kerusso*)라는 단어이다. 두 가지 설명 모두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획득하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인도하셨을 때 음부(하데스)에 내려 가셨었다는 교리를 지지한다(행 2:25-32; 롬 10:7; 엡 4:8-10; 계 1:18).

## 불완전한 거듭남이 있는가?

불완전한 거듭남이 가능한가?(A Subnormal New Birth?)

어떤 이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사도적인 패턴과는 완전히 부합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은 구약의 인물로는 이드로, 발람, 그리고 니느웨성, 교회시대 이전의 인물로 십자가 강도 등 특정한 인물들을 예로 든다.

그러나 십자가 위의 강도는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곧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자유가 있으심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들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예들은 아주 특이한 상황과 시기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1)어떤 이들은 방언의 표적은 없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언에 대해서 몰랐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방언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2)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침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침례를 받았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그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를 주로서 완전히 믿고 또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가정이 따른다.

비록 이러한 주장들이 논리적이고 통일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1)성경은 예외적인 암시보다는 분명한 사도적인 경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2)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방언을 표적으로 하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심지어는 방언을 기대하지 않던 이들도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잘 모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분명한 책임은 완전한 사도적인 경험을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 유아들의 운명

우리는 아직 너무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

개하거나 지적으로 자신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러한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1)그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시 51:5; 롬 5:12-21). 이 견해는 죄성이 죄에 대한 욕망 뿐이 아니라 개인적인 죄와는 관계없는 유전된 죄의식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러한 주장을 믿는다. 그들은 어린아이들도 원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연옥이라는 불리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 내었는데 거기에는 고통도 기쁨도 없다고 가르친다.

(2)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예로 드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마 18:1-10; 19:14).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천국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죄성을 완전히 없애실 것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3)그들은 천년왕국때 부활될 것이고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나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

(4)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예지(豫智)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만약 살아 남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아시고 그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자유의지와 유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답 불가능한 질문들을 일으킨다.

(5)유아들의 구원은 그들의 부모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견해의 문제점은 그들 부모의 죄와 그들이 믿을만한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구약에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예들이 있었다. 노아의 홍수는 그 예들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어린 아이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들이 때로는 그들 부모들의 행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경우를 말해준

다.

고린도 전서 7장 14절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이 믿는 배우자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고 그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룩해 진다(하나님께 구별됨)고 가르친다. 만약 이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장성한 자녀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구절은 믿는 가족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보다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유아들이나 지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합리적인 책이고 또한 성경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떤 연령층에도 한정시키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성경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한다(잠언 22:6),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신다. 6세나 7세, 9세, 10세의 어린 아이도 성령을 받곤 한다. 성경은 아무런 나이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 지적 능력이나 신체의 발육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유아, 정신박약, 저능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혼돈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신 것처럼 또한 그들에게 자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또한 (위에 언급한)

그들도 그분의 한량없이 자비하신 손에 맡길 수 있다.

## 형벌의 정도들

성경은 죄인들이 그들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정도의 형벌(Punishment)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이 받게 될 무서운 형벌의 사실성을 축소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어 버린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덜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을 동정하여 복음의 예외들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평가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에 따른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다음의 구절들은 그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 가르친다.

(1) 예수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증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 12:48)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그는 타국에 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갑자기 돌아온 주인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 하셨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은 증은 많이 맞을 것이고, 주인의 뜻을 잘 모르고 잘못을 한 하인은 적게 맞을 것이라는 말이다(눅 12:42-48).

(2)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막 12:38-40).

(3)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던 이들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마 12:43-45; 벧후 2:20-22).

(4)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들의 선행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고전 3:11-15). 만약 같은 원칙이 죄인들에게 적용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악행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5)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롬 2:6, 11-16). 어떤 사람도 복음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 양심의 법을 따라 행한 죄인들은 그 영역들에 있어서는 심판을 면제받게 될 것이나 반면에 양심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롬 2:14,15). 이러한 구별은 형벌에 다른 단계들이 있다는 사실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6)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이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면 그는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마 10:40-42; 막 9:4).

## 결 론

성경은 죄로부터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 침례, 그리고 성령의 침례로 요약되는 단순한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 외에는 그 어떤 예외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비성경적인 이론들과 추측들을 진리라고 가르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모든 교리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리를 구하고 온전히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2:38을 거듭남의 표준으로 삼는 완전한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

## 각 주

<sup>1</sup> Andrew Urshan, *Apostolic Faith Doctrine of the New Birth*(Portland, Or.:



Apostolic Book Publishers, n.d.), pp.3, 15; G. T. Haywood, *The Birth of the Spirit in the Days of the Apostles*, pp. 10-11, 21-22, Rpt. in Paul Dugas, ed. and comp., *The Life and Writings of Elder G. T. Haywood*(Stockton, Ca.: WABC Apostolic Press, 1968).

<sup>2</sup>For documentation of information in this section, see chapters 10 and 11.

<sup>3</sup>Rene Laurentin, *Catholic Pentecostalism*, Matthew J. O'Connell, trans. (Garden City, N. J.: Doubleday & Co., 1977), pp. 133-34.

<sup>4</sup>Roland Baiton, *Here I Stand*(Nashville: Abingdon, 1978), pp. 259, 292-97

<sup>5</sup>Ibid, pp. 216-17.

<sup>6</sup>Latourette, II, 749.

<sup>7</sup>Klotsche, p. 224.

## 제 13장

# 구원의 네 가지 요소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전 6:11).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죄로 말미암은 모든 문제를 치료할 것이다. 그것은 아담과 다른 이들에 의해서 잃어버린 바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며(롬 5:5-21),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실 것이다(롬 8:29; 요일 3:2).

이 장에서는 칭의, 중생, 양자됨 그리고 성화 등 구원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칭의(稱義, Justification)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과정을 말한다. 죄인은 사실상 본성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과거에 지은 죄와 상관없이 그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다.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칭의는 두 가지 요소로서 이루어진다. (1)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 그의 죄의식과 죄로 인한 벌들을 사하시는 것(롬 4:6-8; 8:1). (2)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傳嫁, Imputes)시키시는 것. 그럼으로써 죄인이 무죄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롬 3:22; 4:3-5; 고후 5:20-21).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결과로서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롬 5:1, 9-10). 그리고 그는 영생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게 된다(롬 5:9; 8:30; 갈 3:10-14; 딤후 3:7).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4-25).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결코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8).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5).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는 전체의 구속 사업을 유효하게 한다. 즉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으며, 또한 그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유효하게 하였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 죄함을 위하여 내

어쭙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4-25).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의 원천이요, 그리스도의 피(그분의 죽으심과 장사지냄, 부활)는 칭의의 근거이며, 믿음은 우리가 그 칭의를 받는 조건이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기 때문에 칭의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을 온전히 발휘할 때, 즉 복음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2장 참조). 그러므로 온전한 칭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에 받게 된다.

고린도 전서 6:9-10에서 바울은 열 가지의 불의한 사람들의 경우를 나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11) 라고 선언한다. 즉 칭의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 구절이 ‘침례’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스미스 성경사전(Smith’s Dictionary of the Bible)은 이 구절이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임을 설명해 준다.<sup>1</sup> “일반적으로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 이 구절이 침례를 의미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침례교 신학자는 “이 구절을 침례와 연관시키는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일치되어 있다” 고 덧붙인다.<sup>2</sup>

회개와 침례, 그리고 성령 침례의 목적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칭의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회개 할 때 사람과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럴 때 물침례와 성령침례의 근원이 형성되게 된다. 물침례 시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신다(행 2:38). 그것은 칭의의 첫째 요소가 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에게 심으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

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진다(롬 8:4).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롬 8:9-10).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미래의 구원을 얻도록 도와 준다(롬 8:11).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된다(롬 8:15-17; 갈 3:14). 간단히 말해서 성령의 침례는 칭의의 두번째 요소가 된다.

칭의는 처음에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되고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로 완성된다. 그러므로 칭의는 거듭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칭의를 거듭남의 한 요소에만 연관시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칭의는 거듭남이 이루어진 후에 죄를 짓고 자백을 거듭하는 모든 신자에게도 계속적으로 적용된다.

## 중생(重生, Regeneration)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전의 성품을 개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생한 사람은 이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받는다. 거듭남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1) 이전의 옛 성품을 끝내는 것(고후 5:17) (2)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성품을 받는 것(엡 4:24; 골 2:10; 벧후 1:4).

새로운 성품은 사람의 욕구와 태도에 변화를 가져 온다(엡 4:23-32).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준다(행 1:8; 롬 8:4). 거듭남은 우리에게서 죄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죄성이나 육욕적인 성품) 다른 하나는 성령의 법이다. 만약 그가 육신의 요구를 따라 행하거나 육신을 의지한다면 그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수가 없다

(롬 7:21-25; 8:12-13; 갈 5:19-21). 그러나 만일 그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는 죄를 이기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롬 8:1-4; 갈 5:22-23; 요일 3:9). 어떤 사람도 거듭남의 역사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요 3:3-7; 갈 6:15).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된다(요 1:13; 딤후 3:5; 약 1:18). 그리고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다(요 1:12-13).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난 바 되었다(고전 4:15; 약 1:18; 벧전 1:23).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 구원의 씨가 뿌려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거듭남으로 태어나기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 2:38을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회개와 물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묻힌다. 그것은 우리의 옛 생활 습관과 죄가 주관하던 삶의 행태가 파괴된 것을 말한다(롬 6:1-7). 성령의 침례는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고 옛 사람이 죽은 것을 완전하게 해 준다(롬 8:8-9, 13). 그러므로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중생의 두 가지 요소와 일치한다. 두 가지 모두 거듭남의 일부이다. 따라서 중생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난다.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고, 영적인 인도와, 매일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줌으로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 양자(養子)됨(Adoption)

양자됨이란 아이를 선택해서 새로운 가족과 연결하여 자리를 잡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중생은 우리가 새로운 영적 탄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한다.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의 장성한 아들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에 따라서 그 위치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함께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갈라디아서 4장 1-7에

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의 삶과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성령 안에서  
 의 삶을 대조시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전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매여서 살았다. 마치 다 자라지 못한 자녀들이 보호자와 개인교사들  
 의 영향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인 채로 살았  
 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  
 속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  
 신 유업을 받을 자들이 되었다. 바울은 양자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  
 서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설명했다. 왜냐하면 양자됨은 사람이 이전  
 에는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권리와 특권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로마서 8:14-17에서 바울은 양자됨의 비유를 조금 다르게 사용한  
 다. 우리가 회심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그  
 리고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다. 그리고 양자로서 우리는 친자가 누리  
 는 모든 법적인 권리와 특권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며  
 또한 유일한 상속자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여짐으로서  
 우리 또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양자됨의 모든 유익을 누리지는 못했다. 우리는 아직  
 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의 구속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  
 다리고 있다(롬 8:23).

양자됨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서 비롯된다(엡 1:4-5).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온다(갈 3:26). 성경은 양자삼음이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하  
 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6-27),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  
 느니라”(고전 12:13),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

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 8:15). 결국 성령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한 증보인 동시에 양자로서 얻는 첫 이득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은 거듭남과 동시에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므로 거듭남과 동시에 이미 양자됨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요일 3:1), 또한 거듭남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유업의 첫 열매로써의 성령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롬 8:23; 갈 4:6; 엡 1:13-14).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유업에 대한 확증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양자됨은 아직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직 모든 피조물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드러나는 것과 우리 몸의 구속,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모든 우리의 유업을 기다리고 있다.

## 성 화(聖化, Sanctification)

성화는 문자적으로 ‘구별(Separation)’을 의미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문맥으로 설명하자면 성화는 거룩함과 같은 뜻이고 그것은 죄로부터의 분리와 하나님께로 헌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는 의로운 사람,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하신다(고전 6:11).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성숙함과 온전함을 이 삶에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후 3:18; 7:1; 엡 4:11-15; 벧후 3:18). 이것은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의 온전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온전함이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과 죄를 지을 가능성은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절대적인 의미로의 온전함에서는 다른 단계에 있을



지라도, 상대적 의미에서의 온전함에는 이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두 어린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는 각기 다른 단계에 있으나 두 아이 모두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냐와 우리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마 13:23; 25:14-30). 그분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막 4:26-29). 만약 우리가 거듭났다면 적당한 속도로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사용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갈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온전해 질 수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상대적인 온전함을 성취하시는 것이다(마 5:48). 만약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순종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우리를 그분 자신처럼 온전케 변화시키실 것이다(빌 3:12-14; 살전 3:13; 요일 3:2).

우리의 성화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반을 두고 있다(행 26:19; 살전 5:23; 히 10:10). 성화의 첫 단계는 회개와 물침례, 그리고 성령의 침례이다(고전 6:11). 그리고 계속되는 성화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롬 1:17),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살후 2:13; 벧전 1:2).

요약하자면, 성화는 거듭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된다. 또한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

##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로마서 8:28-30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다섯 단계의 구원

계획을 기록하고 있다.

(1)예지(Foreknowledge).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을 것과 구원 계획이 필요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 또한 그분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 응답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셨다.

(2)예정(Predetermination).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응답할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벧전 1:18-20; 계 13:8).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로 예정되었다. 교회는 성공하기로 예정되었으나 각각의 개인은 자신을 예정된 구원의 계획 속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3)부르심(Calling).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교회에 속할 수가 있다(헬라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임).

(4)칭의(Justification).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신다.

(5)영화(Glorification). 마지막 단계는 영화이다. 그것은 성화의 완성을 의미한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과거 시제로서 표현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미리 예정된 일(Predetermined event)이다. 그 때 우리는 완전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영광을 입은 몸을 입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 요 약

이 장에서는 구원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했다. (1)칭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2)중생,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는 것. (3)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4)성화,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고 실제로 의롭게 되는 과정.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더우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이 네 가지 모두는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이 더욱 명백해짐을 알 수 있다. (1)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서 얻는 것이며 (2)물침례와 성령침례는 우리 구원 체험의 일부라는 것이다.

칭의, 중생, 양자됨과 성화를 이루는 첫 단계는 모두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난다. 우리는 그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성경은 물과 성령의 침례가 합하여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임을 강조한다(4장 참조).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의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믿는다. 사도행전의 일반적인 패턴도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었다(행 2:38; 10:44-48; 19:1-6).

만약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물 침례와 함께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배운다면 그들은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온 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던지, 아니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다(행 19:1-6; 행 10:44-48).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회개와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동시에 받은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안하

서서, 우리가 요한복음 3:5과 사도행전 2:38의 단순한 메시지를 순종할 때, 모든 구원의 요소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 각 주

<sup>1</sup> "Baptism," SDB, I, 238.

<sup>2</sup> Beasley-Murray, p. 163.

## 제 14 장 정직한 답변

이 책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할 때 제기했던 원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신약 성경의 답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서 능력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구원의 방법에 대한 참된 성경의 연구는 우리를 이와 같은 대답으로 인도한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한다(본서1장).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이다(2장).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지냄,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신약의 설교자들이 가르친 것이다(3장). 그것은 거듭남이며,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4장).

회개는 죄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성(intellect), 감정(emotions), 의지(will)의 변화를 포함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애통해 하며, 그 죄를 버릴 결심을 하는 것이다(5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침례 방법은 물 속에 잠기는 것이다. 그

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때 죄를 회개한 사람의 죄를 씻으신다(6장). 또한 올바른 침례의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 외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이다(7장). 성령의 침례는 구원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이다(8장). 성령침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서, 개인적인 혹은 예배시의 방언으로 존재한다(9장).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의 교부들도 이것을 가르쳤다. 더우기 이 가르침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큰 부흥을 맞는다(10장, 11장).

성경은 이러한 완전한 복음에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불완전한 가르침에도 만족해서는 안된다(12장).

칭의와 중생, 양자됨과 성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원의 역사 모두는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13장). 그러나 거듭남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첫 단계일 뿐이다. 거듭난 사람은 그 후에 믿음으로 걸고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미래에 올 완전한 구원을 누려야 한다(성결을 찾아서 참조, 로레타 버나드-데이빗 버나드 공저).

우리는 이 신약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받으라고 권고하고자 한다. 누구든지 “내가 그것을 꼭 받아야 합니까?” 라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오늘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책임을 최대한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려는 질문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험과 교리는 완전히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완전한 사도적 복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하나님께 대답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명백하다. 우리는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만약 내가 그와 같은 신약의 체험을 받지 못한다면 지옥에 가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간다든지 지옥에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할 수 있고 또 그것만을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단순한 구원의 복음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생생하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8-39).

우리는 지금까지 거듭남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설명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해 오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했다. 우리가 지금껏 연구한 교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지냄, 부활하심만이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다. 은혜의 적용과 믿음의 표현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물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때 이루어진다.

17



## 참고문헌

- Amplified Bible, The. Grand Rapids: Zondervan, 1965.*
- "And Now-Deprogramming of Christians is Taking Place," *Christianity Today*. April 22, 1983.
- Ante-Nicene Fathers, The.*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eds.). Rpt. Grand Rapids: Eerdmans, 1977.
- Asimov, Issac. *The Human Body*.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63.
- Baiton, Roland. *Here I Stand*. Nashville: Abingdon, 1978.
- "Baptism," *A Dictionary of the Bible*. James Hastings(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8.
- "Baptism,"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1962.
- "Baptism," *Smith's Dictionary of the Bible*. H. B. Hackett(ed.). 1870, Rp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1.
- "Baptism(Early Christians),"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James Hastings(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1.
- Barrett, David(ed.).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Basham, Don. *Face Up with a Miracle*. Springdale, Pa.: Whitaker House, 1967.
- Beall, James Lee. *Rise to Newness of Life*. Detroit: Evangel Press, 1974.
- Beasley-Murray, G. R. *Baptism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2.
- Bernard, David. *The Oneness of God*. Hazelwood, Mo.: Word Aflame Press, 1983.
- Bernard, Loretta and Bernard, David. *In Search of Holiness*. Hazelwood, Mo.:Word Aflame Press, 1981.
- Bethune-Baker, J. F. *An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London: Methune & Co., 1933.
- Bloesch, Donald.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8.
- Bonhoeffer, Dietrich. *The Cost of Discipleship*, 2nd ed., trans. R. H. Fuller. New York: Macmillan, 1959.
- Bousset, Wilhelm. *Kyrios Christianity- A History of the Belief in Christ from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to Irenaeus*, 5th ed., trans. John Steely. New York: Abingdon, 1970.
- Brinton, Crane et al. *A History of Civilization*, 3rd ed.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7.

- Bruce, F. F. *Answers to Questions*. Exeter, U. K.: Paternoster Press, 1972.
- Brumback, Carl. *What Meaneth This?*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47.
- Buswell, James Jr.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0.
- "Camisards,"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 Chalfant, William. *Ancient Champions of Oneness*. Hazelwood, Mo.: Word Aflame Press, 1982.
- "Charismata,"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 "Churches in China: Flourishing from House to House," *Christianity Today*. June 18, 1982.
- Clark, Elmer. *The Small Sects in America*. Nashville: Cokesbury Press, 1937.
- Clarke, Adam. *Commentary on the Bible*, abr. by Ralph Ear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7.
- "Counting Every Soul on Earth," *Time Magazine*, May 3, 1982.
- Dalton, Robert. *Tongues Like as of Fire*(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45.
- Danielou, Jean.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Doctrine Before the Council of Nicaea, Vol. I: The Theology of Jewish Christianity*, ed. and Trans. John Baker. London: Darton, Lonman, and Todd, 1964.
- Demarest, Bruce, "How to Know the Living God," *Christianity Today*. March 18, 1983.
- Dowley, Tim et al(eds.). *Eerdmans' Handbook to the History of the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77.
- Dugas, Paul, (ed. and comp.). *The Life and Writings of Elder G. T. Haywood*. Stockton, Ca.: WABC Apostolic Press, 1968.
- Eaves, James. "Seven Steps to Blessed Assurance," *Fulness*. November-December 1980.
- Erdman, Charles.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0.
- Evans, William. *Great Doctrines of the Bible*. Chicago: Moody Press, 1974.
- Ewart, Frank. *The Phenomenon of Pentecost*, rev. ed. Hazelwood, Mo.: Word Aflame Press, 1975.
- Fauss, Oliver. *Baptism in God's Plan*. St. Louis: Pentecostal Publishing House, 1955.
- Fauss, Oliver. *Buy the Truth and Sell It Not*. St. Louis: Pentecostal Publishing House, 1955.
- Financial Reports, United Pentecostal Church International, Year ending June 30, 1983*. Hazelwood, Mo.: Pentecostal Publishing House, 1983.

- Flora, Cornelia Butler, *Pentecostalism in Columbia: Baptism by Fire and Spirit*. Cranbury, N. J.: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1974.
- Foster, Fred. *Their Story: 20th Century Pentecostals*. Hazelwood, Mo.: Word Aflame Press, 1981.
- Frodshman, Stanley. *With Signs Following*.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41.
- Fuller, David Otis(ed.). *Counterfeit or Genuine? Mark 16? John 8?* Grand Rapids: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Kregel, Inc.), 1975.
- Fuller, David Otis(ed.) *Which Bible?* Grand Rapids: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Kregel, Inc.), 1975.
- Geisler, Norman and Nix, William.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Bible* Chicago: Moody Press, 1968.
- Gonzalez, Justo.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ashville: Abindon, 1975.
- Hall, William Phillips, *Remarkable Biblical Discovery of "The Name" of God According to th Scriptures*. 1929; Rpt. St. Louis: Pentecostal Publishing House, 1951.
- Hamilton, Michael. *The Charismatic Move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 Heick, Otto.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5.
- Henry, Matthew. *Commentary*. Old Tappan, N. J.: Fleming H. Revell, n.d.
- Hesselgrave, David.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 Hoekema, Anthony. *Holy Spirit Baptism*. Grand Rapids: Eerdmans, 1972.
- Hoekema, Anthony. *What About Tongues Speaking?* Grand Rapids: Eerdmans, 1966
- Hollenweger, Walter. *The Pentecostals*. trans. R. A. Wilson.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2.
- Holy Bible, The*, King James Version.
- Holy Bible,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Grand Rapids: Zondervan, 1978.
- "Irving and the Catholic Apostolic Churches,"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 Klotsche, E. H.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rev.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 Lange, John Peter. *Commentary on th Holy Scriptures*. Grand Rapids: Zondervan, 1960.
- Latourette, Kenneth.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 Row, 1953.
- Laurentin, Rene. *Catholic Pentecostalism*, trans. Matthew J. O'Connell. Garden City, N. J.: Doubleday and Company, 1977.

- Laurin, Robert.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Bernard Ramm et al, *Hermeneutic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7.
- Marshall, Alfred(ed.). *The Interlinear Greek-English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58.
- Melton, J. Gordon. *The Encyclopedia of American Religion*. Wilmington, N. C.: McGrath Publishing Company, 1978.
- Morris, Henry III. *Baptism: How Important is It?* Denver: Accent Books, 1978.
- Murk, W. H. *Four Kinds of Water Baptism*. St. Paul, Minn.: Northland Publishing Co., 1947.
-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The*. Philip Schaff and Henry Wace(eds.). Rpt. Grand Rapids: Eerdmans, 1976.
- Nicoll, W. Robertson(ed.). *The Expositor's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56.
- Palmer, Donald. *Explosion of People Evangelism*. Chicago: Moody Press, 1974.
- Paterson, John. *The Real Truth About Baptism in Jesus' Name*. St. Louis: Pentecostal Publishing House, 1953.
- Pentecost, J. Dwight. *The Words and Works of Jesus Christ*. Grand Rapids: Zondervan, 1981.
- "Pentecostal Churches," *Encyclopedia Britannica*. Chicago: William Benton, 1976.
- Piepkon, Arthur. *Profiles in belief: The Religious Bod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9.
- Pugh, J. T. *How to Receive th Holy Ghost*. Hazelwood, Mo.: Pentecostal Publishing House, 1969.
- Reed, David Arthur.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 Theology of Oneness Pentecostalism in the United States*. Ann Arbor, Mich.: Un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78.
- Reynolds, Ralph. *Truth Shall Triumph*. Hazelwood, Mo.: Word Aflame Press, 1965.
- Rushdoony, Rousas John. "Baptism and Citizenship," *Chalcedon Position Paper No. 37*. Vallecito, Ca.: Chalcedon, n.d.
- Sawatsky, Walter. *Soviet Evangelicals Since World War II*.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1.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3rd. ed. 1890; Rpt. Grand Rapids: Eerdmans, 1598.
- Sherrill John. *They Speak with Other Tongues*. New York: McGrawHill, 1964.
- Smedes, Lewis. *Union with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83.
- Snyder, Howard. *The Radical Wesle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 Press, 1980.
- Solomon, Charles. "Counselor's Corner," *Fulness*. November-December 1980.
- Spence, H. D. M. and Exell, Joseph(eds.). *The Pulpit Commentary*. Rpt. Grand Rapids: Eerdmans, 1977.
- Strong, James.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Nashville: Abingdon, 1980.
- Sweet, William. *The Story of Religion in Americ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0.
- Synan, Vinson(ed.). *Aspects of Pentecostal-Charismatic Origins*. Plainfield, N. J.: Logos International, 1975.
- Synan, Vinson. *The Holiness-Pentecosta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Grand Rapids: Eerdmans, 1971.
- Tasker, R. V. G.(ed.). *The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71.
- Thiessen, Henry.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9.
- Thomas, W. H. Griffith. *St. Paul's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79.
- "Tongues, Gift of," *A Dictionary of the Bible*.
- "Tongues, Gift of," *Smith's Dictionary of the Bible*.
- Urshan, Andrew. *Apostolic Faith Doctrine of the New Birth*. Portland, Or.: Apostolic Book Publishers, n.d.
- Urshan, Andrew. *The Life of Andrew Bar David Urshan*. Stockton, Ca.: Apostolic Press, 1967.
- Vaughan, Curis(ed.). *The New Testament from 26 Translations*. Grand Rapids: Zondervan, 1967.
- Vine, W. E. *An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Old Tappan, N. J.: Fleming H. Revell, 1940.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7.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 Philip Gove et al(eds.). Springfield, Mass.: G. & C. Merriam Co., 1976.
- Weisser, Thomas. *After the Way Called Heresy*. N. P., 1981.
- Wesley, John. *The Works of John Wesley*, 3rd.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0.
- Yang, John. *The Essential Doctrines in the Holy Bible*, trans. M. H. Tsai, Taichung, Taiwa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True Jesus Church in Taiwan, 1970.